



12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12호

(루계 458)



◇◇◇◇◇◇◇◇◇◇ 차 례 ◇◇◇◇◇◇◇◇◇◇

젊 음	4
어 버 이	4
우리에게는 백두산이 있다	5
주 체	8
고 향 길	8
충성의 노래	9
영광의 기대는 빛난다	10
항일의 첫 녀성특전병	13
그 봄이 귀중해	14
항일의 녀전사 — 그 이름 불러보면	14
년 료	15
무궁한 세월과 함께	19
회령의 백살구꽃	20
농장별 꽃피워가는 소조원의 마음	20
우리 누리는 행복을	21
그날의 그 발걸음으로	21
당의 기수	22
내가 만난 청년	23
당의 부름이라면	34
속담풀이	36

밤나무골에서 (외 1 편)	37
신천의 어린 동무야	37
꽃을 피운다	38
나의 고향아 (외 1 편)	47
북변의 새 력사와 더불어	47
작은데서 큰것을!	49
저녁해야	50
불 바 람	51
사랑의 바다	59
만 적 이	60
침 엽 수	64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의 반동적본질	65
막장의 《하늘》 에도 눈이 내린다	68
남조선부르조아소설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	69
노을비낀 포구에서	73
사랑과 증오 (외 1 편)	75
포구의 아름다움	75
희망찬 기적소리	76
풍년이삭 안고선 옥아	76
흘러라 대동강	77
배고동소리 울려라	77
아동공원에서	78
한장의 글발	79
그날에 부를 노래	80

젊 음

최영화

그때는 내 나이 갓 스물
해방의 기쁨이 산과 들에
온통 꽃으로 만발하던 봄
가없이 시들던 나의 운명에도
그 잊을수 없는 봄날
나는 당의 첫 세대 아들로 태어났다

한창 피어야 할 꽃나이건만
모진 설음과 눈물과 고역에
마치 늦가을 된서리를 맞은 들국화처럼
피기를 잃고 속절없이 스러져가던 나에게
생의 고마운 젖줄기를 물려주고
모금모금 새 생명을 부어주던 당

젖가슴에 안긴 갓난아기
그 맑은 두 눈동자에 어머니의 모습을 새기듯
그때 나의 가슴에 고이 간직된
우리 당의 참모습은
만고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젊으신 모습이였다!

혁명의 수십년 길을

한걸음도 드림없이 걸어온
인생의 멀고먼 길우에서
어느덧 나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깔리고...

지금은 내 예순고개에 이른 나이
하지만 오늘도 나는
그때의 갓 스물나이
그 젊음으로 살고있노라

우리 수령님의 젊으신 영상을 간직했던
나의 그 가슴에
오늘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젊으신 영상이
가득차있어
우리 당의 참모습으로 빛나는데
내 마음 어찌 늙어질수 있으랴!

인생의 길에는 늙음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당의 아들로 자라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조선로동당의 첫 세대 아들—나에게는
마음의 젊음만이 있어라!

어 버 이

한원희

수령님의 비상한 기억력에
세상사람들 경탄을 금치 못해라
반세기전 곁을 떠난 투사의 이름도
그이는 잊지 않고계시여라

전화의 날 고지에서 한번 보신 전사들
쇠물끓는 용해장에서 알아보시고
오랜 세월 그의 어머니도 잊어버린
자그마한 상처자리도 기억해주시네

그이는 이름없는 나도 아시고
우리 동네 스물한집 식솔까지 아시리
그이는 우리 인민 한사람 한사람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해주시리

아, 어찌 모르시랴 모를수 있으시랴
그이는 온 나라의 어버이시거니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사랑을 다하시는 어버이시거니

우리에게는 백두산이 있다

문동식

겨울의 백두산

솟눈길 헤치고
겨울의 백두산마루에 올라서니
태고의 산악도 날려버릴듯
광란하는 폭풍
지동치는 눈보라

혹한에 숨막히고
털모자속에서도 귀가 어는 이 산정
없구나 여기엔
한포기 풀도
한그루 나무
한줌의 흙도

여기에선
폭풍에 날릴것은
다 날려가고
눈보라에 얼것은 다 얼어붙고
강설에 묻힐것은 다 묻히고

다만
여기엔
정열함과
순결함
강의함만이
감정을 이루어 솟아있나니

우러러 숭엄한 메부리우에
백설이 쏟아지고 광풍이 휩쓸어도
문힘이 없고

지워짐이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여

그 자욱우에
덧 찍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자욱
여기서 만대에 빛을 뿌리고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싸우던
불굴한 투사들의 엄엄한 기상
오늘도 천창만점인양
치솟은 벼랑들에
그날의 섬광처럼
어려 있거니

오, 백두산아 너는
얼굴수도
날릴수도
불태울수도 없는
넋과 정신 의지와 절개만을
소중히 묻고있는 정화의 상상봉

그 정열함과 순결함
강의함을
조선의 맑은 하늘 푸른 강산
찬란한 미래로 끝없이 펼치고
백두여 너는
무궁한 세월우에 솟아 빛나도다

백두의 밀림속에서

그립도록 오고싶어
밀림속에 들어서니
숲은 설레이며 향기를 풍겨주고
바람은 부드러운 어머니 손길인양
내 등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어라

귀한 자식 기다리는 고향집처럼
문들이 열려있는 밀영의 귀틀집들...
아, 내 경건히 다가서노라
가장 존엄했던 세월에
가장 큰 사랑과 뜨거움으로

나를 안아키워준 감사에 목메이며

울부짖는 눈보라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긴긴밤을 밝히셨어라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
한지에서 떨고있던 겨레들을 안으시고
여기서 설게하시었어라
내 오늘 안겨사는 락원의 지봉들을

대대로 토스레를 돌려입던 내 몸에
철따라 새옷을 입혀주려
여기서 누웠어라
얼어드는 재봉기를 품에 안아 녹이며
총탄도 막아낼 유격대의 군복을

우등불가에 모여앉으면
언제든지 펼쳤어라 보풀진 책들을
내 가슴속에 봄씩처럼 움트던
투사들은 여기서
혁명의 진리를 심장에 새겼거니

아, 발길에 채이고 살풍에 날리며
죽음의 나락으로 굴러갈수록
더 뜨겁게 나를 품에 안아주고
나의 숨결소리를 지켜
잠 못들던 그 마음들

꺼져가던 민족의 가슴에
피끓는 영생의 숨결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실수록
더더욱 간절히 그분들이 그리워
이끼푸른 숲을 안고
내 불을 비비노니

얼음속에
불길속에
폭풍속에 뿌리 내린 그 사랑만이
내가 자라고 인민이 자라고
대대손손 후대들이 안겨자라나는
우리의 요람이고 행복의 고향임을
가슴에 새겨주는 백두의 밀림이여

아버지와 어머니라 불려도
형과 누이라 불려도
그 정과 진실을 다 부를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그 품 꿈결에도 못잊어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
천리밖에 있어도 만리밖에 있어도
넋과 심장을 여기에 두고
태양의 아들딸로 삶을 누리거니

오, 백두밀림 백두밀림이여
가혹한 시련의 눈보라와 폭풍속에
뿌리 깊이 내린 그사랑으로
이 땅을 안아키우는 행복의 요람이여
너는 끝없는 세월을
끝없는 자애로 꽃피우는
우리의 영원한 혁명의 품이여라

영원한 불길

백두밀영—

사령부귀틀집의 수수한 난로 하나
우리 당의 기틀을 마련하시며
잠 못이루시던 장군님의 사색안고
불길이 불길이 타오르더니

지금은 뽕얀 재와 몇개의 숯덩이뿐
그 밤의 불길은 어디로 갔는가
이 땅의 어둠을 다 태우고
이 땅의 얼음을 다 녹이고
불길이 간곳은 그 어디?
그 어디?

깊어지는 생각이여
뜨거워지는 마음
내 조용히 가슴우에 손을 얹으니

문득 손끝에 닿는 당원증
가슴은 마냥 뜨거워 뜨거워

아, 그 밤에 타오르던
백두밀영 사령부의 불길
이 순간도 활활 타오르고있구나
나의 당원증의 불타는 빛발이 되어
우리 혁명의 붉은 기치가 되어
무궁한 미래의 광명이 되어

타오르고있구나
내 가슴속에
수백만 우리 당원들의 가슴속에
수천만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만대를 이어나갈 후대들의 심장속에

한자루의 붓

-삼지연혁명사적관에서-

여기
성스러운 혁명의 성지에
소중히 놓여있는 한자루의 붓
항일의 그날 김정숙어머님
품속에 고이 간직하신 붓

오매에도 그리시던
조국땅에 오신 그날
뜨거운 감격이 넘치는 가슴에
숫구쳐오르는 분노를 안으시고
청봉의 분비나무앞에 서신 어머니

붓끝을 고무어
한자 또 한자
원췌의 가슴팍에 총창을 박으시듯

그 검은 심장에 총탄을 안기시듯
혁명의 글발을 새기셨거니

아, 총과 함께
혁명의 필봉을 억세게 잡으시고
영원히 30 년대 그날의 좌지에
오늘도 변함없이 서계시는
아, 김정숙어머님

나는 보노라
여기 한자루의 붓을
어머님께서 잡으셨던 또 한자루의 총으로
지금도 우리앞에서
제국주의 숨통에 죽음을 주시는
어머님의 총성을 나는 듣노라

한줌의 흙을 받아안으며

백두산이 굽어보는 삼지연 못가에
조국으로 진군한 투사들의 군상
유격대원들은 오늘도 손에 들고있어라
그날의 흙
한줌의 흙을

구수한 흙냄새는
못잇을 추억인가
실버들 드리운 고향의 시내가
어릴적 풀피리소리도 들어보며
한줌의 그 흙에 불을 비비고

종달새 춤추는 푸른 들
기름진 땅에 씨를 뿌리며
흙에 겨워 부르는 나의 풍년노래도
정답게 들어보며
감격에 눈물짓고...

그것없인 살수 없어
그것을 찾으며
그래서 두손에 저 흙을 싸들고
장군님따라 혈전의 천만리
광복의 한길을 헤쳐온 투사들

한줌의 저 흙이
이 땅우에
백화만발한 대지로 펼쳐지고
행복이 무르녹는 락원으로 솟았건만

아, 오늘도 투사들은
예나 다름없이
여기 삼지연 조국의 기슭에서
그날의 한줌 흙 소중히 안고
이 땅의 귀중함을 깨우쳐주나니

내 오늘 받아안노라
투사들앞에서
조국의 흙
한줌의 흙을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은
밝고 살 흙이 아니라
한생 내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넋이고 심장이고
삶의 전부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느끼며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이제는 이제는

주 체

케이. 까뿌르

주체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주체는 언제나 새 생활 창조에 우리를 이끌어
주나니
주체의 찬란한 빛발아래
동방의 조선은 앞으로만 달리고있어라

조선은
문화의 요람 20세기문명의 발원지
빛을 잃었던 조선은 다시 일떠섰어라
동방의 조선은 붉게 타올라라
내 평생 온갖 책 수없이 보았어도
그처럼 붉은 빛을 못보았노라 그 어디에서도

주체사상은 가르쳐주었어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라고
주체의 빛발 찬란하여
캄캄한 암흑시대 물러가고
새시대 자주시대 펼쳐졌나니
대지위에 주체의 태양솟아

새 전환의 력사 마련되었어라

산봉우리마다에
깊은 골짜기들에
장엄한 폭포수에
반짝이는 강물위에
세계도처에
주체의 찬란한 빛발 비쳐가나니
주체사상은 조선에 태어나
인민을 승리로 이끄러라

주체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주체는 언제나 새 생활 창조에 우리를
이끌어주나니
주체의 찬란한 빛발아래
동방의 조선은 앞으로만 달리고있어라

(필자, 전 인디아무역전람회 기사)

고 향 길

김 선

차창밖으로 스쳐지나는
도로표식판의 글자
손저어 나를 부르는듯
회령 30키로...
회령 28키로...

어머님 다녀가신
고무산을 떠나
어머님 못가보신 고향땅
회령으로 가는 길

차창안으로
싱그러운 꽃향기 스며들고
내가의 여울물소리 정겨워
이 가슴 설레여라

무산령 내려
시간을 보니
고무산에서 회령까지
승용차로는 한시간 길—

아, 그 한시간 길을 남겨두신채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고향땅
못밟으시고
해방된 조국에 봄을 꽃피우시려
되돌아 서신 길
한생을 못찾으시고 우리결을 떠나시였구나

우리 순간을 찾아도
한생을 총화하게 되는 길
그 길 다시 돌아올 때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 임무 더 깊이 자각하게 되는 길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고고성 터치며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첫 얼굴 익힌
그리운 고향이 있어도

아, 우리 먼저 찾아야 할 고향길은
만경대 갈림길과 함께
회령으로 가는 길이어라

충성의 노래

권용일

내 오늘은 어렴풋이
심장속에 깨우쳤노라
충성이란
그 참뜻이 무엇인가를

날이 갈수록
어느때나 쉽게 외울수 없고
때없이 가벼이 입가에 올릴수 없는
충성이란
그 참뜻이 무엇을 말하는것인가를
—충성을 다하리라!

애젊은 시절에
돌격대 기발밑에 다진 그 맹세
열정의 불이 되어
밤하늘에 우등불을 태우며
산발을 꿰질러 언제를 쌓았고

사품치는 물속에 뛰어들어
만년대계의 기둥을 세우던
자랑높은 위훈의 그 나날이 있어도
땃땃이 말할수 없구나
그 맹세 다했다고...

세월이 갈수록
몇번이고 되새기며
때로는 한밤중에도
스스로 나에게 묻는 말
충성이란 무엇인가

오, 충성이란
재가루 날리는 폐허우에
락원을 일떠세우던
창조의 구슬땀인가

높은 연탁우에서
엄숙한 대회장에서
힘있게 틀어잡았던
맹세의 그 역센 주먹이던가

걸어온 나날
인생의 길우에 새겨온 자욱
량심의 자욱을 더듬으며
내 조용히 생각할 때면

삶을 꽃피워준
어머니당앞에
그 은정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
아직도 그 첫 기슭에 서있나니

어제와 오늘이 하나로 이어진
삶의 이 길에서
그 참뜻을 다해가며
가닿을 기슭은 어디메나

충성!
삶의 한순간에도 다할수 있고
백년을 살아가며 말은 해도
못할수 있는것

한번 맹세 다지면
불비와 폭풍속에도
목숨바쳐 지켜야
삶은 영원한것

오, 충성이란
베풀어준 은덕에 보답해가는
전사의 의리
정신도 육체도 미래도
당의 품에 송두리채 말기는 그것

하늘땅이 무너진대도
억년 드놀지 않는 백두의 뿌리처럼
당을 따르며 받드는 한마음
죽어서도 변치않는
일편단심

순간의 공백도 없이
투쟁으로 시작되고
위훈으로 한목숨 다해가는
삶의 전부
대를 이어 그 혈통 이어주는것

가리라!
인간의 참된 삶의 거울처럼
충성—이 참뜻에 마음을 비쳐보며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위대한 당을 받드는 한길에서
내 한생을 빛내이리라!

영광의 기대는 빛난다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찾아서-

윤승흠

해와 별이 빛나는 이 강산에 그 어디에 가도 우리 당에 대한 불멸의 이야기 없으랴만 여기 수도의 한 평범한 기계공장에도 향도의 해발이 비껴여 오늘은 그 이름이 우리 당의 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평양방직기계공장!

정다운 구내길을 마음속 깊이 더듬어보면 우리의 눈앞에는 영광의 기대—26 호선반이 소중히 떠오른다.

기계공장이면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크지 않은 기계이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숭고한 우리 당의 뜻이 깃들어있는가.

그 한대의 기대에서 타오른 한점의 불꽃이 오늘은 《26 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의 불길이 되어 온 나라에 타번지고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당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불멸의 공적을 두고 크나큰 긍지와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력사와 인류 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영광의 기대—26 호선반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하여 평양방직기계공장을 다시 찾았다.

하늘은 맑았고 초겨울의 대기를 가르며 차는 가볍게 달렸다.

청년거리에 줄지어 늘어선 소담한 가로수들은 백두산의 흰눈이 내려앉은듯 은백색으로 빛났고 대동강기슭의 버드나무와 황철나무들은 천지의 물안개가 그대로 서리꽃이 되어 피어난듯 은실금실을 실실이 드리웠다.

깨끗하고 청신한 서리꽃은 우리의 마음을 환희로 부풀어오르게 했다.

아름지는 해빛이 서리꽃에 부딪쳐 발산하는 그 신비롭고 우아한 광채는 우리의 가슴속에 비쳐드는듯 그지없이 상쾌하고 시원하였다.

공장정문에 차를 세워놓은 우리는 마중나온 혁명사적관 관장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사적비의 헌시를 읽어본 다음 총서관과 6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있는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았다.

강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장을 찾아주셨던 그 감격의 나날들에 대하여 격동된 어조로 해설하면서 사적물들과 사진 및 신문자료들을 따라가며 해빛넘치는 일터에 수놓아진 사랑의 자욱들을 펼쳐보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작업복을 입으시고 기대앞에 서계시는 력사적인 화폭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한없이 소박하시고 겸허하신 그 품모에 경건한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우리와 함께 사적관을 참관하고있던 10 월 5 일 전기공장 로동자들도 손수 기대를 잡으시고 부속품을 짚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러러 붉은 수첩에 무엇인가 또박또박 적어넣고 있었다.

강사는 유리함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토시류와 붓수류 등 여러가지 기계부속품들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을 계속하였다.

《여기에 진열되어있는 부속품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짚으신 제품들입니다.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부속품을 보시면 수령님께서 기뻐하실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짚으신 제품을 위대한 수령님께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정밀하게 가공된 은빛제품들을 감명깊게 돌아보고 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95 씨빠앞으로 다가갔다.

여기서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95 씨빠공의 작업모습을 보여주시다 그에게 기름구멍이 전부 몇개인가고 물으시였다.

씨빠공은 자기가 알고있는대로 기름구멍이 몇개라고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개의 기름구멍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씨빠의 한부분을 가리키시였다.

씨빠공은 거기엔 기름구멍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서 자꾸 열이 생겨 기대에 무리가 간다고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것보라고 하시면서 축이 돌아가는곳에는 기름구멍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말라버린 땀기침을 벗겨내시

고 쌓이고 덧쌓인 기름때를 닦아내시었다.

아니나 다름가 거기에는 오래동안 메워져있던 기름구멍이 있었다.

기대공은 경탄과 환희가 어린 시선으로 그이를 우러렸다.

우리는 그날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95호씨빠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적관에는 또한 뜻깊은 구라인다도 놓여있었다.

대학생들과 함께 룡성도로확장공사장장에서 일하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고장난 불도젤을 수리하시면서 몸소 연마작업을 하시었다.

연마기 역시 어느 공장에서도나 볼수있는 평범한 기계였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따사롭게 비껴있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그려잡았다.

귀기울이면 불꽃을 날리며 돌아가는 연마기의 동음이 금시 들려오는것 같았고 바닥에는 은싸라기처럼 반짝이는 쇠가루가 점점이 흩어져있는것 같았다.

사적관에 나붙은 수많은 사진자료들중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당시 이 공장으로동자들이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쟁취하였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념으로 직접 찍어주신 영광의 사진이였다.

유리함속의 붉은 비단천우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이 깃든 손퐁금도 놓여있었다.

가슴에 안으면 안을수록, 심장에 새기면 새길수록 경건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어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26호선반앞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26호선반!

얼마나 보고싶던 선반인가.

노래로 불리워지고 시로 읊어지면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26호선반!

강사도 그날의 감격에 목이 메여선지 젖은 목소리로 해설을 이어나갔다.

우리의 마음도 어느덧 력사의 그날을 더듬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러날동안 26호선반을 돌리시면서 부족품을 하나 깎아도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질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기대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 차려놓은 모든 기계설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전을 아껴가며 마련해놓은 귀중한 재부이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큰 밑천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일깨워주시면서 몸소 기대관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아침이면 기대공보다 먼저 작업장에 나오시여 팔소매를 걷어올리시고 기름걸레로 선반을 깨끗이 닦으시였고 흩어진 쇠밥들을 쓸어모으시였으며 손수 주유통을 드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그 사랑의 손길!

기대공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에 정통하여야 하며 웬만한 고장은 자체로 퇴치할수 있는 방도까지 가르쳐주신 그 은정!

그 사랑, 그 은정의 손길아래 공장의 모든 기계설비들이 짧은 시일내에 원상복구되어 《청춘기대》로 되었으며 생산에서 큰 은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공장에 여러날동안 나와 계시면서 생산과 지도문제, 기술혁신과 자재절약문제, 로동안전과 생산문화 확립문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과 협동생산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우리와 동행하던 공장의 한 책임일군은 그때를 감회깊게 회상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 로동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을 거울로 삼아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그리하여 3대혁명붉은기공장칭호를 쟁취한데 뒤이어 26호모범기대공칭호를 또 쟁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현실로 생동하게 직접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공구직장에 먼저 나가보았다.

공구직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공장에 나와 계시실 때 2중 26호모범기대칭호를 쟁취한 선반공 림춘실동무라고 소개하여주었다.

가까이 보니 면판이며, 빈속함, 심압대, 주축과 이송손잡이 등 모든것이 거울같이 알뜰거렸다.

기대에 비낀 맑은 미소!

얼마나 많은것을 속삭여주는가.

거울에 비낀 모습이라면 우리의 마음 이다지도 뜨겁지 못하리라.

기대에 수놓아가는 정성이 모자란것만 같아 고개를 들면 제 모습이 흐려보인다는 처녀.

그는 말하였다.

《제 기대에 놓인 바로 이자리가 26호선반이 놓여있던 영광의 자리입니다. 저는 기대앞에 나설 때마다 온 나라의 눈빛들이 저를 바라보는것만 같아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군합니다.

저는 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기대에 비낀 제 모습을 바라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애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 마음을 가슴해보군한답니다.》

그의 마음인양 그가 깎아놓은 각종 볼트와 나트, 워축 등 모든 제품들이 구슬알처럼 반짝거렸다.

실로 한번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신바람나게 일해보고싶은곳이었다.

그만이 아니었다.

82 호후라이스공 홍수화 동무와 불반공 박기석 동무도 2 중모범기대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리고 직장 전원이 26 호모범기대칭호를 쟁취하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애에서 26 호선반을 돌리실 때 리용하시던 직장 휴계실과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수도, 한그루 나무가 서있는 쉼터와 사진터 그리고 꽃밭 등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비낀 로정을 따라 차례차례로 돌아보았다.

결음걸음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새겨져있었고 생각이 깊어졌다.

모든것이 정답고 뜻이 깊어보였다.

여기서는 창문으로 흘러드는 한줄기의 맑은 햇빛과 기대우에 놓인 한장의 작업지령서까지도 무심히 보게 되지 않았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공구직장을 떠나 구내길에 나섰다.

우리가 가공직장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꺾어 도는데 한사람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마주 걸어도는것이 보였다.

얼핏 보매 낯이 익어보였다.

알고보니 평양승강기공장 소재직장 선반공 김창환동무였다.

언제인가 우리는 그가 낡은기대를 원상복구하여 승강기공장에서 처음으로 26 호모범기대칭호를 쟁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실화를 써서 잡지에 발표한바 있었다.

실화의 주인공을 만난 기쁨을 안고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이 공장에 오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오늘 공장설비점검에서 제 기대가 또 합격을 받았습시다. 물론 기뻐습시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은 개우치 않았습시다.

설비점검때마다 매번 합격을 받고 만족해있는것이 어쩐지 더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한자리에 앉아몽개는것 같더군요.

<26 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이 기대나 원상복구하고 생산이나 더 내자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26 호선반앞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질가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감동에 젖은 눈길로 그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모범기대칭호를 쟁취한 그날에도 그는 그 기쁨을 안고 26 호선반앞으로 달려왔고 이처럼 요구성을 더 높여 새로운 결의를 다질때에도 영광의 기대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본다는것이였다.

문득 우리는 신의주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한다는 한 노동자가 보내온 편지를 상기하였다.

그는 편지에서 비록 자기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한 기계공장에서 일하고있지만 마음은 항상 영광의 기대—26 호선반앞에 서있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26 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자상히 써보냈었다.

우리는 26 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온 나라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을 다시한번 가슴뿌듯이 느껴보며 김동무와 헤어져 가공직장으로 들어갔다.

가공직장에서도 공구직장에서처럼 첫눈에 띄우는것은 기대마다에서 별처럼 빛나고있는 《모범기대》 휘장이였다.

《모범기대》휘장은 조립직장의 기대마다에서도 빛났고 공무동력직장에서도 빛났다.

아니 그것은 사적관에서 만났던 10 월 5 일전기 공장노동자들의 마음속에도 구내길에서 만났던 평양승강기공장과 그리고 편지를 통해 사귀 지방의 한 기계공장노동자들의 가슴속에도 빛나고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모범기대》 휘장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그려져있고 그우에 우리 당의 마크가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리고 휘장중심부에는 꽃송이로 둘러싸인 26 호선반이 새겨져있었고 그밑에 《26 호》라는 수자가 두드러져보였다.

《모범기대》휘장만 바라보아도 《26 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이 얼마나 영예롭고 보람찬것인가를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그렇다. 이 운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애에서 비롯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이어 길이 빛내이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으려는 그 철석같은 신념을 심장깊이 아로새기는 충성의 진군운동이다.

우리는 후더워오르는 격정을 조용히 달래이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공장정문으로는 평양강철공장노동자들과 여러 공장노동자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그 뒤로는 경공업대학 학생들과 장충남자고등학교 나어린 학

생들의 모습들도 보였다.

향도의 해발을 따라 끝없이 물결쳐오는 저 충성의 대오들...

남포감문 건설자들과 안주의 탄부들, 김철의 용해공들...

당의 결정관철에서 무비의 영웅적기상을 펼치는 《80 년대속도》 창조자들이 당을 받들어 충성 다할것을 결의 다지며 사적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여기 방직기계공장 구내길에 서있었지만 당중앙을 따르고 높이 모시려는 온 나라의 마

음을 다 읽을수 있었고 당의 결정지시 관철에서 친위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쳐가는 온 나라의 모습을 다 볼수있었다.

기대관리의 새 역사를 펼쳐준 영광의 기대—26 호선반!

지금 온 나라는 《26 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리며 이 해의 마지막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섰거니.

26 호영광의 기대여! 길이 빛나라!

항일의 첫 녀성록전병

림공식

바라보면

바람세찬

아득한 창공

해빛타고 내리시나

구름타고 내리시나

조종줄 당기시며

락하산 내리시는

아, 슬기로운 녀전사

내리시네

반기여 들꽃들도 꽃주단 펼치는

밀림의 등판에

내리시네

꽃피는 만강의 봄날이며

못잊을 대사하의 언덕

장군님 친위전사로 넘나드시던

압록강 푸른 물도 굽어보시며

타오르는 노을빛에

활짝 핀 락하산은

사령부창가에 언제나 피던

진달래 꽃송이런가

아, 시련에 찬 밀영과 준엄한 적후에서

오직 장군님만 우러러

세차게 고동치던 뜨거운 심장

이 봄날

아득한 창공에서 높이뛰나니

땅이면 지구의 끝까지도 가시고

하늘이면

우주의 한끝까지라도 오르실

우리의 어머님!

장군님 바라시는 길이라면

눈보라 만리길도 헤치시던 그 마음으로

저 험난한 하늘에도

서슴없이 날아오르신

용맹한 하늘의 녀장군

바라보면

바람세찬

아득한 창공

아, 조선의 첫 녀성록전병

김정숙어머님

높고높은 하늘가에도

위훈의 자욱

충성의 자욱을 뜨겁게 새기시네

그 봄이 귀중해

김종원

흰눈날리는 날에도
언제나 봄꽃을 품고계시네
열매익는 가을에도
진달래꽃만을 안고계시네

한떨기도 질세라
소중히 품에 안으시고
항일의 군복차림 그대로
오산덕기슭에 웃으시며 서계시는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찬바람 부는 사령부창가에
향기가득 이 꽃을 피우시던 마음
조국땅에 첫걸음 찍으신 그날
기쁨가득 이 꽃을 안으시던 마음

아, 이땅에 봄이 없던 그날
봄을 찾아 봄을 찾아
얼마나 소중히 가꾸신 꽃인가

얼마나 뜨겁게 부르신 봄인가

그래서 밀영의 긴긴밤
마음속에 부르신 노래도 봄노래인가
조국의 은하에 마음싣고 보신것도
봄꽃에 묻힌 만경대가

진정 어머님앞에
화려한 꽃길이 펼쳐져도
락원의 대통로가 펼쳐져도
한결음도 아니 걸으시고
연분홍꽃잎만 안고계시니

아,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우리모두가 안긴 이 봄
우리 행복이 함뿍 어린 꽃
그리도 기쁘시여 그리도 소중해
영원히 웃으시며 안고계시네

항일의 녀전사 — 그 이름 불러보면

리종덕

항일의 녀전사 — 그 이름 불러보면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붉은 진달래

그 이름 불러보면
사무치게 조국땅 그리시던
달밝은 밀영의 사향이 들려오고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면
사무치게 조국땅 그리시던
달밝은 밀영의 사향이 들려오고

그이름 승엄히 불러보면
장군님 높이 모신 마음속 향기였던
사령부 작식대의 참나물 향취 생각나라

그 이름은 항일의 빛나는 별!
그 이름은 장군님의 해발!
그 이름은 대사하치기의 총성!

아아! 그 이름 불러보면
총성의 온 세계로 안겨오는
김정숙어머님의 밝으신 영상이여!

년

김유권

대동강반은 가을빛이 완연하였다.

유보도를 따라 금잔디위에 떨기떨기 피어난 애
기국화가 생긴한 미소를 우리에게 던지고있었다.

풍만한 가을을 무르익히는 한낮의 해별, 해별
이 쏟아져내리는 높은 하늘, 그 진한 빛을 담아
더욱 푸르려진 수면을 스치며 잔물살을 일으키는
서늘한 바람... 해마다 이맘때면 맛보게 되는 가
을경치이고 이미 친숙해질대로 친숙해진 기습이
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낮익은 풍경이 새로운 의
미를 띠고 안겨오는것은 무슨 까닭일까? ... 작가
권정웅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자별하였다.

가을빛에 젖은 양각도를 꺾어 대동강철교를 구
르며 달려가는 렬차의 연연한 기적소리도 그저
무심히 들리지 않는다. 그 긴 여운은 마치도 랑
림산맥의 아아한 련봉들을 울리던 그날의 기적소
리를 불러오는듯했다. 은구슬을 머금고 철쭉에
피어난 한떨기의 백일홍, 60 년대의 우리 문학의
화원속에 웃고있는 친근한 너주인공 금녀의 소박
한 자태가 눈앞에 어려오는듯했다.

그런가 하면 문학교과서를 펼치고 유보도를 걸
어 오는 대학생처녀의 숙연한 얼굴에서도 우리는
단편소설 《력사의 자취》의 장엄한 새벽장면에서
환기된 감동을 읽는듯싶다.

작가를 만나러 가는 우리의 걸음은 절로 다급
해진다.

대동강가에 자리잡은 5 층건물의 창문들에 해빛
이 부서내린다.

4.15 문학창작단 창작실이 있는 건물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교시하시였다.

**《4.15 문학창작단은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
하는 충성의 대오답게 소문없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사랑
속에서 창작생활을 하는 행복찬 작가들의 창작실
이다. 창작실구내에 들어서서는 우리의 마음은 어
느덧 승엄해졌다.

우리는 4 층복도에 이르렀다.

팽배한 긴장이 느껴지는 정적이 흐른다.

귀기울이면 원고지를 넘기는 소리와 그우를 미
끄러지듯 달리는 펜대와 연필의 사각거리는 소리,
로작가들의 묵중한 발자국소리가 들릴듯싶다.

이 순간에 백두의 눈보라에 강대터지는 소리,

백병전의 날창들이 부딪는 아츠러운 소리가 생겨
난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작전도에 그으신 붉은
화살표를 따라 락동강을 도하하는 때목우에서
울리는 지휘관의 목갈린 구령소리도 터져나온다.

그 장면을 눈앞에 그리는 젊은 작가들의 열띤
숨소리도 들리는듯하다.

우리는 창작실에서 작가 권정웅을 만났다.

60 고개에 올라선 듅직한 체구에 온화한 미소
가 인상적인데 그와 대조를 이루듯 눈길은 빠르
고 날카로웠다.

그는 활기있게 우리를 맞았다. 손은 두툼하고
장편소설 《1932 년》을 창작하던 나날에로 거슬러
올라갔다.

어느덧 그의 쪼프린 두눈에는 회억의 빛이 질
게 어리기 시작하였다.

...1969 년 4 월, 작가 권정웅은 장편소설 《193
2 년》을 구상하면서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차로
해산행렬차에 올랐다.

질어가는 봄날의 황혼이 차창에 비껴왔다.

유년시절의 구슬픈 자옥이 찍혀있고 오늘은 행
복이 웃음짓는 작가의 고향인 평양을 떠난 렬차
가 가파른 양덕고개를 넘어 고원역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불빛이 환한 차창밖을 내다보는 작가는 이미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다시 더듬는 기분이였
다.

고원탄광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질통
을 지고 고역을 치르다가 스무살 나던 해에 해방
을 맞은곳이었다.

해방전의 추억을 더듬노라니 어깨팍에 삼바오
리처럼 감겼던 멜빵자리가 다시금 죄여드는듯했
다.

그는 열여덟살의 기분에 간데라불밑에서 끄적
거렸던 두툼한 소설원고가 묻힌 버럭산을 찾기라
도하듯 어두운 차창밖을 오래도록 내다보았다.
그 2,000 매가 넘는 장편소설 《탄광사람들》에는
탄부들의 뼈아픈 한숨도 있고 스러진 꽃과 같은
련에도 있었으며 로동쟁의도 담겨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자기의 작가적활동이나 문학
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그런 포부가
있었다고 해도 어차피 속절없이 스러지고말았을
그런 세상이였었다.

평화적건설의 노래소리... 전쟁의 검붉은 포
연...

《…렐차가 단천역을 지나서니 자연 검덕광산이 생각나더군요. 전후에 내가 결정적으로 문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진출한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대군이 있고 생활이 짧은 검덕광산에 몸을 잠그고 일하면서 창작을 시작하였습시다.

1954년 지방신문에 발표된 단편소설<7급공 최아바이>가 나의 첫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후 나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배려로 전문교육을 받고 마음껏 문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편소설<백일홍>을 써서 4 차당대회에 드리게 된것도 이곳 단천과 검덕사이를 자주 오가던 체험이 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길동무들과 함께 자칭<직의선로감시원>노릇도 해보았지요. 만포선의 선로감시원이야기를 접하자마자 소설의 금녀가 태어난것이 바로 그때 문인것 같습니다…》

밤은 깊어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가던 도시와 마을의 밝은 불빛들도 꺼져가고 신호주의 푸른 불빛만이 동안뜨게 지나갔다.

그러나 작가는 잠들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창작생활의 첫걸음을 댄 보람찬 나날들에 대한 추억과 이름없는 문학청년을 영예로운 4.15 문학창작단의 작가로 키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에 목메이는 밤이었다.

새날이 밝아왔다. 혁명전적지는 점점 눈앞에 가까와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의 밝은 앞길을 펼쳐주시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자체가 만대에 빛날 불멸의 서사시였기에 총서작품들의 성공은 집필전에 이미 담보된 것이었다.

그러기에 장편소설에 대한 수련이라고는 평양신문에 련재된 혁명전통주제의 장편소설《준엄한길》창작경험밖에 없는 작가였지만 신심을 가지고 답사의 첫걸음을 댈수 있었다.

그는 목적인 배낭을 메고 청봉의 밀림과 진달래 핀 삼지연꽃가, 백두산정의 부석길을 걸었다.

그것은 항일전의 그 나날에도 열려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나아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심장으로 통한 작가의 행군길이였다.

작가는 한걸음한걸음 그 세계에 들어섰다.

문득 세월의 안개발이 설피여지며 항일의 군모를 쓰신 장군님의 영상이 눈부신 광채에 싸여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작가의 눈에는 경모와 찬란의 눈물이 흘렀다.

순간 터질듯이 높뛰는 심장의 고동, 그 환희의 메아리가 장군님을 옹위하던 친위전사들의 심장박동과 하나로 어울려드는것을 그는 기쁨속에

자감했다.

1932년 불멸의 나날들이 하나하나 가슴속에서 체현되어갔다. 그는 소사하 토기점골의 외나무다리와 귀틀집의 기울어진 구새굴뚝까지 푹푹히 보이는듯했다.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작가의 탐구는 계속되었다.

백두산정을 스치는 진풍속에서 곳곳이 자라오른 이빨나무의 우듬지를 바라보며 작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 나무가 바로 1932년에 떨어진 씨앗에서 자라오른 나무는 아닌가. 준엄한 그 겨울에 한돌기의 년륜을, 한점에 불과하나 이 나무의 생장을 위해서는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첫 년륜을 둘러 감은 나무는 아닌가!

년륜, 년륜!…

작가는 오래동안 그자리에서 움직일줄을 몰랐다. 푸르허로부터 안도를 거쳐, 왕청, 요영구에 잇닿은 위대한 장군님의 연연 수천리의 로정, 1932년의 의미가 선명하게 작가의 뇌리를 친것이였다.

그의 머리속에서 원고지의 첫장이 번져졌다.

《총소리가 울렸다…》

집필은 시작되었다.

펜은 줄기차게 달렸다.

이따금 숨을 돌리며 원고지매수를 세어보면 30매정도 나갔으리라고 보았던것이 50매, 60매를 넘군하였다. 밤이면 래일 오전에 집필할 부분을 머리속에 그려보면서 그 화폭이 선명해질 때 비로소 안정을 느끼군하였다.

작가는 주정토로의 개입과 주관을 애써 피하면서 생활을 질게 그리려고 하였다. 문학작품의 무게가 묘사에 있고 아무리 작은 세부도 큰 사상으로 확대할수 있는것이 묘사라는 이전의 경험도 경험이며니와 1932년의 나날들과 그 모든 전경이 강렬한 상상의 각광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던것이다.

어느덧 소설의 마감 14장도 거의 끝나가고 3,700매의 계산에 이르렀다.

달아오른 펜은 형상의 초점을 향하여 거침없이 돌진하였다.

《…나무는 엄혹한 그속에서 거목을 이룰 한돌기의 년륜을 마련하고있다. 그렇다! 년륜은 바로 조국과 혁명과 그리고 이 나무에 그리고 또 모든 것에 한돌기의 굵직한 선을 둘러감으면서 흘러가고있다…》

1971년 8월 31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1932년》의 심의본을 한장한장 보아주시고 작품의 사상적대가 서고 형상수준이 높으며 생활들이 진실한데 대하여, 감동도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특히 소사하집장면을 잘 그린

작가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의 수정 완성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이 작품을 보시면 기뻐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은정속에서 장편소설 《1932년》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로서 처음으로 창작완성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수령님께 올릴수 있었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1932년》을 아주 잘 썼다고 거듭 치하하여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소사하집장면같은것을 사실 그대로 잘 그릴수 있는것은 작가들이 비록 그때의 현실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에 감동되어 형상적 환상을 펼치고 현실을 그렸기때문이라고 지적하시었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아래 혁명문학을 하는 작가들의 행복을 몇마디 말로써는 완전하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겠는가 하는 그 한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새로운 총서작품을 구상하고있는 창작실을 새삼스럽게 눈여겨보았다.

창작실에서는 눈을 끄는 커다란 가구나 서가같은것을 찾아볼수 없으며 지어 책상우에서조차 참고서적들이나 자료묶음집 같은것을 볼수가 없었다. 품을 넣어 다스린듯싶은 끝이 뾰족한 풀빛연필이 한장의 흰종이우에 땡그렇게 놓여있을뿐이었다. 그 종이우에 무엇인가 몇글자 적혀있었다.

작가의 폭넓고 방대한 량의 독서와 자료연구에서 발휘한 인내성에 대하여 이미 들은적도 있거니와 더우기 새로운 총서작품의 구상이 무르익어 간다는것으로 알고있는 우리로서는 약간의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었다.

《장편소설의 구상이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하고 작가는 말을 이었다.

《이번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에서 또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된 1945년을 그리게 될것입니다.》

작가의 책상우에서 두툼한 자료철이나 장편소설의 구성안같은것을 찾으려는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것을 우리는 점차 깨달았다. 만일 그런것이 아직 필요하다면 구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수 없는것이였다.

얼핏 뇌리를 스치는 상념의 한토막, 금싸라락같이 미세한 하나의 회화적세부도 명확히 들여다볼줄아는 눈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그것이 형상과 언어의 정연한 흐름으로 바뀔 때에야 비로서 구

상을 끝냈다고 말하는 작가였다. 거창한 화폭은 지금 머리속에 정연한 체계로 배열되어 형상을 요구하고있었다.

《아직은 무엇인가 미흡한것같아서 펜을 들고가 주저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더큰 기쁨을 드릴 작품을 구상하는데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는가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묻게 되는군요.》

작가는 오래도록 말을 잊지 못했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갔다. 우리는 작가와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정웅선생은 단편소설<7 급공최아바이>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에 바쳐진 단편소설을 써서 우리 동자들과 친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단편소설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모두 자기나름의 얼굴에 각이한 년대를 체현하고있으면서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찬양하고싶었습니다.

수천척지하막장이나 외진 산골, 큰 공장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곳에서 묵묵히 당을 받들어가는 그런 미더운 인간들, 무명의 영웅들을 내세우려고 하였습시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 오늘엔 그런 숨은 영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천수만을 헤아린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작가의 눈빛은 현실공정의 정열로 불붙고있었다.

《또한 우리 문학이 인간들을 승화시키려면 커다란 위훈과 결부된 사건이나 현실에 혼란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명백하고 잘 알려진것보다도 평범한것, 잘 보이지 않는곳에 잠재해있는것으로서 문학적해명을 요구하는것에 작가들이 이목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반영하며 형상으로 해결하는데 작가적 사명의 하나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도는 작품의 류사성을 피해서 하고 생활이 무리없이 론리대로 흐르게 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는 인간의 아름다운 세계를 인상깊게 펼쳐보이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권정웅선생의 단편소설<전원에서>나 <백일홍>, <세대앞에서>, <력사의 자취>들이 다 그렇게 씌여진것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북부철길건설회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돌격대원의 생활을 취급한 단편소설을 하나 써보고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현실주제작품의 주인공들을 그런 방향에서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현실주체의 장편소설<시대의 숨결>이 탈고되어 인쇄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일군을 주인공으로 한 그 소설이 독자들의 손에 가닿을 날도 멀지 않았을테니 기쁘겠습니다.》

《그저 숨죽이고 반향을 기다리게 됩니다.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나에게 불안한 때가 없습니다. 독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니까요. 아무쪼록 나의 글줄들에 새로운 젊음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제일 기쁜것은 어느때입니까?》

《아마 초고의 마감장을 넘겼을 때입니다. 링마루에 올라서서 무거운 짐을 부려놓았을 때의 그런 감정이지요. 그러니 기쁘기보다 차라리 후련하다고 표현하는것이 적중할것입니다.》

《그래도 기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우리는 지긋게 물었다.

《굳이 짝어 말한다면 기쁜 때는 창작의 순간입니다. 초고쓸 때는 자기 창조물이 모두 걸작같아보인답니다.》

《작가로서의 최대의 고통은 어떤것이라고 보니까? 어떤 때 느끼게 됩니까?》

《생활적진실과 작가의 허구와의 차이점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무서운 고통의 순간이지요.》

벌써 퇴근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작가와 함께 퇴근길에 올라 대동강유보도를 걸었다.

대동강기슭은 석양빛에 물들었다.

불길처럼 선명하게 타오르던 평양단풍나무가지는 엷어지는 락조의 후광속에 서서히 잠겨들며 하나둘 빛을 잃었다.

버드나무밑의 포근한 잔디위에 화판을 놓고 옥류교를 그려던 열두어살 난 꼬마화가는 붓을 멈추고 그만 울상을 지었다.

《나는 저 나이에 버력사밑에서<탄광놀이>을 했습니다.》하고 작가는 꼬마미술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손 자라는것 굴을 파고 수수깡으로 동발을 들이었습니다. 고무신짜으로 흙을 실어내다가 굴이 무너지면 사람이 묻혔다고 제법 우는소리를 냈지요. 그런 놀음을 한다고 탄부이던 나의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참, 권정웅선생의 고향이 평양이라고 했지요.》

《저 강건너 정백동 어느바루라고 알고있습니 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지계우에 올라앉아 대동강주변의 탄광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말끝은 침통하게 흐려졌다.

우리는 단편소설《옥류교》나《버력산》의 한대목을 보는 심정이었다.

예술적환상은 작가의 내적상태에 의해서 마련된 나는 말도 있지만 그의 작품들에 그려진 어두운 과거생활이 작가자신의 쓰라린 체험과 그대로 잇닿아있는줄은 미처 몰랐다.

이 곧고 아름다운 유보도밑에는 수난의 날에 찍혀진 소년의 가냘픈 발자국이 묻혀있을것이다. 피기없고 절망에 찬 얼굴로 어둠속을 헤매인 자취가 묻혀있을것이다. 어지러이 방황한 어린 녀이... 그 삶의 자취가...

빛이 없던 그 세월에 그어진 인생의 년륜은 그 얼마나 섬약하고 이지러졌으랴. 겹치고 겹친 처절한 비극의 자욱으로 남아있는 삶의 년륜—그것은 정녕 불행의 원점에서 시작된 고통의 파문과도 같았으리라.

성장의 년년을 구획지어 아로새긴것이 년륜일진대 당의 빛발속에 풍만한 년륜을 새겨온 작가에게 있어서 그 이전의 수난의 시절은 사실상 공백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어둠은 각일각 짙어간다.

문득 강건너 창공에서 주체사상탑의 화불이 붉게 타오르자 강변은 삽시에 불야경을 이루었다.

옥중한 원주의 무리등이 부드러운 빛을 뿌리는 데 옥류교불빛이 대동강물결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춤을 춘다.

작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 1 월 8 일에 저의 60 돌 생일상을 차려주시였습니다.

나는 그때 어머니도 나에게 차려주지 못했던 첫돌상을 생각하였습니다. 깨끗한 눈동자에 희망이 비끼 어린 시절이 비로소 나에게 찾아온것 같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해빛속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의 첫 년륜을 새기는 기분이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갱소년한 기분으로 이 강변을 걸어 출근길에 오르군합니다.》

따사로운 향도의 해빛아래 첫돌기의 년륜을 새긴 애 어린 나무처럼 생기에 넘치고 맑은 눈동자에 두볼이 붉은 소년의 그렇듯 깨끗한 아이로 영원히 그 빛을 따르고싶은것이 작가의 마음이다....

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 새로운 장편소설 원고지의 첫장은 펼쳐졌다.

우리는 그속에서 울림 해방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우리러 터져오르는 3 천만의 환호성을 예감하며 작가 권정웅과 헤어졌다.

대동강엔 별무리가 내려앉은듯 불빛이 찬란하다.

맑은 야밤이다.

무궁한 세월과 함께

리수덕

눈이 내린다.

한해의 풍성한 분배뭇을 처마가 들리우게 쌓아놓은 농장마을의 프락마다에 행복의 웃음꽃 피어나는 불밝은 창가마다에 만풍년의 기쁨을 속삭이는 듯 함박눈 송이송이 내리여내려 쌓인다.

어찌보면 흰쌀가루만 갈아 한웅큼 쥐여보고싶기도 한 흰눈...

해마다 뜻깊은 풍년분배날이 오면 사람들은 의례히 넘치는 환희와 기쁨에 대해 즐거운 이야기로 잠 못드는 것이지만 나는 해를 따라 커만가는 행복으로 하여 뜨거워지는 마음안고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송이와 함께 이 저녁을 보낸다.

송이송이 내리는 저 흰눈우에 이 마음을 실으면 한 녀성항일혁명투사가 들려준 못잇을 감명깊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1935년 겨울, 눈서리 꽃핀 내도산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당시 항일유격대원들은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멀건 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 간고한 싸움의 나날을 이어가고있었다.

그런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런 죽마저 다른 대원들에게 다 넘겨주시고 자신께서는 끼식을 번지시는 때가 많으시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숙 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다.

어려운 싸움의 나날속에서도 녀사의 탄생일을 잊지 않은 녀전사들은 자주 끼니를 건느시는 김정숙 어머니에게 생신날에나마 더운 밥을 한끼라도 대접해드리려는 콩과 감자를 둔 보리밥을 지어드렸다. 그렇지만 녀사께서는 그 밥을 끝내 들지 않으시고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제 나라를 해방하고 조국에 돌아가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한번 킷 킷 먹어보지요.》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 후덥게 하는 말씀인가! 혁명전우들을 위해서라면, 인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천신만고도 달게 여기시고 자신께 차례진 지성은 동지를 위해 미루어주시는 김정숙 어머니의 한없이 고매하신 그 사랑!

참으로 그것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는 아버지수령

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그 사랑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했고 동지들을 사랑했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김정숙 어머니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던 그 나날뿐아니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이후에도 한결같이 인민에게 겸손하시고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남기시었다.

해방후 어느날이었다.

항일의 나날 김정숙 어머니를 몸가까이 모시고 생활한적이 있는 한 녀성혁명투사는 아버지수령님의 저택을 찾아갔다가 너무나도 겸소한 식사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그 항일혁명투사는 이젠 나라를 해방하고 조국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식사를 차리시는가고 물은 일이 있었다. 그때 녀사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나라를 해방되었어도 인민들은 아직 넉넉히 살지 못해요. 인민들이 조밥을 먹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흰쌀밥을 먹겠나요. 이제 앞으로 인민들의 살림살이도 펴이고 나라도 통일된 다음에 흰쌀밥을 해먹지요.》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숭고하신 그 뜻에 가슴 찢어터지는 이 말씀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행복을 느끼시며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 나누시는 김정숙 어머니의 한없이 고결하신 품모가 그대로 깃들어있다.

항일혈전의 나날엔 대원들을 위해 다 바치시고 조국이 해방된 그날엔 만백성이 보다 복된 삶을 누릴 미래를 생각하시며 겸소한 생활을 꾸려가신 김정숙 어머니!

오직 인민을 위한 한길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신 김정숙동지이시였기에 건국의 넓은 길을 열어가시는 장군님을 받드시여 견고결으신 농촌의 두령길은 그 얼마이며 곡산공장과 제사공장, 머나먼 북방의 세멘트공장과 도자기공장의 구내길...

조국땅 곳곳에 찍으신 은정의 자욱은 그 얼마이
 셧던가.
 력사적인 조국개선의 그 나날 인민들이 간절한
 소원과 지성을 담아 어머님께 삼가 옷감을 드리
 었을 때에는 인민들이 무명옷을 입는데 내라고
 어떻게 비단옷을 입겠는가고 종시 사양하시며 수
 수한 무명옷을 입으신 우리의 김정숙 어머님!
 어머님께서 것처럼 겸소하게 지내시며 그토록 간
 절히 바라시던 그 숭고한 뜻이 오늘은 어버이수
 령님의 위대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
 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락원
 의 이 강산에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풍요한 협동마을마다 세세년년 만풍년의 로적가
 리 하늘높이 치솟아오르고 공장에선 비단폭포 쏜
 아져 인민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모르며
 유족한 생활을 하고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눈내리는 농장마을을 바라보노
 라니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몇시간전만 해도 버날가리를 《백두산》처럼 쌓아
 놓고 떠들썩 춤판을 벌려놓았던 결산분배장 마당
 가에 설치한 고성기에서 울리는 녀성가수의 은은

한 노래소리였다.

...

어머님이 바라시던 크나큰 념원
 사회주의 이 강산에 꽃폈습니다
 아,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천만년 무궁토록 모시웁니다

추억을 부르는듯 그리움에 젖어 울려오는 노래소
 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받아안은 행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살
 림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한평생을 오직 인
 민을 위해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영상은
 무궁한 세월과 함께 만민의 가슴속에 영원불멸하
 리라고.
 그렇다. 김정숙 어머님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
 무의 고결하신 그 품모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
 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
 민의 자랑찬 혁명의 앞길에 언제나 충성의 귀감
 으로 천만년 빛나리라!

가사 2편

회령의 백살구꽃

박창기

조선의 깨끗한 마음이런가
 백두에 내리는 눈송이런가
 회령의 살구꽃 하얗게 핀 꽃
 수령님 해빛안고 곱게도 피었네

결음마다 비치신 기쁨이런가
 혈전만리 받드신 충성이런가

수령님 위하신 오직 한길에
 송이송이 피어나던 회령의 꽃이어

어머님 그 영상 우러러선가
 한송이 꽃에도 이 맘 불타네
 수령님 받들고 가는 앞길에
 영원히 피여날 조선의 꽃이어

농장벌 꽃피워가는 소조원의 마음

박필모

찬이슬 내리는 새벽이면
 남먼저 옷자락 적서가네
 당의 뜻 받들어가는 혁명의 전위로
 온 마을 이끌어 충성의 자욱을 새기여가네

즐거운 발머리 쉴참에도

새 기술 새 지식 배워주네
 당의 뜻 받들어가는 전위의 이 마음
 만풍년 포전에 기계화 새봄을 꽃피워가네

정다운 마을과 들관마다
 생활을 노래로 곱게 하네

당의 뜻 받들어가는 보람찬 이 길에

영원한 전위로 청춘의 심장을 바쳐가리라

우리 누리는 행복을

김홍권

엄숙한 이름이 지키고있어라
성스러운 인민의 법이 보호하고있어라
첫울음 터치는
아기의 침대머리에 서있는 너의 그 기쁨을
새까만 눈동자들이 쳐다보며
한글자 한글자 따라외우는
너의 그 심중한 목소리를

엄숙한 이름이 지키고있어라
성스러운 인민의 법이 보호하고있어라
끓는 쇠물가마 들여다보며
못참아 웃고있는 너의 그 웃음을
만풍이 기뻐 웃고있는 너의 얼굴을

인민의 나라-
엄숙한 이름이 지키고있어라
성스러운 인민의 법이 보호하고있어라
너의 그 누리는 자유를
너의 그 누리는 행복을
너의 그 바치는 열렬한 사랑과
드림없는 약속을
그리고 너의 그 작은 가슴 불태우며
바라보는 그곳을

그곳을 지키고있어라
그곳을 보호하고있어라
유격근거지의 어려운 나날들을 거쳐
건설의 긴장한 밤들을 거쳐
우리 수령님 세워주신 인민의 제도
성스러운 법이

싸우며 걸어온 승리의 길을
웃으며 걸어갈 행복의 길을
사랑으로 규제한
그 법 심장을 불타게 하고
그 법 머리를 높이 들게 하고
그 법 폭풍이 되어 내달리게 하거니
우리 바라보는 하늘에 불꽃이 날리고
행복의 탑들은 끝없이 솟아올라라

집들이여 솟아오르라
웃음꽃이여 떨기지어 피여라
수수만년 우리 언제
인민 위한 법이 있어 살아왔더냐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도
어린 딸을 빼앗겨도
말 못하던 그 세월을 씻어내고
더 크게 웃으며 이 땅에 꽃을 피우자

웃으며 출석부에 금을 긋는 교단에서
뜨락뜨락대렬이 흐르는 농장벌에서
배들이 내리는 조선장
이 땅 발길이 닿는 모든곳에서
수령님 밝혀주신 인민의 법이
너와 나 우리를 보호하고있거니

우리 누리는 행복을
우리 누리는 존엄을
미래를 위해 바치자
수령님 바라시는 그날을 위해 바치자

그날의 그 발걸음으로

리동렬

빨리도 흘러가는구나
벅찬 하루하루는
8 월과 10 월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뜻깊은 이 해는

그래서 내 아직
어머니 손목 잡고 해종일
명절놀이 즐기고난 아이처럼
그렇게 들떠있는게 아닌지

그래서 내 벌써
애지중지 키워온 막내딸
잔치를 치르고난 늙은이처럼
손맥을 놓고있는게 아닌지

언제나 즐거운 저녁길
유보도를 거닐다가 불쑥
가슴에 마쳐오는 이런 생각
발걸음 휘여잡는 하나의 생각

다르지 않았던가, 변하지 않았던가
내 맞고 보낸 하루하루가
새해의 첫 아침과는
당중앙위원회의 구호를 받아안던 그날과는

말하여다오
두손에 화불을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려
지축을 구르며 달려가던
아, 8월의 그 밤, 경축의 광장이여!

아직도 12월은 앞에 있고
해야 할 일 많고많은데
내 잠시나마 순간이나마
비둘기를 키우는 재미에
공부할 생각 까맣게 잊곤하던
그 철부지시절의 아이가 된적 없었던가

오, 심장은 높이 편다

청춘의 더운 피 끓어오른다
내 흘리는 땀
바쳐가는 충성
오늘도 어제처럼 래일도 오늘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하려니

순간도 들떠살수 없어라
한시도 손맥을 놓을수 없어라
당의 부름에 발걸음 맞춰
뜻깊은 이 해를
우리 조국 역사에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궤도를 달리는 기관차처럼
질풍같이 달려나아가자
빨리도 흘러가는 이 해
어느 하루도 다름이 없이
어느 한시도 변함이 없이
오직 그날의 그 발걸음으로

당의 기수

리의석

동트는 이른아침
그는 벌써 함께 있구나
농장별 농장원들속에서
기계화의 발동소리 가늠하며...

농장원들의 웃음속에서도
언제나 먼저 들려오더라
리당비서의 호탕한 그 목소리...
흰 김 피어오르는 거름무지도
앞장서 펴가는 그 큰 발자국

그 눈길은
언제나 사색에 잠겨있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 복소리인양 울리더라
농장원들의 심장
언제나 그렇게 흔들어
온 벌에 속도전의 열풍 일더라

누구나 그앞에 서면
어머니당에 대한 신뢰의 정 넘쳐
마음속 깊은 사연의 창문도 열어놓더라

언제나 가슴속에 심어주는
어머니당의 믿음이어!

그 믿음
그 진정 있기에
리당위원회 문고리 잡아도
어머니집 문고리 잡을 때마냥
스스럼없네

다정한 그 눈길에서
당의 은정, 고마움 받아안고
지칠줄 모르는 그 목소리에서
당의 담력과 의지를 받아안네

당의 뜻으로
그대 꽃피우는 사랑의 그 열매
얼마나 향기로운것인가
당의 의지로
그대 키워낸 전사들 그 발걸음
얼마나 폭넓고 거세찬것인가

당에 대한 의리를 지님 없인
티없는 충성심 간직함 없인
그대 이름조차 부를수 없는 혁명동지
우리 리당비서동무!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펼치신
붉은 노을속을 앞장서 걷는
우리 당의 기수여!

내가 만난 청년

오광호

해빛, 눈...

맑은 겨울날이다.

나는 송신 립체다리결에 자리잡고있는 사로청려관을 향해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머리우로 건물의 지붕들에서 날리는 흰눈가루가 해빛에 반짝이며 내려앉았다.

《아이, 숨차... 좀 천천히 가자마.》

내옆으로 요즘 한창 유행되고있는 허리를 바싹 졸라맨 기다란 곤색 외투를 입은 처녀 둘이 손을 잡고 할썩거리며 달려갔다. 가벼운 향수냄새가 풍겨왔다.

뒤미처 처녀들의 뒤로 머리가 더부룩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 난 청년 둘이 또 외투자락을 날리며 뛰어갔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저 멀리 대동문 영화관의 뽕죽한 지붕끝이 보였다. 그제야 나는 방금전에 피득 보고지나온 《사랑 사랑 내 사랑》이라는 영화간판과 낮상영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볼수 있는 생활이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겨 려관으로 향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가면 영준이를 만날수 있을까?)하는 불안으로 가슴이 조였다. (사람도... 올라왔으면 벌써 알려줄게지.) 영준이란 내가 취재길에서 만나 아는 청년인데 나는 그가 수도에 와있다는것을 몇시간전에야 알았다. 그가 려관에서 전화를 걸어왔던것이다. 영준은 지난 밤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60 톱기념 전국청년학생들의 화불행진에 참가하기위해 올라왔는데 래일 아침차로 내려간다고 말했었다.

나는 걸음을 빨리했다. 마침 려관쪽으로 가는 뽕스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폭신한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은 나는 차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뽕스는 선교네거리를 지나고있었다. 아빠트밀 식료상점앞에다 어린애들이 눈사람을 만들어놓은것이 보였다. 나무교챙이를 뽕죽하게 쫓아놓은 코가 우스웠다. 함뽕 흘러드는 해빛에 눈이 부시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영준이를 처음 만나던 1978 년 그때 일이 방금 보고난 그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X

밤, 눈보라...

렬차는 동해선을 따라 질풍처럼 내달렸다. 나는 북방의 어느 한 야금기지건설장으로 가는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속에 끼여앉았다. 취재길이었다. 흥분한 청년들은 온밤 잠들줄을 몰랐다. 노래, 웃음 그리고 도 노래... 우리 나라 어느 가정과 도서관에 가도 쉽게 찾아볼수 있는 그 유명한 《6

00 곡집》을 첫페이지부터 몽땅 펼치는것 같았다. 합창과 독창, 녀성중창과 2 중창, 그다음은 또 합창, 눈이 작고 불이 처진 오락회지휘자는 양보와 타협이라는것을 몰랐다. 누구든 짚이면 그뿐이었다. 그통에 처녀들과 나이는 축들은 그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은근히 애썼다. 그러나 혹 그중에는 자기를 짚어줄것을 바라서 일부러 머리를 숙이고있는 축들도 더러 있었다. 그런 축들은 웃음도 남보다 더 크게 웃었고 몸가짐도 별스레 눈에 띄게 했다.

어쨌든 그 예리한 《메밀눈》은 《요진통대상》만 딱딱 짚어냈다. 그때마다 려차간은 온통 웃음판으로 변했다. 지어는 차칸을 지나가던 새침데기 처녀렬차장까지도 눈길에 뽕짜보이는 얼굴이 흰 사회안전원과 혼성 2 중창을 부르고야 통과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요란하고 위신있는 지휘자가 손을 들어야 할 난처한 일이 생겼다. 지명된 대상자가 끝까지 일어서지 않는것이였다. 대상자인즉은 내앞의자에 앉은 청년, 아니 청년이라기보다 아직은 소년이라고 불려야 할 키도 몸도 작은 어린 돌격대원이였다. 그 무엇에 놀란듯

동실하게 뜬 두눈, 반쯤 벌어진 입... 겁을 먹은것 같기도 하고 수심을 띤것 같기도 한 청년은 순박하다기보다 어딘가 어리무던해보였다. 그렇지만 고집은 여간이 아니였다. 잔뜩 으시대며 다가온 지휘자가 온갖 설교와 위협을 다 들이대도 끄떡없었다. 도무지 움직일 녀름을 안했다. 《자, 이거... 여, 동문 지금 우리 돌격대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있다는걸 느끼지 못해.》안달아난 지휘자가 마지막 《주괘장》을 내뺐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청년은 여전히 머리를 수긋하고 창밖만 내다볼뿐 일어서지 않았다.

그렇수록 청년들은 《나오시오, 나오시오.》하며 더욱 기세를 올렸다. 참으로 딱한 일이였다.

《가만 뒤두지. 어디 아파 그러는것 같구만.》내가 한마디 했다. 사실 그 청년은 어디가 불편한지 기차가 평양역을 떠날 때부터 줄창 우울한 얼굴로 창밖만 내다보고있었다. 《그래요?...》지휘자가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더니 곧 투실투실한 얼굴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여, 그림말을 해야지... 안됐어.》라고 청년의 어깨를 툭치며 량해를 구했다. 그리고는 능청스러운 눈으로 나를 흘끔 바라보고 청년들을 향해 돌아서며 오른손을 척 쳐들었다. 《동무들, 유감스럽게도 이 동무는 지금 고뽕님과 약혼중에 있습니다. 그걸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방송위원회 기자동지가 보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섭섭하지만 이 동무의 노래는 건설장에 가서 듣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를 대신하여 기자동지가 직접, 그렇습니다. 직접 출연하겠습니다.》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으흠, 으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다. 진정을 담아 불렀다.
어쩐지 그러고싶었다.

우리는 청춘 불타는 심장
우리는 희망 우리는 량심

노래는 삽시에 합창으로 번져갔다.

아,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그 누가 우리를 막으랴
우리를 막으랴

노래를 부르는 나의 눈에는 왜 그런지 눈물이 펄 돌았다. 노래가 끝나자 청년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과 얼굴을 닦았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때였다.

한쪽 구석에 웅색하게 앉아있던 청년이 나를 건너다보며 이상하게 쭈뼛거렸다. 그러더니 떨리는 소리로 《저… 저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진정으로 하는 소리였다. 동실한 얼굴에 송구한 표정이 어려어있었다.

《허허 일없소. 그런데 정말 어디가 아픈게 아니요?》

나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다.

《아, 아닙니다. 사실은…》

당황한 청년은 무엇인가 말할듯 머뭇거리다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오른쪽 뺨에 볼우물이 슬쩍 패였다. 그것은 청년의 모습을 더욱 애티나게 해주었다.

《몇살이요?》

《열여덟살입니다. 강영준이라고 합니다.》 영준은 이름을 떨것이 무슨 미안한 일이기나한듯 머리를 숙였다.

《음… 그런데 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었소?》

《…》

그는 대답을 못했다. 머리를 더 깊이 숙일뿐이었다. 마치도 그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말하려는 듯싶었다. 그리고는 내 눈길을 피하듯 또다시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다. 검푸른 어둠속에서 흰 눈가루들이 옛말에 나오는 전설적인 새의 큰 날개마냥 끊임 없이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사연이 있구나…)

나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마치도 시간이 흐름을 멈춘듯싶었다. 창턱우에 놓은 물고뿌가 쉬임없이 딸각거렸다. 잠시 후 영준이가 나를 돌아보았다.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였다.

무엇인가 찾고있는듯한 긴장한 표정, 꼭 다문 입… 그는 몇년 더 숙성해보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예.》

뜻밖의 질문이었다. 나는 뻔뻔하였다.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있지…》 나는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의심해본 일은 있습니까?》

《친구를?!…》 나는 놀랐다. 그야말로 심각한 질문이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어글어글한 두눈이 초조하게 지켜보고있었다. 마치도 바람앞에 떨리는 두대의 초불이 타오르는듯싶었다.

《글쎄 아직은 없다고보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건 왜?》

영준의 눈이 어두워졌다. 초불이 꺼진듯싶었다. 입에서는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전 오늘…》

《한대 피우지.》

나는 그의 마음을 늦추어주기 위해 창턱우에 놓인 담배갑을 집어주었다.

《피울줄 모릅니다. 선생님…》 영준은 두손으로 담배갑을 받아 창턱우에 도로 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한 친구가 있습니다. 경민이라고… 경민인 누구보다 레절도 바르고 마음도 어렸습니다. 그리고 또 총명하구요. 우린 유치원때부터 늘 붙어다녔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계공장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둘다 기계기사가 된다는거였지요.》

영준은 시무룩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와 나는 마치 소란스러운 열차칸을 떠나 깊은 숲속에 들어가 앉은듯싶었다. 나는 온몸으로 그의 말을 듣고있었다.

…

영준이와 경민이는 여느때보다 늦어서 공장정문을 나섰다. 하늘에는 벌써 별들이 총총했다. 잠풍한 겨울밤이었다. 그들은 방금전에 회관에서 진행한 사로청결기모임에 참가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모임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지원하는 문제가 토의되었다.

《좋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우리공장 사로청원들이 앞으로 돌격대에 나가서도 수도 청년들의 본때를 반드시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만족한 공장 사로청위원장의 말이었다.

회의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참가자 전원이 돌격대에 지원한 것이었다.

《빨리 가자. 8시가 넘었어…》 경민이가 며칠전부터 차고다니는 손목시계를 흠족히 들여다보며 재촉했다. 《2분 40초야.》 그리고는 습관처럼 이마에 몇오리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성껏 쓸어넘겼다.

시계는 삼촌의 선물이였다.

《응…》영준은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걸음은 다시 떠졌다.
《왜 그래. 뭘 생각하나?》경민이가 얼굴을 찡
그렸다.

《오, 아무것도 아니야. 참 경민이, 우리 래일
옥류관에 갈가?》

《옥류관…》경민의 눈이 둥그레졌다. 거긴
왜?》

《왜는 왜야. 국수 먹으러 가지. 이제 돌격대에
나가면 몇년동안 옥류관국수도 못먹을게 아니
야.》영준은 자신의 생각이 신통한듯 싱글벙글 웃
으며 말했다. 오른쪽 뺨에 볼우물이 움푹 패었다.

《난 또 무슨…》경민은 흥미없는듯 말꼬리를
흐렸다. 그는 불빛이 환한 리발소안을 유심히 들
여다보며 걸었다.

흰 위생복을 입은 몸매가 호리호리한 처녀가
나이지숙해보이는 한 중년남자의 머리를 열심히
깎아주고있었다. 경민의 손이 슬그머니 머리우로
올라갔다.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데…》 흥분
한 영준이가 정겨운 눈으로 거리의 집들을 보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글쎄…》경민의 대답은 애매했다.

그는 또한번 손목시계를 보았다. 야광으로 된
문자판우로 파르스름한 초침이 쫓기듯이 돌아가
고있었다.

《몇시야?》

《20 분》

둘은 한동안 묵묵히 걸었다. 저마끔 자기 생각
에 잠겨있었다. 발밑에서 눈뚫히는 소리가 《빠드
득 빠드득》요란스럽게 울렸다. 《여…》영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래일부터 시내를 한번
다 돌아보자. 체육관이랑, 도서관이랑말이야. 좋
지?…》

그는 불빛에 번쩍이는 눈으로 경민을 보며 물
었다.

《흥, 기분주의가 또 머릴 들었구나.》

이외에도 경민의 대답은 쌀쌀했다. 뜻밖이었다.
영준의 눈이 둥그레졌다.

《기분주의라니… 건 무슨 말이야?》

경민이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영준이도 멎
었다.

《너 정말 돌격대에 갈래?》

《가지 않구 왜…》영준은 놀랐다. 《넌 뭐 안
갈래?》

경민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더니 매몰
스럽게 짧라 말했다. 《난 돌격대에 나가 몇년동
안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어.》

《시간을 보내다니… 무슨 소리야?》

영준은 리해가 되지 않았다.

《좀 이성적으로 사고해보려마…》이 《리성적
사고》라는 말은 경민이가 요즘 즐겨쓰는 말이었
다.

《우린 앞으로 기계기사가 되자고 약속하잖았

니. 한데 이제 돌격대에 나가 몇년을 보내면 그
건 어떡하니.》경민은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을 쓸어넘기고 영준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너 아
니래도 그런데 나갈 사람은 따로 다 있어.》라며
빙긔 웃었다.

그 어떤 자기만족과 팽담성이 담긴 야릇한 미
소였다. 영준은 그 웃음이 싫었다. 불쾌했다.

(그런데 돌격대에 나갈 사람이 따로 있다는건
무슨 소린가? …)물론 영준은 돌격대에 나가는
문제를 자신의 희망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못했
다.

다만 모두가 나가야 한다고 하고 또 나가는것
이 옳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손을 들었을뿐이었다.
(그렇다면? …)영준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물
었다.

《그런데 너 손은 왜 들었니?》영준은 아까 회
의장에서 자기 옆구리를 톡 치며 《여, 뭘 생각해.
돌격대에 나갈 사람들은 손 들래.》라고 말하며
맨션참으로 손을 번쩍 들던 경민의 모습이 떠올
랐다.

《손?… 손이야 다 들지 않았니.》경민은 어찌
구니없는듯 픽 웃었다. 《손을 들었다고 다 나가
는건 아니야.》그리고는 따분한듯 걸음을 빨리했
다.

그 말은 사실이다. 회의에 참가한 청년들이 모
두 손을 들었지만 그들이 몽땅 나가는건 아닐것
이다. 하지만 영준은 경민의 말이 접수되지 않았
다.

그렇다고 하여 또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라
고 비난할 근거도 없었다.

대동교에 올라서자 바늘끝같은 강바람이 얼굴
을 콕콕 찔렀다. 경민은 외투깃을 올렸다. 《난
네가 참 답답하다. 물론 돌격대에 나가는것도 좋
은 일이지. 그러나 꼭 너나 내 이름을 찍어서 요
구하는건 아니잖아. 한데 뭇때문에 사서 고생하
겠니… 보다 중요한건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아
니라는거야.

될수만 있으면 시간을 앞당길수 있는 모든 유
리한 조건을 찾아야지.》경민은 심각한 표정을 짓
고 말했다. 《사실 리성적으로 사고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몇년후에 기계기사가 돼서 현대적인 기
계들을 만들어내는게 사회를 위해서야 더 리익이
아니야.》

그의 말은 명백하고 논리적이였다. 하지만 그
럴수록 영준에게는 그것이 정당하게 생각되지 않
았다. 왜 그런지 몰랐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경
민이가 마치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설어보였
다.

이상하였다.

《자, 이제 다 왔어.》그들은 어느새 연극극장옆
아파트밑에 와 있었다. 《뭘 그렇게 심각해서 그
래. 어서 올라가라우.》경민은 빙긔 웃었다. 가
로등불빛에 환히 드러난 희고 반듯한 얼굴, 사립
성있고 명리하게 보이는 가느스름한 두눈… 그것

은 틀림없는 영준이에게 친근한 경민의 그 모습이였다.

머칠이 지났다. 눈덮인 유보도는 텅 비어있었다. 가슴팍이 하얀 까치 두마리가 날아내려 오락가락할뿐이었다. 영준이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았다.

《그래 넌 어떡하겠다는거가?》 유보도 란간에 기대어 룡라도쪽을 올려다보던 경민이가 돌아섰다.

《글쎄, 가야지 뭐.》 영준의 대답은 자신이 없었다.

《답답하다.》 경민이가 검은 가죽장갑에 묻은 흰눈을 툭툭 털며 말했다. 《난 그래도 어제 삼촌을 찾아가 우리 둘 다 기계공학연구소에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넌...》

《?...》

영준의 눈이 커졌다. 의혹과 동요의 질은 그늘이 비졌다.

《정말이야?》

《그럼.》

《...》

《...》

《돌격대얘기도 했니?》

《했지.》 경민은 비난하듯 그를 흘끔 쳐다보고 돌아섰다. 저 멀리 곡산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뿜어올라 푸른 하늘로 떠가는것이 보였다. 영준은 마음이 끌렸다. 생각만해도 흐뭇한, 언제나 꿈꾸어오던 기계공학의 열쇠를 간직하고있는 희망의 집이었다. 각종 기술도서들과 도면들, 치차들과 베어링들, 경민이가 말했다. 《넌 지금 회의에서 손을 든것때문에 그러지. 그게 무슨 관계있니. 회의에 참가하면 손이야 웅당 들어야 하잖니.》

《...》

《그럼 개별적인 사람들이<나는 사정이 이렇고 희망이 이렇기때문에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내리워야 옳겠니... 회인데.》

《글쎄 그렇다구 량심적이라고 말할수, 없지 뭐.》 영준은 맨손으로 눈덩이를 빚으며 말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흥분하고있음을 느꼈다.

《량심... 참 단순하다. 그건 량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만약 모두가 너처럼 어리석게 생각한다면 회의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니.》

《분위기?...》

《그럼 분위기도 고려해야지. 그래 내가 손을 들었다고 누가 탓하는 사람이 있어?》

《...》

그것은 사실이다. 회의가 끝난 다음날부터 돌격대에 나갈 사람들은 정식으로 등록하였지만 경민이가 빠졌다고 탓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야, 그렇다고 자기를 속일수는 없어.) 영준은 손에 들었던 눈덩이를 획 집어던졌다. 유보도를 거닐던 까치가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어쨌든 난 가겠다. 일단 손을 들고 대답했으니까.》

《좋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경민은 더 할말이 없는듯 뺨 돌아서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난 그저 친구로서 너를 위해 말했을뿐이다. 오해하지 말아.》 그리고는 곳곳이 걸어갔다.

찬바람이 불며 눈가루가 날렸다. 영준은 가슴이 아왔다. 정작 것처럼 꿈꾸던것을 실현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허전해졌다. 그리고 경민의 일이 섭섭했다. 어떻게 되어 그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누구보다 총명하고 경우가 밝은 그가 아닌가. 영준은 문득 몇년전, 그들이 중학교 1 학년에 다니던 어느날 경민이가 《아동문학》잡지에 난 동시를 베껴가지고 선생님한테 바쳐 칭찬 받던 일이 생각났다. 그것으로 하여 그때 그들은 한바탕 말다툼까지 했었다.

그리고도 영준은 다음날 경민이를 쫓아다니며 그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한 아이를 주먹으로 꼭 눌러놓았다. 그후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다.

영준은 저만큼 앞에서 걸어가는 경민이를 이윽히 바라보며 서있었다. 세상에 나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쓸쓸하고 서글픈 생각이 밀려들어 가슴을 못견디게 허뻛다...

...

역전의 넓은 흙은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떠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속에서 영준은 경민이를 안타깝게 기다렸다. (왜 안나올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 그럴수도 있다. 이러나저러나 그는 나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내가 지나쳤다. 돌격대에 나가더라도 그를 기쁘게 해줄수야 있지 않았는가.) 영준은 경민이가 보고싶었다. 못견디게 그리웠다. 마치도 오늘 못만나면 영원히 헤어질것 같은 감이 들며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같이 가는 패들은 벌써 다 기차에 올랐고 빨리 타라고 몇번이나 독촉했다.

그때마다 영준은 승강대 손잡이를 잡았다가는 슬며시 다시 놓곤하였다. 당장 경민이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황황히 달려나올것 같았고 봄비는 사람들속에서 자기를 찾아헤멜것 같았다. 날씨는 몹시 맑았다. 검푸른 하늘에서는 바스라친 겨울쫄까같은 별들이 바들바들 펴고있었다. 영준은 추웠다. 손발이 당장 떨어져나갈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흠에서 서성거렸다. 이제라도 경민이가 달려나오면... 주위에서는 떠나고 배려는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고있었다. 그는 시계탑을

올려다보았다. 5 분전 10 시였다.

이때였다. 영준은 누군가 등뒤로 슬그머니 다가섬을 느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돌아섰

다.

뜻밖에도 다가선 사람은 열차원이었다. 얼굴이 가름한 열차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굴 기다려요? 어서 타세요. 그러다 귀 얼겠어요.》

《...》

영준은 슬며시 돌아섰다. 동정을 받은것이 싫었다. 그는 다시 한번 나들문쪽을 보고 승강대에 올라섰다. 이윽고 발차 신호가 나고 기차가 서서히 미끄러져나갔다. 그러자 영준은 불시에 (안나왔구나.)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텅 비는것 같았다...

이야기는 끝났다. 영준은 나를 안타깝게 주시했다. 무엇인가 대답을 바라는 눈길이었다. 그러나 나는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생활과 인간에 대하여 교과서에서 배운대로밖에 알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준달랴인가. 그런데 경민이는 왜 역에 나오지 않았을까? 정말 영준의 생각대로 동무의 처사가 불쾌해 그랬을까?...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떤 자책을 받았을까?... 그럴수 없다. 그는 지금 자기가 짠 시간표대로 곧바로 걸어가고있지 않는가.

그러면?... 순간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청년에 대하여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경솔하게 말해줄수 없다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이제 그들 자신이 생활로 증명할것이다. 더우기 나는 동무를 끝까지 믿으려고 애쓰는 영준이에게 서둘러 내 생각을 털어놓아 그들을 던져주고싶지 않았다. 나도 영준이처럼 경민이를 믿고싶었다. 법석 끓던 청년들은 잠들고 차칸은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어느새 눈보라가 멎고 쟁반같은 둥근 달이 떠올라 눈덮인 대지를 은은하게 비추고있었다. 《영준이 자오.》 나는 이 한마디밖에 못했다...

...

그후에도 나는 영준이를 자주 생각하였고 현지에 나갈 때마다 《혹시나...》하고 은근히 그를 찾아보곤했다. 그러나 쉽게 만날수 없었다. 그런속에 세월이 흘러 3년이 가고 6년이 되었다. 이제는 그에 대한 생각도 거의나 하지 않았고 모습도 잊혀졌다. 그러던 지난해 여름 어느날이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로 놓은 철길로 첫 열차를 통과시킨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현지에 나갔던 나는 뜻밖에도 그곳에서 영준이를 만났었다. 참으로 우연적인 상봉이었다.

×

빠스가 멎었다. 나는 눈을 떴다. 송신립체다리 옆이었다. 차창으로는 탑식으로 솟아오른 사로청려관이 내다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벌써부터 가슴이 울렁거리며 마음이 앞섰다.

...

《참 손님도, 그 젊은이들이 려관에 붙어있을게 뭐예요.》 허리가 굽고 몸집이 평평한 관리원이 주머니가 답답하다는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몇시에 들어올가요?》 《그거야 알아요. 하여튼 휴게실에 가 기다려보지요.》 아주머니는 열쇠뭉테기를 절렁거리며 복도끝으로 가버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천천히 휴게실에 올라가앉은 나는 담배 한대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영준이를 두번째로 만나던 때를 생각했다.

×

《부릉, 부릉, 부르릉》

자동차는 또 한번 악을 썼으나 이번에도 역시 헛탕이었다. 오히려 진창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간듯싶었다.

《체...》 마치 다섯톤짜리 화물자동차를 자기 힘으로 뽑아낼듯이 온몸을 운전대우에 바싹 구부리고 가속기를 힘껏 밟던 운전사가 지친듯 허리를 펴고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발동을 톡 꺼버렸다.

잔뜩 긴장하여 그옆에 앉아있던 나는 마음속탕개가 탁 풀렸다. 맥이 빠졌다. 온 밤을 이모양으로 보낼것만 같았다.

귀구멍을 꼭 메우던 소란스러운 발동소리가 꺼지자 고요한 정적속에 《썩》하는 비소리가 더욱 푹푹히 들렸다. 막연하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려관에서 하루밤 푹 쉬고 아침에 일찍 떠났을걸 그랬다. 하긴 역대기실에서 나와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공사장으로 가는 이 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커다란 행운이 차례진듯싶어 끊임없이 퍼붓는 비와 위험한 산골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한대 피우십시오.》

어느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는지 뼈뽀하게 비껴쓴 모자밀으로 곱슬곱슬하게 지진 머리칼이 한 움큼 뺨여져나온 운전사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불그스레한 불빛속에서 반짝거리는 까만 두눈이 나를 위로하듯 지켜보고있었다. 그 눈은 마치도 《넘려마십시오. 이쯤한건 문제도 안됩니다.》라고 말하는듯싶었다. 운전사는 히죽 웃고 다시 발동을 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온몸을 뒤로 잔뜩 제끼면서 한발로 가속기를 지그시 밟았다.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뒤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갔다. 차체가 부르르 떨리고 역한 배기가스냄새와 함께 고무 단 냄새가 확 풍겼다. 한번, 두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나는 차문을 열고 연신 바퀴밀을 내려다보며 앉은 자리에서 움썹거렸다.

《부릉, 부릉, 부르릉...》

순간 자동차가 경충 뛰여오르며 앞으로 쭉 굴러나갔다.

《에, 수고했소.》 나는 기다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차문을 닫고 담배갑을 꺼냈다. 《자...》 어느덧 흔들거리는 전조등 불빛은 어둠에 싸인 컴컴한 수림이며 길복판에 생긴 도랑이며, 반쯤 무너져 내린 낭떠러지며를 비치며 앞으로 나아가고있었다.

《진짜이러다가 어디 사태라도 나지 않을까요?》

운전사가 주의깊게 앞을 내다보며 불안해하였다.
《그러게말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야단이다. 래일 아침 9시에 통과한다는 첫 열차가 걸릴수 있었다. 나는 다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아니나다를까 우리가 돌격대지휘부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은 바짝 긴장된 팽팽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사태나 있다는 통보가 들어왔던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곧 련대일군들을 따라 사고현장으로 달렸다. 급히 얻어입은 기다란 고무비옷이 무릎과 발목에 감겨들어 걷기가 힘들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있었다. 사방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현장에 도착한 나는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광경에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산 하나가 통채로 무너져내린듯 이백여미터 구간의 철길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자리에는 흙과 바위들이 버럭무지처럼 솟아있었다. 나는 실망하였다.

이제는 첫 열차가 제시간에 통과할수 없다는것이 불보듯 명백한 일이었다. 분하였다. 그래도 작업장은 불도가니마냥 끓고있었다. 수백개의 기름 불뭉치들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빛속에서 천여명의 청년들이 복작거리고있었다. 삽질, 망치질, 곡괭이질... 목고채가 휘게 흙과 돌을 퍼담는 청년들이 기다란 줄을 지어 바람을 일쿠며 뛰어다녔다.

어느새 들이닥쳤는지 한쪽에서는 다섯대의 볼도젤이 요란한 발동소리로 전투장을 들썩들썩하며 흙무지를 밀어내고있었다. 한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화끈 단 기운과 함께 시큼한 땀냄새를 실어왔다.

턱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한동안 망연히 서있던 나는 지레대를 들고 큰 바위와 씨름하는 한 청년에게로 다가갔다. 불빛을 등지고 선 청년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하고 같이 하시오.》 청년이 흘끔 나를 돌아보았다. 어둠속에서 두눈이 번쩍이었다. 청년의 지레대밑에 어깨를 들이민 나는 소리쳤다.

《자 하나, 두을...》 청년도 낮으나 탄력있는 소리를 합쳤다. 《하나, 두을...셋!》 바위가 움쉴 움썩이었다. 우리는 다시 힘을 썼다. 드디어 바위가 허궁 들러나왔다. 청년은 만족한듯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커다란 메를 집어들었다.

순간 《회익》하는 짧은 바람소리와 함께 메대가리가 보기 좋게 바위중심을 때렸다. 한번, 두번, 세번 그리고 또 한번... 흔들거리는 불빛속에서 청년의 땀 떨어진 어깨와 잔등, 굵은 목이 번들거리며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나는 그의 익숙된 메질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다음은 내가 때렸다.

몇시나 되었는지? ... 우리는 비내리는 어둠속에서 오랜 시간 같이 일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통성을 안했고 말도 몇마디 나누지 않았다. 그럴

형편이 못되었다. 시간이 급했다.

한시바삐 철길을 이어 열차를 제시간에 통과시켜야 했던것이다.

어느새 비는 멎고 검은 구름장들이 밀리며 동쪽하늘이 허열게 열리고있었다. 우리옆으로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처녀가 다가왔다. 《저... 중대장동지, 련대부에서 찾습니다.》 청년이 일손을 멈추었다. 《긴급회의가 있답니다.》

청년은 량해를 구하듯 나를 한번 바라보고 처녀와 함께 저쪽 등성으로 올라갔다. 그제야 나는 청년이 중대장이라는것을 알았다.

나는 잠시 그대로 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전투장을 빙 둘러보았다.

그사이 일자리는 눈에 띄게 진척되어있었다.

벌써 저쪽 아래서는 청년들이 새 레루를 날라오고있었다. 그래도 기차는 제시간에 통과될것 같지 못했다. 아니 통과될지도 모른다. 지금 바로 그 문제때문에 련대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지 않았는가.

나는 심각한 얼굴로 모여있을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랐다. 그러자 가슴이 뭉클해오르며 그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꼈다. 아직은 많은 면에서 미숙하고 어린 그들, 그들이 지금 정든 집과 아득히 떨어진 이곳 낯설은 산중에 와서 땀과 비물과 감탕에 미역을 감으며 우리의 생활과 조국의 래일을 받들어가고있는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이 시각 아직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조차 않았을 나의 처와 자식들 그리고 그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생각했다. 그들은 아마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공사장에서 어떤 힘겨운 전투가 벌어지고있는가를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을것이다.

나는 힘껏 지레대를 박았다. 조금이라도 청년들의 일을 덜어주고싶었다. 한방울이라도 그들을 대신하여 더 땀을 흘리고싶었다.

나는 목과 등으로 굵은 땀방울이 돌돌 굴러내리고있음을 느꼈다. 그래도 힘든줄을 몰랐다. 날이 밝아 사위는 환해지었다. 일하기가 한결 쉬웠다.

불이 꺼진 기름방망이들에서는 검은 머리오리 같은 연기가 실실 피어오르고있었다. 커다란 바위옆에 쭈그리고 앉아 지레대끝을 들이밀 짬을 열심히 찾고있던 나는 《좀 쉬십시오.》하는 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중대장이 병실병실 웃으며 서있었다.

그제야 나는 순박해보이는 그의 넉적한 얼굴을 똑똑히 볼수 있었다.

《미안합니다. 전 그저 우리 돌격대에 있는 등문줄로 알고... 그런데 기자동진...》진심으로 사과하던 중대장이 갑자기 두눈을 크게 뜨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동그런 눈에 놀라움과 의문, 기쁨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니... 김수현선생이 아닙니까?!》

나는 일어섰다. 무엇인가 번뜩 예감되는것이

있었다.

《선생님, 절 모르겠습니까? … 몇년전 기차칸에서 만났던… 제가 강영준입니다.》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동무가? … 영준이!》

《선생님!》

우리는 와락 두손을 마주잡았다.

《허허참…》 나는 그의 등을 쓸어만지며 말했다.

《은 밤 같이 일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게말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붙들고 서있었다. 잊을수 없는 그 겨울밤이 생각났다.

《반갑소.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선생님, 이제 좀 쉬십시오. 그러다 후…》 영준이가 나를 보며 걱정했다. 《일없소. 그래 기차 어떻게 하기로 토의했소?》 《어떻게 할게 있습니까. 무조건 제시간에 통과시켜야지요.》 영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제시간에?…》

나는 놀랐다. 잠시후 현장에서는 짙막한 모임들이 중대별로 벌어지고 작업은 더욱 높은 속도로 진행되었다. 모두가 뛰고 달렸다. 어느덧 사태에 묻혔던 200미터구간에는 새 철길이 놓였다.

8시 50분, 나는 영준이네 중대원들과 함께 지레대를 들고 철길옆에 가섰다.

온 련대가 새로 놓은 철길을 가운데 두고 두줄로 쭉 갈라섰다. 청년들은 지반이 약한 새 철길을 어깨로 받치자고 결심했다. 나는 마치도 그 어떤 숭엄한 의식에 참가하는 심정이였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지어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그들의 평범한 룡담마저 비상한 의미를 띠고있는것 같았다.

이윽고 기적소리와 함께 멀리서 우리쪽으로 달려오는 기차의 가스다란 동음이 레루를 통해 《달가닥달가닥》 들려왔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영준이가 걱정이 되는듯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병긔 웃어보였다.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과 긴장속에 숨막히는듯한 가슴을 두드리며 기차의 동음이 점점 더 크게 울려왔다. 온 우주가 그 소리로 짝 차는것 같았다. 드디어 뜨거운 열풍이 불어치듯 화끈 단 공기가 등과 목에 활짝 덮쳐우고 어깨우에 올려놓은 지레대가 뼈속으로 깊숙이 배겨들었다. 기차가 지나가는것이였다. 나는 발과 허리, 어깨와 두손, 온몸에 힘을 주었다.

한초, 또 한초… 내앞에 서있는 영준의 넘직한 등이 보였다. 그의 굵은 목이 시뻘겋게 물들어있었다. 마치도 웅근 한세기가 지나가는듯싶었다. 갑자기 뒤쪽에서 요란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뒤미처 나는 어깨가 돌연 흘가분해짐을 느꼈다.

기차가 통과한것이다. 《선생님!》 영준이가 돌아섰다. 《수고했소. 허허허.》

우리는 두손을 마주잡고 오래오래 서있었다. 점점 더 크게 울려퍼지는 《만세》의 환호성은 끝없이 뻗어나간 철길처럼 끝날줄을 몰랐다…

…

산 그리고 또 산…

영준이와 나는 돌격대천막이 자리잡고있는 산중턱 바위우에 앉아있었다. 기차를 정시에 통과시킨 련대는 성대한 휴식을 선포했다.

노래를 부르고 떡을 치고… 명절이였다.

며칠째 내렸다는 비가 멎고 해가 뜨자 골짜기들에서 젖빛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안개속에 멀고 가까운 산봉우리들이 섬처럼 떠있었고 우리가 앉은 바위아래, 바닥이 보이지 않은 계곡에서는 소란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런닝샤쓰바람으로 목달개를 달고있는 영준을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췌 벌어진 어깨, 담벽같은 가슴 그리고 돌덩이같은 근육이 툭툭 불거진 구리빛 팔뚝… 그는 키도 한뼘은 도 큰것 같았다. 한마디로 6년전에 만났던 그 애송이 청년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자, 어서 얘기하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나는 또 한번 독촉했다. 《참, 그때 돌격대에 안나가고 헤어진 동무가 있었지. 경민이던가?…》

《예, 선생님은 정말 기억력이 좋습니다.》 영준이가 빙긔 웃었다. 그러자 두툼한 입술이 량옆으로 밀리며 오른쪽 뺨에 불우물이 슬쩍 패였다.

그 불우물을 보는 나는 피땀 기차칸에서 그를 처음으로 만나던 일이 다시금 생각났다.

어둠을 헤치며 달리던 급행렬차, 잠 못들던 청년들, 그리고 생활의 진실과 인간의 량심을 두고 모대기던 영준이… 참으로 잊을수 없는 밤이였다.

영준도 그때를 생각하는지 저아래 건너편 산기슭을 묵묵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산을 끼고 돌아간 새로 놓은 철길이 해빛을 받아 반짝이였다.

《두달전에 있는 일입니다. 돌격대생활을 마친 나는 그때 대학추천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였다.

…

영준은 거울앞에 서있었다. 가슴에 단 훈장과 메달이 번쩍거렸다. 그는 병긔 웃었다. 꿈만같았다. 생각할수록 믿어지지 않았다. 돌격대에 오던 일이 어제같은데 어느덧 6년이 지나가고 래일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것도 그저 가는것이 아니라 가슴에 훈장과 메달을 달고 대학으로 가게되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영예와 행복은 자기가 다 독점한듯싶었다.

(그런데 무슨 말부터 할가…) 영준은 거울속의 자기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아까 련대장은 오늘저녁 신대원환영모임에서 영준이가 꼭 인사말을 해야 의의있다고 말했었다. 그리고는 그 넘직한 가마뚜껑같은 손바닥으로 그의 어깨를

철썩 치며 《그렇다구 종이장에 써가지고 나가 연설할 생각은 말라구. 그건 우리 식이 아니야.》라고 강조했었다.

그도 그러고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격식이였다. (인사말이라...)영준은 불안하였다. 그러면서도 웬일인지 자신이 있었다. 이제라도 정작 연단에 나서면 돌격대 선배로서, 아니 다같은 청춘으로서 무엇인가 심장이 말을 할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한번 더 옷차림을 살펴보았다. 머리모양이며 목달개며, 훈장위치며 모든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돌아섰다.

현대식당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갖가지 음식을 가득 차려놓은 기다란 식탁을 석줄로 쪽 늘어놓고 그앞에 구대원들과 신대원들이 나란히 마주 앉았다. 가슴에 훈장과 메달을 단 구대원들은 의젓하고 여유있는 자세로 얼굴을 버젓이 들고 점잖게 앉아있었고 꽃송이를 단 신대원들은 점직한듯 얼굴을 숙이고 조심스럽게 앉아있었다. 그래도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반짝거리는 그들의 눈은 옆과 앞에 앉은 사람의 훈장급수로부터 식탁우에 차려놓은 음식가지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있었다. 모임이 시작되었다. 자기 차례가 가까와오자 영준은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현대장이 일어섰다. 얼굴이 검고 기다란 그는 한쪽손으로 식탁을 짚고서 마치 영준이가 세대로 참가했는가를 확인하듯 그가 앉은쪽을 한번 더 돌아보고 걸걸한 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현대 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강영준동무가 인사말을 하겠습니다.》영준이가 일어섰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그는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이상하였다. 박수소리가 몇자 마음도 동시에 가라앉았다. 그는 침착한 눈으로 식당안을 빙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그중에도 류달리 얼굴이 사과알처럼 동그란 처녀가 황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아까 신대원들이 도착할 때 자기가 꽃송이를 달아준 그 처녀였다. 그는 입가에 알릴락말락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처녀도 방싯 마주웃었다. 그리고는 부끄러운듯 얼굴을 숙였다. 영준은 입을 열었다. 마치 그 처녀 한사람과만 이야기를 나누듯 조용히 말을 시작하였다. 《동무들, 동무들은 정말 잘 왔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현대 전체 동무들과 함께 동무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박수가 터졌다.

영준은 계속했다. 《동무들, 우린 바로 청춘이며 청춘이기때문에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청춘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춘이란 곧 량심이다.> 라고말입니다. 물론 리상도 희망도 열정도 의지도 모두 청춘의 중요한 특질입니다. 그러나 량심을 떠난 리상과 열정을 말해 뭘하겠습니까. 우린 바로 그 량심이 귀중하기때문에 자기의 모든것, 지어는 희망도 꿈

도 사랑도 우정도 서슴없이 뒤에 두고 여기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 년이나 30 년이 지난 후 우리 조국이 더 살기 좋은 낙원으로 변하고 우리가 청춘시절을 회고하게 될 때, 그대 이 귀중한 시절을 헛되게 보낸 사람은 얼마나 가련하고 불행하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전 매일 이곳을 떠납니다. 정말 섭섭합니다.》수군거리는 소리가 났다.

몇몇 신대원들이 옆에 앉은 구대원들에게 무엇인가 묻고있었다. 영준은 가슴이 몽클하며 눈곱이 뜨거워났다. 그는 좀더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전 저에게 단 한번밖에 없는 청춘시절의 일부를 이곳 돌격대에 와 바쳤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있기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영예이며 재부입니다. 전 오늘 그것을 일부 동무들이 제 얼굴을 보기전에 가슴의 훈장부터 살펴보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었습니다.》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그도 빙긋이 웃었다. 《동무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전 영웅이 되지 못했지만 동무들은 모두 영웅이 될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으면서 동무들을 한번 더 열렬히 환영합니다.》

영준은 웃음과 박수 속에 자리에 앉았다.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 인사말들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더 흥성거렸다. 그사이 영준은 신대원들에게 불들려 얼굴이 사과알처럼 생긴 바로 그 처녀옆에 가 앉았다. 그들은 모두 영준을 동경과 존경이 어린 시선으로 보며 별의별것을 다 물어보았다.

지어는 집에다 며칠에 한번씩 편지를 쓰는게 좋은가 하는것을 묻는 처녀도 있었다. 그때마다 영준은 자기와 동무들의 생활을 레를 들어가며 친절히 대답해주었다. 오락회가 시작되어 모두가 거기에 섬취되었었다. 이때였다. 옆에 앉은 그 처녀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속삭이듯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한가지 물어봐도 좋겠어요?》

《어서 말하오.》영준은 처녀의 발그레해진 동그란 얼굴을 들여다보며 즐겁게 응했다.

《영준동진 이제 돌아가면 어디로 가나요?》

영준은 의아했다. 《어디로 가다니... 왜?... 집으로 가지.》 그는 심상하게 대답했다. 《음... 거짓말.》 처녀가 꼭 다문 조그마한 입을 삐죽 내밀었다. 쌍가풀진 까만 두눈이 불빛을 받아 반짝이였다.

《거짓말이에요. 집으로 가지 않지요?》 처녀는 벌써 다 알고있다는듯 새물새물 웃으며 그의 얼굴을 할끔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수집은듯 얼핏 눈길을 돌려 식탁우에 놓인 사과알을 말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마치도 그 사과에 대해 물은듯싶었다. 영준은 리해가 되지 않았다. 처녀가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지도 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정말이요.》 그는 저도

모르게 또 한번 대답했다. 《아니예요.》

처녀가 고집스럽게 반대했다. 그러더니 명상에 잠긴듯한 눈으로 영준을 보며 톱박톱박 자신있게 말했다. 《전 이자 영준동지 얘길 들으면서 영준동지는 앞으로 여기보다 더 어려운, 정말 우리들의 청춘을 남김없이 바칠수 있는 그런곳으로 틀림없이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이 어딘지 알고싶어요.》 처녀는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맑고 순진한 그러면서도 만만치 않아보이는 까만 두눈은 마치도 《보세요. 내 말이 맞지요. 어서 대답하세요.》라고 독촉하는듯싶었다. 영준은 당황하였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다. 《글쎄…》 그는 어정쩡한 소리를 했다. 이때 런던장이 그를 찾았다. 다행이었다. 아니 그래도 대답은 해야했다. 《웁은 말이요. 그러나 그게 장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건 마음이겠지요.》 영준은 웃으며 일어섰다. 어쩐지 처녀와 더 앉아있기가 두려웠다.

(무엇때문일까?…)

영준은 모임이 끝나 숙소에 돌아온후에도 처녀의 물음에 대답 못한 자신을 두고 오래도록 생각해보았다. 생각은 아침에도 계속되었다. 동무들은 모두 현장에 나가고 그는 출발준비를 위해 홀로 남아있었다. 침상우에는 아구리가 벌어진 배낭과 뚜껑이 열린 트렁크가 놓여있었다. (왜 나는 그를 피했을까?… 피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물론 나는 그가 말한것처럼 앞으로의 내 생활을 그 어떤 비사한곳에 두고 생각지 않는다. 그게 그럼 잘못된판말인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문제는 량심이다. 어디에 가 무슨 일을 하던 량심만 기만하지 않으면 그는 몇몇하게 사는 사람이다. 앞으로 나도 그렇게 살것이다. 그런데 왜 피했을까?) 영준은 벌써 수십번 이렇게 묻고 대답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역시 똑똑한 대답은 찾지 못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제는 웁은 대답을 찾기전에는 떠날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움쭉 일어서 트렁크앞으로 다가갔다. 붉은 천에 정히 짙은 훈장과 메달판들이 보였다. 그러자 그는 어제저녁 황홀한 눈으로 자기를 올려다보던 처녀의 순진한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를 만나보고싶었다.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무엇인가 똑똑한 대답을 찾을수 있을것 같았다. 그러면 마음도 가벼워질것이다.

부랴부랴 방안을 정돈하고 문밖으로 나서던 영준은 바깥벽에 붙여놓은 신문통에 편지가 한장 삐죽이 꽃혀있는것을 보았다. 자기앞으로 온것이였다. 그는 얼른 편지를 꺼내어 보낸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리경민》이라는 세글자가 보였다. 그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기다리던 편지였다. 다시 방안으로 들어온 그는 속지를 뿔아 펼쳤다.

옆으로 비껴쓴 낫익은 글씨가 한눈에 안겨왔다.

《영준이!

나는 어제 너와 함께 떠났다가 두달전에 먼저 돌아온 그 친구를 만났고 네가 보낸 편지도 받았다. 진정 나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너에 대한 그리움을 금할수 없었고 너와 같은 훌륭한 친구를 가진 행복에 대하여 가슴부풀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넌 그사이 아주 굉장한 성공을 하였다지. 진심으로 축하한다.

영준이, 어제 나는 네 편지를 받고 우리 둘이 마지막으로 론쟁을 하던 대동강유보도에 나가 두시간나마 앉아있었다. 너도 기억하고있겠지만 그때는 모든것이 얼어붙고 눈에 덮여 한적하게만 보였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푸르고 맑은 강물이 유보도 충계를 잠그며 짙차흐르고 갖가지 꽃들이 활짝 핀 소로길로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마음껏 삶을 누리며 한가롭게 거닐고있다. 그리고 우리또래의 유쾌한 친구들은 강안이 들쭉하게 노래를 부르며 배놀이를 하고… 그야말로 멋진 생활이 펼쳐지고있다.

하지만 그 생활을 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밝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 네가 몹시 그리웠다. 왜냐 하면 네가 만약 옆에 있었다면 요즘 내가 겪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을것이고 앞으로의 내 생활계획에 대해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고무적인 말을 해주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영준이, 최근에 와서 나는 기계공학연구소에서 나왔다. 무슨 일인가구?… 글쎄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나라는 <배아령>이 기계공학이라는 <축>에 잘 맞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다. 물론 처음에는 부정도 하고 변명도 해보았지.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친분이라는것이 부족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고민하였고 오랜 기간 일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한마디로 애착이 없는 생활이 흘러갔지. 영준이, 넌 아마 그 생활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긋지긋한지 리해하지 못할거야. 그런데 또 얼마전에는 내가 속해있는 연구실의 전체 성원들이 장기간 지방에 나가 연구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문제를 삼촌과 진지하게 토의하였고 대답하게 희망을 바꿀바에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내가 이곳을 떠나기 싫어 그런다구 비난하더구나. 그러나 나는 그들을 나쁘게 생각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도 이제 나를 리해할 때가 있을테니까.

영준이, 너도 이제 곧 돌아온다지. 어서 돌아오라. 무엇보다 때문에 그곳에 계속 남아있겠니. 솔직히 말하여 나는 지금 네가 몹시 부럽다. 그대 만약 나도 너처럼 그곳으로 갔다면 오늘 네가 받아안은 것과 같은 그런 자격, 아니 밀천이지... 그런 든든한 밀천을 가지고 웃으며 돌아올게 아니냐. 털어놓고 말하면 지금 네앞에는우리 사회의 모든 길이 다 활짝 열려있다. 대학이면 대학, 출세면 출세... 그러니 너는 어서 돌아와 네 리상과 청춘시절을 바쳐얻은 그 귀중한 밀천을 마음껏 써먹어야 한다. 그런다구 너를 욕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모두가 축복하고 부러워할게다...》

영준은 편지를 놓았다. 더 읽기가 무서웠다. 마치도 편지가 아니라 거울을 쳐다보는것 같았다.

읽을수록 자신이 드러나는듯싶었다.(그렇다. 이것은 나다. 틀림없는 나다. 내가 방금전까지 생각하고있는것을 경민이가 말했을뿐이다.)

그제야 영준은 자기가 최근 이 몇달동안 돌격대생활을 지루하게 느끼고 더우기 한달전, 대학추천을 받던 날에는 런대장을 만나《이젠 가도 되지요 뭐...》라고 스스럼없이 말한 그 밑바닥에 얼마나 위험하고 너절한것이 깔려있었는가를 소스라치듯 놀라며 깨달았다. (너절하다. 너야말로 너절한놈이다.) 그는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밀물처럼 쓸어드는 허탈감에 온몸이 나른해졌다.

지나간 나날들이 생각되었다. 돌격대에 나오던 일이며 눈무지를 헤치고 첫 발파구멍을 뚫던 일이며 모든것이 일시에 되살아났다. (그럼 네가 그때 그 어떤 밀천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고 우리결을 떠나간 그들이 한갓 경력이나 자격을 얻자고 그런 위험속에 뛰어들었던말이나? ...)비로소 영준은 지난밤 처녀의 질문에 대답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처녀의 얼굴이 다시금 보였다. (그렇다. 너는 그들을 속였다. 6년전 경민이가 너를 속였던것처럼 오늘은 네가 그들과 자신을 속였다.)

영준은 넋잃은 사람처럼 모태기며 앉아있었다. ...

이야기는 끝났다. 영준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날 나는 그것이 단순히 내가 대학에 가고 안가거나 또 돌격대에 다시 남거나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내 인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잘 아시는것처럼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나라에 수백명의 영웅이 있었지만 자기가 영웅이라고 당앞에 손을 내민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영준은 빙긋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잠시후 내가 물었다. 《회답은 했소?》 《예, 땅에다 발을 쫓 붙이라고 써보냈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쓸쓸히 대답하는 영준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다.

나는 실망했다. 경민이보다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더 한심했다. 뒤산에서 뻐꾹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뻐꾹 뻐꾹...》구성진 그 소리는 산골의 정서를 한층 더 짙게 해주었다.

×

《손님, 행군대들이 왔어요.》라는 말소리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관리원아주머니가 내앞에 와 서있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안왔구만요.》

《예?...》

나는 실망했다. 다리맥이 풀렸다. 《뻐스가 떠나기전에 웬 동무를 만났다는데... 집주소를 적어놓고 가세요. 내가 꼭 보내지요.》아주머니가 딱해하였다.

《아니, 제가 래일아침 다시 오지요.》나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아쉬운 마음으로 려관을 나선 나는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거리에는 어느덧 푸르스름한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서쪽하늘에서 뿌러지는 마지막 해빛이 아쁘트창문들에 빨간 모닥불을 피워놓았다.

(누구를 만났을까? 혹시 경민이를 만나지 않았을가. 그럴수 있다. 틀림없이 경민이일것이다.)

웬일인지 나는 무작정 그렇게 믿고싶었다. 그러자 경민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있는지 몹시 궁금했다.

뻐스정류소가 보였다. 이때였다. 나는 등뒤로 급히 달려오는 쿵쿵거리는 발자욱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짜릿해났다.

저도 모르게 걸음이 멎어졌다. 순간 그와 동시에 《선생님!》하고 터져오르는 기쁨을 억제하는듯한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섰다. 영준이었다. 《영준이!》우리는 와락 부둥켜안았다. 길가던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았다.

그래도 좋았다. 《어서 갑시다.》...

우리는 려관 휴게실에 올라가 앉아서도 한동안 마주보고만 있었다. 무슨 말부터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세련된 믿음직한 젊은이였다. 그래도 웃을때마다 그 매력있는 보조개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영준동문 이번 행군에 돌격대대표로 참가했구만. 대단하요.》

《예. 전 정말 뜻밖입니다.》영준은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지난밤에 있는 일을 돌이켜보는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지난밤 누구와 같이 걸었는지 압니까... 전 지난밤 어려서부터 회상기를 통해서 그 이름을 잘 아는 한 항일투사동지와 같이 팔을 끼고 걸었습니다. 물론 그 투사동지는 제가 누구라는걸 몰랐고 우린 또 서로 별로 특별한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렬이 개선문을 출발할 때 투사동지께 제 팔을 끼며<자, 우리 서로 팔을 끼고 건자우. 그래야 줄을 잘 맞추지.>라고 말했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그 말을 하는

투사동지의 눈에 눈물이 펑 고여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전, 정말 그 눈물을 보는 순간...》영준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전 불빛에 번쩍거리는 투사동지의 그 눈물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그분들의 부탁을 들었구 바로 투사동지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내가 일생 걸어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막 터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흥분하고있었다. 나 역시 같았다. 담배갑을 집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영준이가 라이타를 켰다. 푸른 담배연기가 머리로 떠올랐다.

《선생님...》 흥분을 가라앉히듯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던 영준이가 침울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런데 전 오늘... 저로선 도대체 리해할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전 지금 경민이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경민이를?...》 나는 내 짐작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그를 만난 전 정말 반가왔습니다. 친구가 아닙니까. 그도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희고 반듯한 얼굴에 사قم성있는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짹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그 무엇을 찾는듯한 눈으로 저의 아래우를 훑어보고는 가볍게 웃더군요. 뭐라고 딱히 짚어 말할수 없는 야릇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전 그 웃음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있는지 그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옷차림을 봐서야 알수 없지 않습니까. 넥타일 매구 선생님과 같이 깃이 달린 이런 밤색 외투를 입고... 그래 나는 물었습니다. <난 지금 어떻게 사니?... 난 그걸 몹시 알고싶었다.> <나?... 난 그저 평범하게 살지.>

경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더니 <난 네 일이 참 답답하다. 이제 뭘 더 바랄게 있다구 거기 계속 가있니?... 지금도 그 량심이니 리상이니 하는것때문에 그러나. 그런건 다 교과서에나 있는거야. 어쨌든 건 그렇구 오래간만인데 청류관에나 가보자. 난 아직 못가봤지?... 핑장해.>라고 청하더군요. 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래? ... 가자> 경민이가 다시 말했으나 전 여전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럼 기왕 올라왔던바에 내 고향식에나 참가하고 가려마.>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나는 놀랐습니다.

글쎄 그가 지금 몇살입니까. 이자 겨우 스물다섯이 되나마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경민은 저도 좀 어색한지 <너자때문에 그래. 다른 나라

에 무역대표부 성원으로 나가있는 사람의 딸인데 처녀가 문수거리에 세칸짜리 집을 혼자 가지고있거던...>라고 변명하더군요.

그러면서도 그는 아주 만족한듯<앞으로 걱정은 없을것 같애.>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전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있는지 똑똑히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왔습니다. 아니 전 격분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더우기 그의 입에서 수도에 건설된 청류관이나 문수거리 이름이 불리워질 땐 심한 모욕감과 함께 우리가 바치는 량심과 땀방울이 통락당하는것같아 도저히 마주서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전 모든걸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웁은 말이다. 그의 말을 듣는 나의 눈앞에는 거리에서 만난 두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대조적인 두사람인가!

나는 지난밤 화불행진에 참가한 영준의 모습을 방금 보는데싶었다.

어둠을 밀어내며 굵이치던 불의 흐름, 그 흐름의 앞장에서 걸어가는 영준이, 그의 림름한 모습을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걷는 항일투사...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수십만의 유명무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시각 경민이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였을가?...>

나는 구태여 더 알고싶지도 않았다. 무엇을 하였던지 그것은 자기를 위한 목전의 안일과 향락을 위한 일이었을것이다.

잠시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는 벌써 푸르고 붉은 장식등들이 환히 켜있었다. 수도의 밤거리는 무척 아름다웠다. 나는 옆에서 걷고있는 영준이를 눈여겨보았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가. 그는 나보다 15년은 더 어리다. 그러나 그야말로 나와 우리모두의 존경을 받아야 할 가장 훌륭한 인간이 아닌가. 이런 훌륭한 동시대인들과 사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또 그들을 낳은 우리 시대에 대하여 생각했다. 우리는 수도의 밤거리를 오래도록 걸었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그와 나는 헤어졌다. 아쉬운 마음으로 걷는 내앞으로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갔다. 웃고 떠들며 가는 그들, 그들을 보는 나는 문득 아까 낮에 영화관으로 달려가던 청년들이 기억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그들과 저들 속에는 경민이처럼 사는 청년은 없는지... 나는 한사람이라도 그런 청년이 더 없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멀리 인민대학 습당쪽에서 시계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당의 부름이라면

강명복

그 무슨 희소식을 급히 전하러는듯 흰갈기 높이 날리며 기슭으로 기슭으로 달려오는 생각많은 동해선을 따라 렬차는 전속으로 달리고있었다.

렬차안의 길손들은 저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차창가를 향해 비껴오는 동해의 일경에 눈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화폭과 그 세계에 끌려들어서는 길손들!

바로 그렇게 도가들과 가까이는 할수 있을까?...

생각도 하며 자책도 하며 나는 책을 펼쳐들었다. 유독 문학잡지에만 머리를 다소곳이 파묻고 있는 나를 던지시 바라보던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사나이가 말을 건넸었다.

《책을 몹시 좋아합니다. 렬차에서야 펼쳐지는 조국의 풍경을 보는이상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대로 생각을 주는 저 바다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런 기회에 보지 않으면 언제 보겠습니까.》

처음보는 길손이지만 감성적이고도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인차 좋은 길동무로 친숙해질수 있었다.

《어데까지 갑니까?》

《룡양까지 갑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그 방향으로 취재차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갑시다. 듣건데 백금산에서 혁신적인 일이 많이 창조되고있다는데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왜 좋은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린점인 동암광산에 가면 김동연 굴진소대장이 있는데 좋은 취재대상으로 될겁니다. 우리 광산에 있을때도 일을 잘했는데 그곳에 갔어도 기동소대장으로 일을 본때있게 해제끼고 있습니다.》

뜻밖이었다.

자기네 광산도 아닌 린점광산을 소개해주다니...

하여튼 심산속에 피어난 깨끗한 꽃과 같이 아름다운 숨은 혁신자를 찾았으니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진정에 넘친 그의 말을 믿고 출장길의 도중역인 동암역에서 내리기로 결심하였다.

혁신자! 숨은 혁신자!

이에 나의 흥분이 그처럼 컸겠지만 그보다도 이곳을 여러번 지나다니면서도 자그마한 린광산이라고 이렇듯 숨은 혁신자를 찾지 못한 자책감에도 있었거니와 어떻게 되어 이 소대는 남달리 계획을 자신만만히 수행해나가고있을까?

그 소대내에 흐르고있는 정신적힘의 기초는 무엇일까?

평범한 광산에서 평범한 사람들속에서 소문없이 피어나고있는 혁신과 기적의 아름다운 그 세계에 들어서고싶어 나는 렬차의 차창이 아닌 마음의 밝은 창을 향해 다가서고있었다.

광산마을에 들어서니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광산속보관 한중심에 김동연소대의 자랑이 소개되어있었다.

렬차안에서 들려주던 룡양광부의 말이 옳았다.

광산당위원회의 안내를 받아 그가 일하는 굴진갱을 찾았다. 때마침 김동연소대장은 현장에 들어가 없었고 경부문당비서 류병수동무가 있어 그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한다미로 일을 잘합니다. 단 하년도 계획을 수행못한 때가 없습니다. 특히 뜻깊은 올해에는 3개월이상이나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습니다.》

광산에서 중요시하였던 4호락광정을 개척한 이야기만을 들어도 김동연소대에 대해 잘 알수가 있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광이나 광산에서 굴진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광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참모부에서는 생산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해 4호락광정을 건설하여 로천채굴장의 쇠돌운반문제를 풀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았다.

이것이 해결되면 30 여리의 먼 수송거리를 350미터 락광정을 통해 짧은 거리에서 운반하게 되는것이다.

수직갱 350미터!

의의있는것만큼 험치 않은 일이었다.

언제인가 당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이 그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자신이 있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에서 우리를 믿고 준 일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힘은 들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수행하겠습니다.》

일은 예상외로 힘들었다.

처음해보는 일인데다 봉락이 때없이 앞을 막아나서 시간적으로 로력적으로 너무도 타산이 서지 않았다.

당조직앞에서 다진 결의를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주저앉고말겠는가. 조바심에 안타까왔고 전진하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

그날밤 김동연동무는 밤이 깊도록 달밝은 창가에서 생각을 굴리었다.

마침 그는 언제인가 영화에서 본 우물에 대해 생각했다. 문득 우물 《정》 자형 동발방법이 떠올랐다.

다음날 그렇게 해보니 힘은 겨웠어도 좋은 방도로는 되었다.

동발문제는 풀렸으나 한회전에 1메터이상이나 천공을 해가지고는 힘들게 세워가는 동발작업이 너무도 힘이 많이 먹었다. 4 메터이상의 천공을 해보자!

대담하게 생각하고 해보았다. 기술적으로 힘은 들었으나 반복하는 과정에 익숙되었다. 결국 2 교대이상분을 더 얻은셈이었다.

이렇게 되어 10 메터, 20 메터 톨아오르기 시작했다.

125 메터 올랐을 때였다. 10 메터 봉락으로 앞길이 막혔다.

일부 일꾼들은 모험하지 말고 이제라도 그만두자는 것이었다.

김동언동무만은 드림이 없었다.

《우리는 계절조처럼 살수 없소. 조건이 유리할때는 웃으며 전진하고 분리할 때는 울며 주저앉는다면 그것이 무슨 전사의 자세이겠는가. 사나운 눈보라 험한 진펄길을 헤쳐넘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자!》

진정에 넘친 김동언소대장의 호소에 소대는 일떠섰다. 수직사다리로 레우며 동발목이 어깨와 어깨를 거쳐 한치한치 오르기 시작했다.

뒤를 이어 온 광산이 따라섰다.

봉락구간은 이런속에서 극복되고 기적과 혁신은 이런 불같은 심장파와 심장들에 의해 창조되었다.

4 호락광정은 이렇게 개척되었다.

이런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투쟁속에 올해계획을 그처럼 힘든 조건에서도 수개월이나 앞당겨 수행할수 있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바다와 같은 무한한 힘과 열정으로 차넘치는 김동언소대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미더운 주인공들을 만나고싶은 강렬한 충동에 인차 나온다는 인차를 앞서는 흥분을 안은채 더 기다릴수 없어 류병수비서와 함께 간데라의 불빛을 따라 입장의 발걸음을 내짚었다.

1000 메터, 2000 메터 들어갈수록 굴진공들의 웅심깊은 마음속처럼 끝간데를 모르게 갭은 깊고 도 곤게 뻗어있고 이따금 천정에서 툭랑툭랑 떨어지는 물방울이 조용한 갭의 정적을 깨뜨리곤했다.

4000 메터 거의 들어가서야 제 세계이기나 한듯 배불뚝이 압축기가 가로세로 뻗어간 관들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노라고 쿵-쿵 돌아가고 어데서인가 반갑다 화답하는듯 따르릉 따르릉 착암기의 정대도는 소리가 더한층 나의 발목을 끌어당기었다.

생각도 할사이없이 쇠돌차량을 길게 단 전차가

불꽃을 날리며 마주오고있었다.

《저 쇠돌이 바로 4 호락광정에서 나오는 로천갱의 쇠돌들입니다.》 류병수동무는 공지에 넘쳐이 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자동차로 삭도로 30 여리를 수송하던 로천채굴장의 쇠돌을 350 메터의 락광정으로 해결!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즐거운 생각속에 어느덧 4 호락광정에 다달았다.

김동언소대의 현장에 가기 앞서 그들이 개척한 4 호락광정을 보기 위해 나는 조구를 에돌아놓은 4 개의 수직사다리를 톨아올랐다. 한창 쇠돌이 사태쳐 내려오고있어 올라다볼수가 없었다.

그 높이는 가늠해볼상이었으나 큰 은을 내고있는 모습을 보니 예까지 올라온 보람이 더 컸었다. 빈몸으로 사다리를 톨았으나 얼마나 수직이었던지 이마와 손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었다.

이런 사다리로 동발목이며 폭약을 메고 올랐을 굴진공들의 뜨거운 숨결과 체온을 느껴보노라니 가슴이 찢어터졌다.

다치면 터질듯이

토실토실한 알찬 열매

기쁨으로 일렁대는 황금빛 바다를

환희와 격동에 설레는 마음 안고

흐뭇이 바라보는 농장원들이여

생각하시라

린광산 광부들도 다름아닌

만풍년의 주인공들임을!

광부들에 대한 감사의 정에 이끌리어 어느새 김동언소대의 막장에 들어섰다.

반나절이 다 기울어오는 시간이었으나 들끓고있는 현장에서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얼마 안남은 천공구역을 좁혀가고있었다.

《수고들합니다.》

인사를 하는 저에게로 다가온 김동언소대장은 친절히 맞아주는 것이었다.

《먼길을 오기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소대장동무, 이러지 마십시오. 수고가 뭐 있겠습니까. 일잘하는 동무들을 만나니 그저 기쁘기만 하고 새힘이 다 납니다. 어서 좋은 경험담이나 들려주십시오.》

《저한테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얼마 안가면 이름난 광산도 있고 또 혁신자들도 많은데 찾아주어 감사합니다. 생각하고있는바를 그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우리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믿음과 공지로 새겨안고 일하곤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풀렸습니다. 당에서는 주는 과업이 크면클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더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믿어주는것만큼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의 부름이라면 <그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철

석같은 각오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대내에 흐르고있는 혁명적신념이라 할가 아니면 한일없이 사랑만을 받아안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 기쁜 일을 찾는 자식된 도리라 할가, 이렇게 늘 생각하며 일하니 어려워도 곤란해도 실천해가는 과정에 방도도 나서고 대담성도 나오고 따라서 힘들다고 생각하던 일도 보람있는 일로 되지요. 이런 일쯤이야 어디엔들 없겠습니까.》

《소대장동무! 오늘 참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들을 거두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으나 교대전 시간이 다 되어와서 인사의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기었다.

갱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줄 모른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감명깊은 이야기로 시간 가는줄을 몰라보긴 처음이었다.

인차에 올랐으나 마음은 김동연동무에 대한 강한 인상으로 하여 그에게 가있었다.

하늘의 별도 따울수 있는 대담성과 결패성, 진절길도 웃으며 뛰어들 희생성의 주인공!

그는 아마도 키는 장대하고 성격은 과격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만나고보니 생각외로 아주 체소하였고 가름한 얼굴에 항상 웃는듯한 정기어린 눈으로 하여 녀성적인데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가 해제끼는 일은 얼마나 기적적이고

또 혁신적인것인가?!

그 힘! 그 비결은 어디 있는가?

나는 생각한다.

당의 부름이라면 곧 믿음으로, 공지로, 그것으로 하여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그 정신적힘이라고...

나는 또 생각한다.

기적과 혁신의 전제!

그것은 순간의 위훈적계기속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오래동안 높뛰는 심장으로 가꾸어진 아름다운 삶의 지향이며 기적과 혁신은 그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만이 한두번의 계기에 의해 피어나는 꽃과 같은것이 아니되고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항시적으로 피어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혁신자,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될것이다.

기적과 혁신!

그것은 그 주인공들의 그대로의 마음의 반사이기도 한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에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인차는 갱밖을 나서고있었다.

갱밖을 나서니 레사롭게만 보이던 단풍나무 잎새들도 오늘날만은 굴진공들의 충성에 타는 마음인듯 뜻깊은 불씨를 이 가슴에 지퍼줄듯 빨강계 타고있었다. 그 아름다운 단풍숲을 어루만지며 눈이 시도록 파사로이 비치는 태양의 해빛은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있었다.

속담풀이

·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

작은 소비나 손실은 첫눈에 띄지 않으나 그것도 쌓이고쌓이면 무시할수 없는 큰것으로 됨을 경계하는 말이다.

· 가까운데 집은 짝이고 먼데 절은 비친다.

(낯은 사회에서)가까운데 있는 집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고 먼곳에 바라보이는 절은 황홀해보인다는 말로서 좋은 사람들이라도 늘 접촉하면 그 진가를 알지 못하고 그 반대로 멀리있는 사람은 직접 잘 모르면서도 과대평가하기 쉽다는 말이다.

· 가시내가 오랍아하면 머시매도 오랍아한다.

자기 주견이 없이 덩달아 행동하는자를 웃는 말이다.

《가시내》는 《가시나》로서 《너자》를, 《오랍》은 오빠를, 《머시매》는 《머시마》로서 《남자》를 나타내는 사투리이다.

· 가을에 못지낸 제사를 봄에 지낼가.

풍성할 때 못한것을 궁할 때 감히 하겠는가 하

는뜻이다.

· 감나무밑에 누워도 샷갓미사리를 대여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미사리는 샷갓의 둥근 테두리다.

· 강물도 쓰면 준다.

풍부하다 하여 함부로 낭비하는것을 삼가하라는 뜻이다.

· 강물도 오래 흐르면 바위구멍을 뚫는다.

어떤 일이나 꾸준히계 한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말이다.

· 강한 장수에게는 약한 군사가 없다.

지휘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 겨울이 다 되어야 술이 푸른줄 안다.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사람의 진가를 알수 있다는 말이다.

· 고기보고 기뻐하지 말고 가서 그물을 뜨라.

무슨 일이나 구체적준비와 노력이 있어야만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말이다.

밤나무골에서 외 1 편

서진명

하늘 맑고
새들 우짖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린가
하늘에 꼭 달은 원한
세월가도 가실수 없어
화산처럼 울분을 터치는 소리

나는 분명 듣는다
엄마 품에서 떨어져
서리 불린 콩크리트창고안에
《죄인》처럼 갇혀있던
어린이들의 울음소리

아, 가슴을 꿰인다
젖내나는 어린것들을
피롭힐대로 피롭히고
종당에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까지 지른
야수 미제의 몸서리치는 만행을 고발하는
102 어린이들의 그 피울음소리

고사리같은 손이 모지라지도록
담벽을 허비여도
불길속에서 벗어날수 없었구나

발돋움해도
살창문이 너무 높아
한조각 푸른 하늘도 안고가지 못한 아이들

사랑만을 알던 몸을
강그리 증오로 불태워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땅과 하늘
무심한 산촌도 분노로 치떨게 한 그 울음소리
세월이 흐른다고 잊어질것인가

아, 고사리같은 그 손으로
티없이 맑은 그 눈망울로
죽음으로 불의를 절규하는 그 울음소리로
오늘도 살아있는 아이들아

해맑은 날에도 우리를 부르는
신천의 밤나무골
한시도 용납해줄수 없는
미제를 징벌하는 서리찬 말로
이 땅 이 하늘을 짝 채우며
복수를 부르는 밤나무골이어

신천의 어린 동무야

-한 소년이 남겨놓은 소년단휘장을 보고-

포연 가시고
해빛밝은 아침이 오면
앞가슴에 그 휘장을 달고
학교로 가려고
너 그리도 소중히
품속에 간직했더나

갓 돌아난 연록색 새싹이
무참히 발길에 짓밟히듯
간악한 놈들에게 악형을 당하면서도
별빛눈동자처럼 순겨라하게
소년단휘장을 지켜낸
신천의 어린 동무야

그 소년단휘장을
앞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못다 배운 우리 글을 배우고

못다 부른 행복의 노래 부르려 했던
너의 그 믿음 그 열망을
앗아간자 누구냐

아, 가없는 하늘가에
그 푸른 꿈 활짝 퍼지도 못한채
몸은 갇어도 그 휘장을 달고
오늘도 우리앞에 서있는 소년아

이 나라 모든 아이들에게
너는 말해주고있구나
철들기에 앞서 증오를 배우라고
소년단휘장을 가슴에 달고 다녀도
미제야수들앞에서는
누구나 어른
서슬푸른 총창 틀어쥔
복수자가 되라고...

꽃을 피운다

리상식

참모회의는 날이 어두워져야 끝났다.

작업반장 덕준이와 혁명소조원 진옥은 나란히 서서 걸었다. 그들은 퍼그나 오래 걸으면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한마디 없었다. 진옥은 석달전에 소조원으로 배치되어왔다.

보폭이 서로 다른 걸음을 옮겨짚을 때마다 발 밑에서 빠드득빠드득 눈뚫히는 소리가 아츠럽게 신경을 자극했다.

경칩이면 개구리 입 떨어진다는 말도 괜한 소리다. 우수고개를 넘어선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다. 절기가 로망을 하는지 여덟째일이 들이닥친 강추위가 우수경칩의 잘못된 허리를 딱 물고늘어져서 통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수원의 전면적에 시급히 농약을 뿌릴데 대한 추가지령을 놓고 토의가 있었다. 올해처럼 변덕이 심한 때에 과일나무들이 동상을 입을수 있다.

《호수들이 얼었겠지요?》

진옥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할게 있소. 덩강덩강 할텐데...》

덕준이도 여태 그 생각을 해온듯 인차 말을 받았다.

심술쟁이 칼바람이 땡땡 언 얼굴에 눈가루를 한줌 획 집어뿌리고 휘파람을 회회 불면서 달아난다.

굵인돌이를 돌아서니 저기 불빛이 환한 작업반 선전실에서 노래소리가 들썩하게 울리었다.

(아직 헤어지지 않았구나...)

진옥은 불빛밝은 선전실에 모여있을 작업반원들을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듯했다. 한시라도 빨리 그들에게 긴급한 과제를 알려주고 함께 의논해보면 무슨 방도가 설것만 같았다.

어둠속에 누군가 불빛을 등지고 마주오다가 얼른 길을 피해서 옆을 스치고 지나간다. 솜동복앞자락을 헤쳐놓고 활개질을 하는 걸음새가 명관이라는것을 눈근곁에도 인차 알아볼수 있었다. 그런데 명관은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했는데 건성으로나마 말한마디 없이 지나가는것이 진옥에게는 어딘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반장동지, 거 명관동무가 만드는 기계 있지 않아요?》

《땅파는 기계말이요?》

《잘 좀 물어주자요.》

《밀어주질 않아서 안되는것 같소?》

덕준은 무뚝뚝하게 한마디 툭 내뱉고는 그저

발걸음만 부지런히 옮겨놓을뿐이었다.

《그래두 열정이 있는 동무갈터군요.》

《제 마음이 내키면야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지요. 그러나 이제 나도 손을 바짝 들었수다.》

덕준은 명관에 대해서는 말도 말라는듯 머리우에 손을 들어 내흔들다가 진옥이쪽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말했다.

《하여튼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봅시다.》

고집불통이라더니 정말 이가 들지 않았다. 진옥은 한참동안 말없이 발끝만 내려다보며 걷다가 또 입을 열었다.

《우리도 선전실에나 가봅시다.》

《나야 뭐...》

덕준은 무슨 말인가 더 할듯 주뼉거리더니 정작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뺑소니를 치듯 집쪽으로 발길을 돌려버렸다..

덕준은 저녁상앞에 마주앉아서도 줄곧 답답하게 짓누르는 무거운 생각에서 헤어날수가 없었다.

과일나무에 농약을 뿌리자면 지금 마감고비에 들어선 가지자르기를 단 하루라도 앞당겨야 할텐데 오늘처럼 땡땡 날씨에 나무우에서 하는 일을 더 조일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제 땅만 풀리면 제일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밀거름주기작업을 따라세워야 한다. 더구나 올해는 작년에 미달해서 안고넘어온 두정보의 밀거름주기작업을 더 해야 할텐데 거기에만도 적지 않은 로력을 밀어넣어야 한다. 덕준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로력타산을 맞출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로력이라는게 또 말이 아니었다. 지난달에 농장에서는 한해 농사를 총화하고 일부 로력을 조절할 때 덕준이네 작업반에서 기둥그루같은 로력을 셋이나 뽑아갔다. 기술부반장이 다른 작업반의 반장으로 임명되어가고 그대신 지금 군당학교 제작반에서 공부하는 동무가 부반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애송이들을 빈자리에 메꿔주었다.

덕준은 생각할수록 골머리가 아프고 조바심이 더해갔다.

《하늘소에 짐을 실어두 다리깡일 봐가며 실으렷다구, 이거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손가락을 손에 든채 한참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덕준은 왁살스럽게 밥술을 뜨면서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었다.

아들과와 함께 그림책을 들여다보고있던 안해가 머리를 들고 불안과 의혹이 실린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인차 말을 받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은 무슨 일... 일을 많이 하자는거지.》

밥상옆에 새로 받은 지령서를 펴놓고 들여다보는 덕준의 입에서는 또 《야단났군.》 하는 소리가 한숨소리와 함께 새어나왔다.

남편의 숨소리만 듣고도 그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안해였으나 그는 지금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듯 파장된 목소리로 아들에게 그림책을 설명해주고있었다.

《이건 불도-젤, 프락포르가 안야, 불도젤이라니까.》

《그래두 이게 췌다. 통통통통...》

《그래 힘장수란다. 땅을 파서 그저 냇다 밀어내는것밖에 모르지... 너의 아버지가 래일부턴 또 불도젤이 될게다.》

《잘두 가르쳐준다. 애한테.》

덕준은 손가락에 밥을 퍼든채 안해쪽을 찰 흘려보면서 툭 내쏘았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이 귀머거리도젤이래요.》

《뭐-요?》

《고집불통이 돼서 남의 말은 귀등으로도 안듣고 그저 욱욱 내밀기만 하지요.》

《모여앉아 쓸데없는 소리 말구 일들이나 잘하오.》

《그것보라요. 집안에서까지 남의 말이야 듣나요.》

덕준의 안해는 안타까운 눈길로 남편의 얼굴을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집안에 들어와선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작업반에 나가서만은 사람들앞에서 껌껌 고구 화를 내구 그러지 말아요. 정말 남보기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덕준은 안해의 간절한 말도 들은듯만듯 덤덤한 얼굴로 지령서만 들여다보다가 성냥을 두 그어서 담배를 한대 붙여물었다. 하지만 덕준의 안해는 남편이 아닌보살하고있으면서도 지금 자기의 말을 다 듣고있다는것을 알고 다시 입을 열었다.

《소조원동무를 좀 보라요. 언제 한번 얼굴을 붉히는것 봤어요? 그저 한본새대로 웃는 얼굴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몰라요.》

《작업반장이 돼보지. 속에 재가루가 앉는 판인데 웃음이 나와?》

덕준은 이렇게 툭 한마디 내쏘았지만 무엇인가 속에 묵직한것이 뻗어서 내려가지 않았다.

얼마전에 소조원이 설계도면두루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었다. 그것은 거름구덩이 파는

기계의 설계도면이었다. 파수기계공장에 파견된 혁명소조에 부탁해서 가져온 도면이라고 했다. 덕준은 그 기계가 련속식 땅파는 기계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언젠가 서해지구 파수농장 작업반장들의 방식상학에 참가했을 때 이런 기계로 거름구덩이 파는것을 보았었다. 그때 강사는 3-4분동안에 한구덩이씩 판다고 설명하였으나 덕준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것 같지 않았다. 프락포르에 련결된 금영금 기여나가는것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석지레땅 경사지가 많은 자기네 작업반 형편을 두고 속으로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른다.

지난 가을 명판이가 타래식 땅파는 기계를 만들때 덕준은 거기에 큰 기대를 걸었었다.

어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농촌의 종합적기계화 방침을 실현할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덕준은 작업조직에 혼란이 생기는것도 꼭 참고 기계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가 결국 쓰거운 판괘를 보고말았다. 돌투성이 12 호원에 들이밀었던 기계가 나중에는 날개마저 부러지는바람에 덕준은 분통이 터져서 일에 밀진 분풀이를 명판에게 들썩었다. 생각할수록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애는 애대로 썼지만 시비계획도 두정보나 미달했다. 때를 놓치고말았으니 밀진 일을 회복할수도 없었다. 《허풍선이기계》를 당장 들어내라고 호통을 치면서도 덕준은 그때 속으로 이 련속식 땅파는 기계를 생각했지만 명판의 허파에 또 바람이나 불어넣어주게 될것 같아서 그런 말은 입밖에 비치지도 않았었다...

소조원은 날개의 경사각도만 좀 개조하면 아무리 굳은 석비레땅도 쉽게 깎아낼수 있다고 손세를 써가며 설명하는것이였다.

《연필을 깎을 때 칼날을 이렇게 눕히면 잘 깎아지지 않나요. 리치는 같은거예요.》

덕준은 충분히 리해가 되였다. 가슴속에서 폄지락거리던 호기심에 확 불이 당기였다.

《합시다. 명판이한테 과업을 주면 해낼거요. 틀림없다니까요.》

《됐어요. 반장동지가 결심이 섰으니 이제 됐어요. 어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우리들도 비료주는것을 기계화할수 있을거예요.》

진옥은 빨갭게 상기된 얼굴로 환희에 차서 부르짖었다.

《걱정놓으시오. 꼭 된다니까... 두고보시오.》

덕준이도 장담하고 나섰다.

이튿날 덕준은 명판이를 만났다. 그런데 그는 단마디로 거절하는것이였다.

《또 <허풍선이>감투나 쓰자구요.》

덕준은 뿌루통해 앉아있는 명판이앞에 제손으로 도면을 펴놓고 진옥이가 설명해주던대로 손세를 써가며 리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명판은 귀담

아 듣는것 같지도 않았다. 덕준은 뺨이 울컥 났다.

《못하긴 왜 못하겠다는거야?!》

《310 베이킹을 어데서 구해옵니까? 그것도 돌썩이나...》

《그건 내가 해결해주면 될게 아니야.》

《한번 보지도 못한 기계가 그렇게 쉽습니까. 정 하라면 합시다. 한 열흘쯤 시간을 뚝 떼주십시오.》

《그거야 안하겠다는 소리지 뭐야? 지금이 어느때라구 프락포트를 세워?》

《그래서 못한다지 않습니까.》

명관은 모자를 걷어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쯤되고보면 판세를 다 글러진 셈이다.

《안할테면 그만두라구, 동무가 안한다구 우리 작업반에서 기계화를 못할줄 알아?!》

덕준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썩 소리쳤다.

말발통같은 명관을 믿고 기계화가 다 된것처럼 기뻐했던 자기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다.

덕준은 입이 쓰거워서 명관앞에 다시는 기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후에 보니 명관이 그 낮익은 설계도면을 맡아쥐고 다니는 것이었다. 덕준은 눈이 쾅해졌으나 그저 모르는 척 해두었다. 진옥이가 설복한게 분명했다. 덕준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별로 말도 없이 암전하기만한 진옥이가 그 말발통같은 명관을 어떻게 후려잡았는지...

덕준의 안해는 그저 덤덤히 앉아 지령서만 들여다보고있는 남편의 얼굴을 원망스럽게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두고보라요. 앞으론 이 애까지 불도젤 아들이라고 불리우지 않나.》

《허참, 마지막엔 못하는 소리가 없군.》

덕준은 너무 어이없어서 입만 하 벌리고있다가 제풀에 허허 웃고말았다.

《승냥이나 가져오우.》

안해쪽은 보지도 않고 덩통스럽게 한마디 한 덕준은 밥상을 들어 옮기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래일부턴 정말 불도젤이 되야겠다. 별수 있나. 우썩우썩 내밀어야지...)

이튿날도 날씨는 풀리지 않았다. 덕준은 작업조직을 하기전에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들에 대해서 모가 나게 한바탕 펼쳐보이고나서 아직 뭐가 불만스러운지 받는 소처럼 머리를 수긋한채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창밖을 쏘아보고있었다. 술이 진한 두 눈썹사이에 세개의 주름살이 깊숙이 내리패웠다.

진옥은 지금 반장이 상당히 열이 올랐다는것을 감촉하였으나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것처럼 암전하게 앉아서 방바닥에 펴놓은 지령서만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고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20대 처녀의 예민한 감각으로 각이한 성격을 가진 매개 작업반원들의 마음속을 하나하나 깊이 더듬고있었다.

숨동복을 뚱뚱하게 끼입고 맨앞줄에 틀지게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은 약속이나 한듯 입들을 꼭 다물고 작업반장의 얼굴을 덤덤히 바라보고있다.

아주머니들을 방패삼아 그뒤에 병아리들처럼 한데 오구구 모여앉은 처녀들은 심상치 않은 작업반장의 얼굴을 할끔할끔 훑쳐보면서 조심스럽게 귀속말로 소곤거리고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향실이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아침 수리분조장한테 꼭 좀 들렀다오라고 부탁했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 같았다. 노래도 잘 부르지만 웃음이 너무 험프다고 명관한테서 이따금 통을 맞으면서도 어떻게 주물러놓곤하는지 명관이아 향실앞에서는 쪽을 못쓰곤하는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다. 그렇던 향실이의 얼굴에서 묘사이는 웃음이 가셔졌다. 향실은 며칠전에 작업반장과 명관이 사이에 언짢은 말이 오고갈 때 공연히 끼여들었다가 밤 터는 장때기에 걸가지 녹아나듯 말본전도 못찾고 억울한 욕만 먹었다. 그렇다고 명관을 바라보곤하는 향실의 짙은 눈길을 볼 때면 진옥이가 오히려 더 안타까와 견딜수 없었다.

어제저녁에도 명관은 향실이와 다투고 합숙으로 먼저 달아났다고 한다. 무엇때문에 다투었는지 향실이도 종시 입을 열지 않았다. 명관이아 새로 만들던 기계를 췌버렸다는것을 다른 동무들을 통해서 알았을뿐이었다.

진옥의 눈길은 명관한테로 쏠아갔다.

맨 뒤꽂무니에 올방자를 틀고앉은 명관은 이따금 창문에 눈가루를 몰아다 휘뿌리를 바람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드렁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면서 머리를 수긋하고 줄칼로 톱만 쓱쓱 쓸고있었다.

영큼한 명관의 얼굴만 보고서는 그가 지금 향실이의 일을 일을 알고있는지 모르고이썩지 도무지 알아맞힐 재간이 없었다.

진옥은 지금 덕준이가 자기의 얼굴을 흘끔흘끔 건너다보는것도 모르고 제생각에만 골몰히 빠져있었다.

이때 문이 방싹하게 열리더니 향실이아 눈바람을 안고 방안으로 냉큼 들어섰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향실한테로 쏠리었다.

작업반장의 얼굴과 향실의 얼굴을 번갈아보는 명관의 눈에 일순 랑패스러운 빛이 어리었다.

아닐세라 덕준은 다 보란듯이 팔을 훨썩 쳐들고 시계를 들여다본다.

《지금 몇시야?》

덕준의 말은 비록 크게 울리지 않았으나 푹 물어뜯는걸 보니 단단히 오금을 박을 잡도리다. 향실이는 가뜰이나 빨갛게 언 얼굴이 대뜸 파리빛

이 되어 잠시 선자리에서 주뭇거리다가 얼른 처녀들속으로 뛰어들어가 배기였다.

《내가 뭐 5분이 커서 잔소리를 하는게 아니요. 단 1분이래두 그렇지, 아침 출근하는걸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다 알수 있는거야.》

덕준은 저도 모르게 울컥 치밀어오르는 걱정을 꼭 누르면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진옥이한테로 슬그머니 눈길을 돌리었다. 이런 때 소조원으로서 한마디라도 짱 올려주면 정신들을 번쩍 차릴것 같은데 좀처럼 입을 열 기색이 아니었다.

언제 보나 웃음이 남실거리는 눈으로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꿰뚫어보는듯한 눈길로 작업반원들의 얼굴을 더듬고있을뿐이었다.

덕준은 그런 진옥이가 오히려 불만스러웠다. 이런 때일수록 소환되어간 기술반장 생각이 간절했다. 그는 땅바닥에 퍼놓은 지령서를 와락 다여다가 자기앞에 놓고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소리쳤다.

《정신들을 좀 차리자요. 이 지령서가 뭐 휴지장인줄 아오? 지령서란말이요. 명령서!》

덕준은 고개를 젖히고 방안을 둘러보다가 맨 뒤꽂무니에 앉은 명관이쪽을 넘겨다보면서 또 소리쳤다.

《거 톱같은거야 밤에두 얼마든지 쓸어놓을수 있지 않아. 그만큼 말했으면 좀 듣는척이라두 해야지, 아 그쪽에선 모여앉이 시시덕거리지만 말구...》

덕준은 속눈썹이 꺾끗해서 어느새 또 처녀들쪽을 내려보며 뭔가 더 말을 할듯하더니 그만두고 다땀을 한대 불어서 겹속이 들이빨았다가 후- 내 불었다. 가슴에 서렸던 화김을 그 담배 한모금에 싸서 다 뱉어버린듯 그는 저으기 목소리를 낮추어 다시 입을 열었다.

《뭐 나보구 귀머거리도젤이라구들 한다는데... 하여간 좋수다.》

이 말에 뒤구석에 앉았던 덕준의 안해가 불에 덴 사람처럼 와들 놀라 눈이 동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할것인 눈을 흘기면서 머리를 숙여버렸다. 덕준은 그것을 보는듯마는듯 제 말만 또 해냈다.

《귀머거리도젤이든 귀밝은 뜨락뜨르든 뽀라우. 오늘부터 내가 정말 불도젤이 되어야겠수다. 정신이 번쩍 들게 냅다밀어야겠단말이요.》

《어마나!》

누군이 일부러스럽게 어리광기가 짙은 목소리로 소리치는바람에 모두들 소리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와하하... 웃었다. 덕준이도 시물시물 따라웃다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손가락끝으로 제 머리를 푹푹 두드리면서 말했다.

《영 머리의 탕개가 풀렸거든, 탕개가...》

덕준은 래일아침부터 작업을 30 분 앞당겨서

시작하겠다는것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저녁에는 주먹이 안보일 때까지 가위질을 할 각오들을 하오. 노루꼬리만한 해에 별수 없소.》

작업조직은 이렇게 끝났다.

진옥은 아침부터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이자 작업반장이 한바탕 고아덴데는 진옥이 자기에 대한 불만도 한귀통이에 깔려있다는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 향실은 언제 욕을 먹었더냐실게 제일먼저 창고에 뛰어가서 새끼통구리를 메고 나와 진옥이곁에 바싹 붙어섰다.

소조원을 친언니처럼 따르는 그는 목도리까지 진옥이의것과 꼭 같을걸 사다섰다. 나이는 진옥이보다 한살 아래지만 키도 비슷해서 뒤에서 보면 꼭 쌍둥이같다고들 했다.

진옥은 향실의 새침한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되었니? 만났어?》

《집에 가니까 글썽 어제저녁 경비서구 안들어왔다질 않아요. 그래서 수리분조에까지 갔됐어요.》

《안됐 어. 반장동무한테서 욕까지 먹게 하구...》

《그런 욕은 암만 먹어두 일없어요.》

향실은 진옥의 눈길을 피하듯 머리를 숙이고 타박타박 걸음을 옮겨놓았다.

향실은 명관을 사랑해왔다. 열렬히 사랑했었다.

사랑했던 그만큼 실망도 크고 믿음을 배반당한 그의 가슴속에서 사랑의 따뜻한 정이 점점 식어가는듯했다.

명관이가 제대되어 작업반에 배치되어 오자마자 그의 남다른 열정에 저도 모르게 끌려든 향실이었다.

밀거름주기작업을 기계화하겠다고 입술에 조강이 일어 뛰어다니는것을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향실은 그 일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볼트하나 스파나 하나라도 각근히 집어섬기려고 은근히 원심을 썼다.

라래식 땅과는 기계를 완성했을 때 그 기계를 만든 명관이보다도 향실이가 몇배나 더 기뻐했는지 모른다. 실패끝에 맥없이 주저앉았던 명관이가 소조원의 권고로 다시 새로운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의 기쁨은 더 말할것도 없었다. 그러던 명관이가 작업반장한테서 가시돌린 말을 좀 들었다고 만들던 기계마저 췌버리다니... 껌하먼 다른 작업반으로 가겠다는 말이 곧잘 튀어나오곤 했다.

향실은 생각할수록 명관이가 실속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었고 그를 믿고 은근히 사랑했던 자기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명관이를 외면해버리자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쩐지 명관에 대한 남다른 동정심과 애룩한 정이 지긋게 가슴

속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어제저녁에도 버림받은 기계를 놓고 소조원이 안타까와하는것을 보면서 명판이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소조원이 부락하는대로 명판이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기꺼이 수리분조장네 집으로, 수리분조장네 집으로, 수리분조으로 뛰어다니었다.

진옥은 발끝만 내려다보며 걷는 향실의 얼굴을 한참동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도와주자구. 그러지 않아도 향실인 명판동무를 도와주지 않고는 못견딜거야.》

《...》

향실은 머리를 들고 뭔가 말을 할듯 진옥의 얼굴을 뵈히 쳐다보다가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고것 보지, 눈에 그렇게 다 썩어있는걸 뭐.》

진옥은 향실의 곁에 바짝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참 언니두... 난 몰라요.》

진옥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돌려버는 향실이의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에 미처 감추지 못한 기쁨이 간지럽게 떠돌았다.

이대 저만큼 앞서 걸어가던 명판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오는 소조원과 향실이를 기다리고섰다가 말을 걸었다.

《향실동무, 오늘아침엔 거 뭐야. 녹거리옥을 먹어가면서...》

《녹거리일때문에 늦었는데 옥을 먹어 싸지요 뭐.》

향실은 새침해서 툭 내쫓더니 진옥이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입을 비쭉해보였다.

《향실동무가 오늘 아침엔 명판동무때문에 새벽부터 뛰어다니고도 도리어 옥까지 먹었는데 동문 마음이 편한게군요?》

진옥이가 명판이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을 이었다.

《뭐 나때문예요?》

《아니예요. 동무때문에 뛰어다닐게 뭐있어요.》

이번에는 도리어 향실이쪽에서 아니라고 짹짹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혼자소리처럼 종알거리었다.

《무슨 상관이 있다구 내가 뛰어다닐가. 그런걸 알기나 한대요. 똑박새같은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몇마디 쏟아놓고 얼른 고개를 숙여버리는 향실의 새침한 얼굴을 보고서는 그가 정말 성이 났는지 아니면 즐거운 푸념을 하는것인지 도저히 가늠할수 없었다.

《명판동무가 만들다 팽개친 기계를 살펴보겠다고 향실동무가 애가 타서 뛰어다니는걸 동무는 알기나 해요?》

진옥의 말은 조용히 울리었으나 명판의 가슴속을 쿵쿵 침질하듯 들쭉서놓았다.

우뚱 걸음을 멈추고 눈이 켜해서 진옥이와 향실이의 얼굴을 한참 번갈아보던 명판은 길게 한숨을 쉬면서 다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빠드득 빠드득 눈발히는 소리만 들릴뿐 그들사이에는 얼마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명판이가 걸음을 멈추고 통명스럽게 한마디 툭 내쫓았다.

《이따위 톱을 가지구 전정을 하다니, 사과나무가 울지 않는게 다행이지 참.》

명판은 톱을 진 손을 향실이앞에 불쑥 내밀었다. 어찌나 정성스럽게 썩었는지 해빛에 톱날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누가 톱을 쓸어달랬나뭐.》

이렇게 종알거리는 향실의 눈과 입술에 억제할수 없는 기쁨과 웃음이 남실거리는것을 진옥은 놓치지 않고 보았다. 그런 향실의 얼굴과 톱을 번갈아보는 진옥의 가슴속에 명판이가 이 톱때문에 옥을 먹었구나 하는 알찌곤한 생각이 파고들었으나 그저 모르는척해두었다.

산판에서는 벌써 가위질이 시작되었다.

집집을 한바퀴 돌아보고 좀 뒤늦게 올라온 덕준이도 한줄 잡아가지고 잘라나갔다.

《복순아주머니, 오늘은 몽땅 가위질에 붙었으니 나무가지 묶어내리는 일은 혼자해야겠수다. 마력을 내서...》

덕준은 또 저쪽에 대고 소리쳤다.

《뭘 그렇게 멍청히들 보고있소? 말이야 귀로 들으면 되지.》

아침부터 다그쳐대는판이다.

《딱작 딸작 쓱- 쓱-》

여기저기에서 가위질소리와 톱질소리가 류달리야무지게 울리었다. 바람은 그리 세지 않았으나 날씨가 어찌나 뽀뽀한지 얼굴이 알알하고 입이 얼어들어서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다. 한데 명판이만은 어떻게 빚어놓은 친구인지 도무지 추위도 타지 않는것 같았다. 나무꼭대기에 올라앉아서도 흥얼흥얼 노래만 부르고있다.

원래 목청이 석싹해서 노래가 류창하지는 못하지만 제법 건드러지게 뽑아넘기는것이 모르는 소견에도 전혀 속맥은 아닌것 같았다. 그러나 노래라는거야 분위기 봐서 불러야지, 아무때나 흥얼흥얼... 그저 엇나가길 좋아한단말이야...

덕준은 가슴속에서 꿈지럭거리는 불만을 지그시 누르면서 제발 노래를 그쳐줬으면 하고 바랐다.

한데 명판은 새로 배운 노래가 잘 익혀지지 않았던지 같은 구절만 몇번 반복해서 부르더니 저 아래쪽에 대고 소리쳤다.

《향실동무- 거 춤절로 노래절로 하는 대목 있지, 암만해두 잘 안되누만.》

그러자 꼭 그런 말이 나오리라는것을 미리 알

고있었던것처럼 가르르... 하고 방울같은 웃음소리가 구울려 올라왔다.

《웃긴... 한번 불러보라니까.》

《거 아무래두 향실이아 한마디 불러줘야겠구나. 늙은 총각 속타죽게스리...》

누군가 옆에서 키질했다.

《갑자기 노랜? 싱겁게...》

향실이의 토라진 목소리가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에 섞여 덕준의 귀에까지 푹푹히 들리었다.

《자 이거 비싸겐 군다.》

명판은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비위살 좋게 접어든다.

이런 때 보면 어제저녁 두사람 사이에 다툼질이 있었다는것을 좀처럼 믿을수 없었다. 하긴 그런 일이 있어서 명판이가 이렇게 더 치근거리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둘이 2 중창으루 불러보라구.》

《그게 참 제격이지.》

축고 적적하던 파원에 온기를 불어넣은듯 여기저기서 익살스레 한마디씩 끼여들며 왁작 떠들어댔다. 잠시후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조용해지는듯 하더니 이번에는 누구도 청하지 않았는데 소조원이 스스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침노을 불타는 정다운 언덕에

향실이처럼 목소리를 청아하지 못해도 조용하고 은근한 노래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친근하게 안겨들었다. 이윽고 향실이가 따라불렀다. 그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소조원의 노래에 떠받들려 흥겹게 울려퍼졌다.

사파나무 푸르싱싱 잘도 자라네

뒤이어 명판의 석직한 목소리가 처녀들의 고운 목청을 건드릴가봐 저어하듯 조심스럽게 끼여들더니 잠시후에는 제편에서 흥을 돋구어 뿔아넘겼다.

아- 약비를 뿌려가는 성수난 우리 일손
춤절로 노래절로 기쁨넘치네

2 절로 넘어가자 소조원의 노래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향실의 노래를 끝내내놓고는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파원에 울려퍼지는 흥겨운 선율에 들떠서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명판이도 슬쩍 물러서서 향실이 혼자 노래를 부르게 하더니 뒤부분에 가서는 다시 끼여들었다.

아- 희망을 속삭이며 우리는 알뜰살뜰

결가지 잘라주네 다듬어가네

명판은 정말 그 무슨 사연이라도 속삭이듯 별스럽게 목소리를 살짝 죽였다가 다시 흥을 돋구면서 멋을 부려 노래불렀다.

노래가 다 끝날줄 알았던지 3 절로 넘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 또 한마디 던졌다.

《거 정말 멋있다애.》

또 웃음소리가 터지고 어느덧 향실이의 노래소리도 잦아들었다. 명판은 3 절을 채 부르지 못한 것이 아쉬운지 맥이 좀 떠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멋에 겨워 흥얼거리고있었다.

덕준은 더 참고있을수가 없어서 팩 소리쳤다.

《어- 명판이, 나무꼭대기에 앉아서 노랜 무슨 노래야. 매미처럼...》

《어마나, 매미래.》

욕을 먹은 당사자는 아무소리도 없는데 향실이가 도리어 놀라 속삭였다. 작업반원들은 덕준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성이 났다는것을 알았는지 말없이 가위질만 했다.

《딸깍 딸깍...》

갑자기 조용해진 파원이 초조감에 사로잡힌 덕준에게는 도리어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런 땐 휴식을 좀 시키는것도 괜찮다.

《자- 발이나 좀 녹이구 합시다.-》

덕준이와 진옥은 일을 다 끝낸 다음에도 작업장을 한바퀴 돌아보느라고 좀 뒤늦게야 산에서 내려오고있었다. 여느 일도 그렇지만 더구나 오늘과 같은 일에서는 로력평가를 잘 해야 한다. 몸이 오그라드는 추위속에서 쉬임없이 나무우를 오르내리며 그 나무의 생김새와 영양상태에 맞게 가지들을 자르고 다듬는것은 매개 작업반원들의 높은 책임성과 창조적열정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일이었다. 그저 대충대충 손쉽게 다듬으면서 하루해나 채우자고든다면 거기서 녹아나는것은 사과나무뿐이다. 덕준은 여느때없이 깐깐스레 나무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음이 흐뭇해서 일터를 떠났다.

덕준은 제법 코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한발자국 앞서 걸어갔다. 워낙 노래에는 소질이 없는데다가 작업반에서 노래를 배울 때 자주 빠지다보니 옳게 번져낼 재간이 없었다.

진옥은 지금 덕준이가 왕청같은 곡조로 노래를 용케 이어부르는것도 우스웠지만 더구나 그 노래가 아까 명판이가 향실이와 함께 부르다가 욕을 먹은 노래라고 생각하니 금시 웃음이 터져나오려는것을 가까스로 참고 타박타박 뒤편에 걸었다.

《아니 남이 노래하는데 웃긴 왜 웃소?》

덕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쑥 말을 건넸다.

《아이참, 내가 언제 웃었어요. 호호...》

《그것 보지 웃는거...》

그제야 진옥은 덕준이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있다는것을 깨닫고 괜히 얼굴이 확 달아올랐으나 짐짓 정색해서 입을 열었다.

《일이 힘들 때일수록 노래를 부르니까 한결 마음이 흥겹구 성수가 나는것 같아요.》

《노래라는게 참 좋긴 좋은건데...》

덕준은 진옥의 말을 긍정하는것인지 부정하는것인지 애매하게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더니 스틱스적 발걸음을 옮겨놓으면서 끊어졌던 노래를 다시 흥얼흥얼 이어붙였다. 가뜩이나 잘 부를줄 모르는 덕준의 노래소리가 주눅이 든것처럼 맥없이 울리었다. 덕준은 그렇게 해서나마 아까 공연히 화를 냈던 자기의 웅졸한 생각을 소조원앞에 사죄하려는것이였다. 지내놓고보면 결국 덕준이가 께께거리기는 하지만 마음은 나긋나긋하고 뒤가 없는 사람이였다. 그런 덕준이를 바라보는 진옥은 눈물날만큼 측은한 동정심이 가면서 자기가 정말 그를 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슴깊이 파고들었다.

진옥은 노래소리가 멎기를 기다렸다가 발걸음을 재계 돌려 덕준의 옆에 가지런히 다가섰다.

철이르게 날아온 티티새 한마리가 사과나무가지에 웅크리고 앉아서 가까이 다가오는 두사람을 말뚝말뚝 쳐다보다가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버리었다. 진옥은 덕준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입을 열었다.

《난 작업반장동지가 이 사과나무들을 가꾸는다고 얼마나 고심해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무더기비에 패워나간 사과나무를 구원하려고 밤새도록 혼자 돌각담을 쌓다가 잠이 들어서 소동이 일어났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땐 참 암만 일해두 힘든줄을 몰랐수다.》

《지금은 힘이 든단말이지요?》

《사람들을 다루고 움직인다는게 조련치 않수다.》

덕준은 정말 힘이 부치는듯 한숨까지 후- 내쉬었다.

진옥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아무말없이 걷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을 깊이 헤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불씨를 심어주고 그들의 가슴에 활짝 꽃을 피워준다는게 험치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꽃을 피워서 마음이 밝게 열려야 이 파원에도 웃음이 넘쳐나고 노래소리가 울리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게 아니예요.》

《소조원동문 꼭 시인들처럼 말하누난.》

《시인이요?》

《언젠가 우리 작업반에 젊은 시인이 한사람 왔었는데 어쨌는지 아오?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꽃바다, 처녀들의 가슴에도 꽃이 피어 노래소리 넘쳐나고 웃음꽃 활짝 피니 아- 꽃피는 이 파

원, 예가 바로 내 일터가 아니더냐.> 뭐 이러루하게 시를 읊는데 그럴듯하더란말이요. 사람들이 그 시를 얼마나 좋아하던지 멋도 모르는 우리 집사람까지두 뜬금으로 줄줄 외우더라니까요.》

진옥은 덕준이가 감정을 잡아서 제법 시인의 흉내를 내느라고 했지만 운율이 늘어지고 어색하게 들려서 방금 웃음이 터져나오려하는것을 가까스로 참고 정색해서 대답했다.

《시인들은 생활의 진실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진옥은 그 시구절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듯 한참동안 말없이 걷다가 간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을 억지로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에요. 그들도 반장동지처럼 다 작업반 일을 두고 걱정을 하고 애들을 쓴답니다. 뒤에서 뉘다 밀어댄다고 일이 다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머거리도 짤이 되여선 안된다는거지요? 허허...》

덕준은 진옥의 말을 대범하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진옥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또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런데 저 앞쪽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향실이였다. 벌써 내려간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무밑을 누비고다니면서 흩어진 나무가지들을 주어묵고있었다. 오늘 복순아주머니가 혼자서 다하지 못했던 일을 도와주는 모양이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이 산판에 혼자 남아 누구도 모르게 남의 일을 도와주는 향실이... 덕준은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나무단을 둘러멘 향실이가 비탈진 굽인돌이를 돌아 서둘러 건너가고있었다. 아니, 저 나무단을 어디로 가져가는것일까? 덕준은 차라리 못본척하고 지나치려다가 한마디 했다.

《향실이, 거기서 뭘해?》

그러자 향실은 걸음을 멈추고 나무단을 둘러멘채 돌아서서 대답했다.

《저기 시약탱크 있는데 가져가요.》

《거긴 왜?》

향실은 덕준의 얼굴을 뚫히 건너다보고섰더니 목안에 기여드는 소리로 말했다.

《명관동무가...》

《명관이가?》

말을 가로채는 덕준의 목소리는 저으기 거칠게 울리었다.

얼결에 명관의 말을 꺼내놓고 웅색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향실을 대신해서 진옥이가 얼른 말을 받았다.

《이제 농약을 뿌리자면 아무래도 아침저녁은 물을 덥혀야겠으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덕준은 말없이 향실이쪽을 덤덤히 바라보다가 《음-》하고 신음소리인지 감탄인지 그 뜻이 명확치 않은 대답을 해놓고는 천천히 발자국을 옮겨놓았다.

새로 떨어진 추가지령을 놓고 덕준이 자기가 골머리를 앓으면서 벌치 않은 일에도 화를 내며 작업반원들을 들볶아대고있을 때 그들은 벌써 앞으로 할 작업준비까지 하고있지 않는가.

덕준은 어제밤에 진옥이가 작업반선전실에 올라가보자고 했을 때 뺑소니치듯 집으로 돌아났던 일이 피꼭 머리에 떠올랐다.

(소조원이 불러일으켰구나.)

덕준은 먼구슬러운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발걸음을 재게 놀리면서 소리쳤다.

《향실이,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자.》

《예, 인차 내려가겠어요.》

얼마쯤 내려가는데 또 인기척이 들리었다.

(아니, 저 사람두?!)

숨동복을 뚱뚱하게 껴입고 밤색목도리로 머리를 둘둘 감은 덕준의 안해가 나무단을 량쪽 겨드랑이에 한단씩 끼고 향실이가 사라진쪽으로 뚱기적뚱기적 걸어가고있었다. 그뒤로 복순아주머니가 평장히 큰 나무단을 둘러메고 배틀배틀 따라가고있다.

《아주머니들- 그만하고 내려가자요.》

이번에는 진옥이가 재촉했다.

《이젠 다 됐어. 먼저들 내려가라구요.》

한마디씩 주고받는 말이지만 그속에 얼마나 파산한 정이 오고가는지 몰랐다.

덕준은 그들도 다 작업반일을 두고 걱정을 하며 애들을 쓰고있다면 진옥의 말이 가슴굽을 쿵 울려주는것 같았다.

덕준은 쫓겨가듯 발걸음을 재게 놀려 집으로 내려갔다.

덕준이가 수리분조에 갔을 때는 밤이 퍼그나 깊었었다. 야장간에 들러 버려놓은 호미와 팽이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불을 환히 켜놓은 프락포르수리소안에서 귀에 익은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문턱으로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호기심이 어렸던 덕준의 눈은 점점 커졌다.

이마와 코등에 기름칠을 한 명판이가 스파나로나사를 조이느라 킁킁 거리고있는데 망치를 든 수리분조장이 이따금 쇠판을 땡땡 두들겨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고있다.

프락포르 뒤바퀴만큼이나 큰 쇠판위에 날개들을 드문드문 해달았는데 덕준은 그것이 거름구덩이 파는 기계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얼마전에 소조원이 들고왔던 설계도면이 벌써 이렇게 기계로 만들어지다니... 다시는 이런데 손

을 대지 않겠다고 가빠메던 명판이가 팔을 부르짖고 나서지 않는가.

덕준은 못본척하고 그냥 지나가버릴수도 없어서 주뭇거리고섰는데 수리고안에서 말소리가 들리었다.

《향실이가 저 얼마나 이악쟁인지 한번 걸려들면 꼼짝 못하겠더구만. <과수작업을 기계화하겠다고 아득바득 애를 쓰는데 기계화분조장이 강건너 불보듯하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걸구채는데 할말이 있어? 이렇게 끌려나왔지.》

수리분조장이 유쾌하게 꾸념을 했다. 그러자 명판이가 일손을 멈추지 않고 늘어진투로 말을 받았다.

《그쫘이나 되게 특사루 과견했겠지요.》

《아이참, 내가 뭐 저의 심부름을 왔됐나요. 소조원언니가 부탁하니까 할수없이 왔됐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심부름을 안할테니 두고보라요. 반장동지가 <지금 몇시야?>하구 쏘아보는데 금방 벼락이 떨어지는것 같아서 간이 콩알만했겠어요.》

향실이는 없는줄 알았는데 기계뒤에서 불쑥 나서면서 과장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그러게 내가 품값음을 단단히 했지 않아. 톱을 쏘아서 일은 일대루 갚구 옥은 옥대로 품값음을 했거든.》

《그래두 싫어요. 육벌이품앗이 호호...》

《하하...》

(음, 그렇됐구나)

덕준은 쇠몽치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골이 땡했다. 오늘아침엔 무슨 망녕이 들어서 향실이가 출근하자바람에 사연은 알아보지도 않고 괜히 몽둥이질부터 하려고들었던지 생각할수록 억이 막혔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나 할게지 하는 안타까운 불만이 가슴굽을 적시고들었으나 덕준은 인차 머리를 저었다. 단마디로 옥박질러서 기분만 잡쳐놓았던 일인데 그것을 말할리도 없거니와 오늘아침처럼 화가 폭뒤까지 뻗쳐서 땡땡 날고있는 자기앞에 향실이 말마다나 벼락이나 맞으려고 그런 말을 했겠는가.

덕준은 자기도 모르게 얼른 뒤로 한발 물러서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소곤소곤 말을 주고받으며 걸어오고있었다. 덕준은 킁킁하게 그들이 진 문뒤로 슬그머니 몸을 피했다.

숨동복을 뚱뚱하게 껴입고 손에 큼직한 보따리를 든 안해와 진옥이가 마치 제집에나 들어가듯 불빛을 정면에 받으면서 수리소안으로 쑥 들어섰다. 진옥의 손에도 자그마한 보따리가 들려있었다.

(다들 모여오는구나.)

덕준은 자기만이 어쩐지 사람들한테서 버림받은것 같은 서글픈 생각이 들어 더는 그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그는 행길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수리소안에 신경을 모아 귀를 기울였다.

《아이, 소조원동지! 정순아주머니두 왔네.》
 응석이 진하게 깔린 향실의 목소리다.
 《수고들 해요.》
 안해의 목소리에 이어 진옥이가 말했다.
 《난 명관동무두 벌써 나왔으리라고 믿었어
 요.》

《그래요?》
 명관의 짙막한 한마디 대답에는 공지에 차넘
 치는 기쁨이 엮보였다.
 향실이가 인차 말을 받았다.

《난 소조원동지두 꼭 올줄 알았거든요.》
 《그래? 그런걸 난 향실이가 먼저 와있을걸 알
 구 방해될것 같아서 오지 않으려다가 할수없이
 심부름을 왔는데...》
 진옥이의 룡담에는 어찌나 정깊은 진정이 담겨
 저있는지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유쾌하게 헤집어
 놓는것 같았다.

《아이참, 언니두...》
 향실이가 기계짱으로 달아나 숨는듯 안해와 진
 옥의 맑은 웃음소리에 사나이들의 통쾌한 웃음이
 한데 어울려 수리소안을 후덥게 채워놓는듯했
 다.

그 웃음소리가 채 찾아들기도전에 명관의 능청
 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었다.
 《거 갑자기 구수한 냄새가 풍긴다.》

《야, 고구마.》
 덕준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비죽이 웃
 었다.

《합숙에서 다니는 향실이란 밤새 수고를 하겠
 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안해의 은근한 목소리다.
 덕준은 이따금 남편앞에 엿서기는 하지만 언제
 나 고분고분하고 일만 수격수격 잘하는줄 알았던
 안해가 이 순간 어찌면 그렇게도 고맙게 생각되
 는지 몰랐다.

내가 이제라도 진옥이나 안해처럼 그들속에 불
 쑥 뛰어든다면 그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해주
 겠는가. 그들은 불청객을 보듯 처음에는 어리둥
 절할것이고 뒤미처 자기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를 깨닫고서야 반갑다고 손목을 잡아끌고 고구
 마를 권하면서 수선을 피울것이다. 하지만 그것
 은 진심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고 성실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왜 나
 를 진심으로 믿어주겠는가. 진심은 진심으로만이
 통하는 법이다.

《야- 이게 뭐야! 베아링! 310 이구만요.》
 명관이가 갑자기 수리고안이 쩡 울리게 환성을
 질렀다.

《아이, 정말 두개씩이나...》
 향실이도 걸따라 기뻐서 어쩔줄 몰라한다.
 덕준은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명치끝을 한대
 주어맛았을 때처럼 숨이 껍 막히는것 같았다.

명관이가 310 베아링이 있어야 기계를 만들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왜 소조원처
 럼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단말인가. 소조원은 이
 밤에 고해오듯 그렇게 쉽게 들고오진 못했을텐
 데... 그러니 밤마다 얼마나 속이 타서 뛰여다녔
 겠는가?!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명관을 단마디로
 옥박질러놓고는 도리어 엇선다고 그를 쓴의보듯
 해오지 않았던가. 코코에 옥질이냐 하면서... 덕
 준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가슴이 얼얼하게
 저려들었다.

덕준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남몰래
 귀중한 맘을 흘리며 별치 않은 일에도 웃고 떠들
 고 기뻐하는것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서
 글프고 괴로운지 몰랐다.

덕준은 어제저녁 이맘때 진옥이와 함께 걸어가
 던 그 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고있었다.

언제보나 별로 말이 없고 얌전한것만 같아서
 오히려 불만을 자아내던 진옥이! 사람들앞에 나
 타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들의 그늘밑에 숨어서
 잘 보이지도 않던 소조원이 오늘은 자기의 뚜렷
 한 자세를 가지고 덕준의 눈앞에 크게 솟아보이
 는것이였다.

나무단을 둘러메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던 향
 실의 미더운 얼굴에서 그뒤로 뚱기적거리며 따라
 가던 안해와 복순아주머니의 모습에서 소조원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듯했다. 코등과 이마에 검댕
 이칠을 하고 기름묻은 손으로 나사를 조이는 명
 관이에게 뭔가 다정하게 일깨워주는 혁명전위의
 정깊은 모습이 똑똑히 보이는것이였다.

그렇다! 진옥이를 뒤따라 사람들이 떨쳐나섰다.
 마음이 밝게 열린 작업반원들이 어버이수령님
 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 농촌기술혁명을 다그
 쳐나간다.

덕준이 자기때문에 일시나마 금이 갔던 청춘의
 사랑에 활짝 꽃을 피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시들지 않
 을 충성의 꽃을 피워준 진옥이! 그가 바로 우리
 의 친근한 소조원, 미더욱 혁명전위가 아닌가.

순간 덕준의 귀에는 아까 진옥이가 하던 말이
 생생하게 살아들리는것만 같았다.

《...사람들의 가슴에 꽃을 피워서 마음이 밝게
 열려야 이 파원에도 웃음이 넘쳐나고 노래소리
 가 울리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게 아니예요.》

그렇다! 나도 혁명소조원 진옥이처럼 살자. 진
 옥이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충성의 꽃을 피워주
 고 우리들의 일터가 그대로 끝없는 기쁨과 행복
 이 차넘치는 아름다운 꽃바다가 되게 하자.

덕준은 자기의 가슴에도 활짝 꽃이 핀듯 지금
 켓 어둡고 답답하던 마음이 밝게 열리는것 같았
 다.

나의 고향아 외 1 편

윤 경

별은 언제나 좋아라
예가 나의 고향
사시절 노래속에 웃음속에
꽃밭처럼 공원처럼 가꿔가는
농장벌이여!

너와 함께 내가 살고
나와 함께 네가 산다

구수한 땅냄새 맡으며
한생을 너와 함께
안고 덩굴며 사는곳
이보다 더 좋은곳
이보다 더 정든곳
나는 몰라라

예로부터
사람마다 나서 자란곳
정든 고향이라더라
고향은 어머니 품이라더라

봄이면 천만꽃향기 풍기고
가을이면 온갖 열매 주렁지는
농장벌아, 나의 고향아
너를 지켜
오늘도 흥겨운 일손 다그쳐간다
봄, 여름내 가꿔온
흐뭇한 풍년열매 따고 또 판다

사랑담아 정성담아
포기포기 알알이 키워온 열매!
너를 볼 때면
내 마음 말없는 기쁨에
한없이 설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싹틔우고 가꿔온
그날의 정성
다정히 속삭여주는듯

정녕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안고살 때면
이세상 일터가 많고많아도
내 삶이 꽃피는곳
내 정들어 안겨사는 땅
예보다 더 좋은곳 나는 몰라라

대대로 한패기 땅이 없어
지지도 못살던 그 수난의 세월이여
아버이수령님 땅을 주시고
사회주의협동화의 넓은 길 열어주시여
해마다 만풍년 날가리
하늘높이 쌓고
농악소리 칭칭 땡매
어깨춤도 두둥실
온 벌이 떠나갈듯
웃음소리, 노래소리

아, 내 이런 품
이런 고향
천만금을 준들 바꾸라
수억만금을 준들 바꾸라

고향은 진정 나의 정든 행복의 요람
고향은 아버지수령님 안겨주신 품
그 품 없이야 내 어이 살리
영원히 너와 함께
한생을 살리라
아, 나의 고향아

북변의 새 력사와 더불어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흘러 흐르는 푸른 물결을 따라
련련 500 리!
굽이굽이 새 철길은 끝없이 뻗어가고

사랑의 직승기 오늘도 이 길따라
날으로 또 날은다
태고로부터

물소리
 바람소리
 짐승소리...
 한적하던 벽촌땅에도
 세기의 문명 어서 닿으리고
 전용직승기까지 보내준
 당중앙의 은혜론 사랑이여

 끝없는 사랑에 받들려
 북변의 하늘높이
 첫 직승기 날을 때
 청년건설자들은 감격에 목이 메여
 저저마다 부둥켜안고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울고 또 울었더라

 청년건설자의 영예를 안고
 첫 자욱을 내디딘 그때로부터 3년!
 당중앙의 한없는 은정에
 하냥 가슴은 젖어
 깊은 밤 꿈속에서도
 잠시 휴식참에도
 진정 잊을수 없었거늘

 떠나온 고장은 서로 달라도
 당중앙 한품속에서
 넘고 헤쳐온 강은 그 얼마이며
 벼랑을 톱아올라 차굴을 뚫고
 허물어버린 산은 그 얼마던가

 허리에 바줄을 칭칭 둘러메고
 <비행기고개>도 단숨에 점령했고
 6만산 돌바위도 순간에 점령했고
 혁신의 그 자랑 안고
 마지막 로반을 다져갈 때도
 쉬임없이 쉬임없이 찾아오는 사랑의 직승

 잠시나마 직승기 오지 않아도
 마음은 허전하고
 일손마저 더디여지는듯

너는 그대들의 마음의 기둥
 새힘을 주고
 새소식 전해주는 용맹의 불씨
 사랑의 노래

 행복하도다
 당중앙의 사랑에 떠받들려
 온 나라의 지원속에 묻히여
 새 철길 늘어온 건설의 나날이여

 북부철길은 우리 청년들만이 해낼수 있다고
 큰뭇을 말아 한번 본때있게 해제끼라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모든 조건 다 풀어주시어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대로
 척척 뻗어가는 북변의 새 철길이여

 하기에 사람들은 노래하리라
 후대들은 길이 전하리라
 60년이 걸려도 다할수 없었던 공사를
 불과 몇년에 끝내고
 사랑의 기적소리 높이 울린 그날의 역사를!

아- 개통의 그날
 기쁨에 겨워 행복에 젖어
 사람마다 눈시울 적실 때
 이것만은 잊지 마시라!
 사랑의 직승기 저 하늘 높이 날으며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싸워온 건설의 나날을-

아, 오늘날이 아닌
 래일도
 먼 후날도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 안고
 직승기는 더 높이 날으리라
 북변의 새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날으리라

작은데서 큰것을!

윤상현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 해방전쟁시기라 해서 총포 울부짖는 요란한 격전만 있는것은 아니며 타고난 영웅들이 살고있는것도 아니다. 그때에도 오늘과 같은 평범한 세대생활이 있었다.

단편소설 《단추》(장수근작)는 바로 그 자그마한 생활고리를 잡아쥐고 한 이름없는 보통전사의 성장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전쟁승리의 기초요인에 관한 아름다운 주제적 과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의 주의도 끌지 못하는 자그마한 단추하나, 바로 그속에 한시대를 특징짓는 놀라운 본질이 숨어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가. 현실주제작품에서라면 또 몰라도 《어마어마한 폭음과 불기둥》과 같은 비상한 정황속에서 표상되군하는 30~40 년전의 전쟁환경을 종치나 단추와 같은 일상사와 련관시킨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처음부터 문제를 크게 걸지 않고 까뻑히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가운데 작가가 제기하는 문제를 똑바로 예상할수 있고 그 해결에 기대를 걸게 되여야 흥미를 가지고 한걸음두걸음 끌려들어가게 된다.》

(《영화예술론》 104 페이지)

이 작품이 흥미를 가지고 한걸음두걸음 끌려들어가게끔 되는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크게 걸지 않고 자그마한 군복단추, 그것도 금빛이 번쩍거리는 쇠단추가 아니라 토끼꼬각을 형겅으로 감싸가지고 만든 불품없는 《림시단추》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생활적으로 들어가고있기때문이다.

작품은 구성상 서로 다른 정황속에서 단추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나가고있다. 첫 이야기는 손수렵기 그지없는 형겅단추를 《저주하는》 이야기이고 두번째 이야기는 반대로 그것을 보물처럼 귀중히 간직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형상의 초점은 바로 이 두번째 이야기에 겨누어지고있는바 주인공이 어느 한 마을을 진격해들어갔을 때 전선원 호사업에 쓸 군복단추 한알때문에 무참히 학살당한 옥별소녀의 눈물겨운 최후를 목격하고 심각한 자책속에 새로운 용맹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있다.

작품에서 특히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대목은 이 부분보다 그의 생활적전제로 제시된 첫째 부분의 이야기이다.

첫번째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적어도 두가지를 노리고있다.

한가지는 옥별이의 단추이야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밀도 높은 감정축적을 쌓는데 있다.

전쟁이 터지자 곧 전선으로 달려나온 주인공에게는 남달리 형겅단추가 달린 신수나쁜 군복이 차례진다. 기분나쁜것은 얼마쯤 참을수 있으나 가슴에 생긴 심한 종치가 그 투박한 가운데 단추에 술치군하는 육체적고통은 참으로 죽을맛이었다. 그 단추때문에 적들에게 습격조를 로출시킨 엄중한 실수를 저지른것이 분해서 툭 떼버리려고도 하며 나중엔 처절한 전투와 후퇴의 로상에서 잃어버리기까지 한다. 그러던 그가 바로 자기의 그것과 똑같은 군복단추 한알때문에 어린 생명을 바친 옥별의 시신앞에서 얼마나 가슴 쓰라린 감정을 체험하였겠는가. 자기 단추를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무심하게 대하온 정도가 심하였을수록 옥별이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격하게 격발될수 있었다. 이 부분이 잘 되었다고 하는것은 이처럼 다음부분에서의 충격적인 체험을 격발시킬수 있는 방향에서 옳게 설정되고 또 매우 진실하게 묘사되었기때문이다.

다른 한가지 형상목적은 독자들에게 주인공이 앞날의 영웅으로 될만한 일정한 바탕이 축적되어있음을 납득시키는데도 있다. 형상구조상 작품은 두번째 이야기를 통해 모험과 객기로서가 아니라 인민의 위대한 힘에서 고무를 받아 참된 인민의 영웅으로 되는 그 이후의 과정을 비약시킨 조건에서 이 첫 이야기를 통하여 그러한 성격발전전망을 독자들이 확신적으로 예상할수 있게 하여야 했다.

단추의 선은 주인공의 운명선에 성격장성의 중요한 단서들을 열어준다. 옥별이의 단추가 눈물겨운 사연으로써 주인공에게 운명적인 자각을 일으켜주었다면 입대할 때의 형겅단추는 그 이전 단계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대나갈수 있는 생활적인 미묘한 계기들을 조성시키군 한다. 주인공은 아픈종치를 자꾸 건드리는 그 시끄러운 단추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육체적고통까지

걸머지고 곱절 어려운 의지단련의 고비를 넘어야 하였다. 자기의 군복차림새따위에 잔신경을 쓰는 어린 신입대원에 불과하였던 그가 어느덧 이 과정에 적진속에 뛰어들어도 겁을 모르는 인간으로, 비록 모험적이긴 하지만 적의 화점을 까부실수 있는 용감한 구대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장구검열시 소대장이 종치생긴 가슴을 막 잡아흔

들 때 습격대오에서 제명될가봐 눈물을 찔끔 쏟으면서 속으로 참는 모습이며 형깁단추가 다 해져서 알속이 빠져달아날 정도로 어려운 행군로정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모습... 어려운 전제가 있었으므로 두번째 이야기로 일단 작품의 막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그가 쉽사리 공화국전투 영웅으로 자라났으리나는것을 충분히 납득할수 있었다.

첫번째 이야기는 총적으로 주인공이 우리와 다를바없는, 생활적으로 능히 표상할수 있는 보통병사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보통병사라는것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질수록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영웅적으로 싸운것은 그들이 특별히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인것이 아니라는것, 바로 옥별이와 같은 철없는 어린것들까지 떨쳐일어선 전인민적인 영웅주위에 고무되었기때문이라는것을 힘있게 반증할수 있었다.

단편소설 《단추》는 철학적인 심오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크고 심각한 사상으로 확증한것으로 하여 또한 깊은 인상을 준다.

작게 시작한것은 크게 끝날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형상적가치를 가진다. 작고 범상한것에서 크고 비범한것을 뽑아내는데 작가다운 재간이 있다.

극히 생활적인 작은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작품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가 승리할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으며 전선요사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난것인가 하는 커다란 사회적문제의 해명에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단추나 종치의 이야기는 말그대로 인간세말사적인것으로 되고말았을것이다.

어찌보면 이 소설은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수 있다. 그렇지만 소설의 어느 한 대목에도 영웅담이라고 할만한 전투이야기가 없다. 다만 그가 후에 영웅으로 된것만은 사실인데 그렇게 싸울수 있게 한 계기는 무엇이였겠는가 하는데까지만 소설로 전개한것이다. 이자체가 벌써 사건의 비범성과 그 일시적흥미에 매달린것이

아니라 인간문제를 중심에 놓고 형상을 인간학적으로 처리하려는 옳바른 창작태도를 말해주고있다.

물론 후에 영웅으로 자라났다는 사실을 지내 개념화한감은 든다. 작품 첫머리에서 주인공을 영웅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그렇게 소개할바치고는 그저 《한 공화국영웅》이라고만 하지말고 한두마디 무엇을 어찌한 공화국영웅이라는식으로라도 밝히는것이 좋을번했다. 그래서 주인공의 입을 통해 그 어떤 아슬아슬한 전투영웅의 위훈담을 듣게 되는줄 알았는데 생뚱같은 단추이야기가 나오는것으로 하면 작품 첫시작부터 일정한 극적흥미가 보태질수 있었을것이다.

작품에는 또한 구성의 초점으로 되는 옥별소녀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비해 오히려 진실감이 덜하고 그닥 공감되지 않는 결함도 있다. 한것은 앞부분이 매우 세태적인 성격묘사로 써 독자들에게 후더운 생활의 입김을 불어넣고있는데 반하여 둘째 부분이 어딘가 그에 어울리지 않는 정황의 《비상성》이 느껴지고있으며 일부 위적인 감도 엿보이기때문이다. 분대장임무를 수행하는 주인공이 옥별이시체를 묻기 위해 마을에 립시 남아있게 한것은 인위적인감을 준다. 분초를 따지는 긴급한 일시적전략적후퇴의 길에서 한개분대를 책임진 하사관이 이런 일로 대오에서 리탈된다는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옥별이 어머니로 하여금 딸이 죽으면서 품에 꼭 그러안고 있던 그 군복단추를 주인공의 옷에 달아주게끔 사건을 뒤로 더 끌고가려는 작가의 주관이 들여다보인다.

비록 이러저러한 부족점은 있으나 작은데서 큰것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이런 뽕시나는 소설들을 독자들은 좋아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적어도 매일 몇번씩은 단추에 손을 대게 될것이다. 그때마다 이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옥별이의 단추》생각을 하게 될것이고 병사의 군복단추에 깃든 인민의 정성을 생각하게 될것이고 영웅적인민의 위대한 힘을 생각하게 될것이다.

저녁해야

김국용

황금빛 노을 옷자락이
푸르른 술가지에 걸려서
가지를 못하는거나
대성산마루에 앉은
너 저녁해야

여기를 룡산이라 부르던 옛날엔
술발새로 지는 네 모습 절경이라
사람들이 찾아와 떠날줄 몰랐다더니

오늘은 행복스런 인민의 모습에 취해
아, 네가 발길을 멈추었구나

어이 다 보고간다더나
네 아쉬워 못떠나는 이 시각에도
사랑에 받들려 행복은 더해지거니
오늘보다 더 밝게 꽃피날 래일에
그만 오는 길 늦어질라

불 바 람

김근엽

때: 현대 가을철
곳: 어느 시금속가공공장
나오는 사람들.
시준: 신입초급당비서
운국: 공장장
명일: 공장당위원회 지도원
박아바이: 공장초급당위원
철우: 주물공(준기사)
련이: 천정기중기운전공
영도: 시금속공업시험소 준기사
기타 기술자들

제 1 장

무대 공장구내다. 마가을 단풍이 든 나무들이 둘러선 마당좌측으로는 시험하던 용선로가 불이 식어가고있고 깨진 주형관들이 널려있다. 우측으로는 작업장전물의 일부가 보이는데 밖에까지 련결된 천정기중기사다리가 보인다.

△ 기계동음이 온 구내를 울리는데 막이열리면 깨진 주형관을 손에 든 철우가 실망한채 용선로만 지켜보고 섰다가 로를 예돌아 뒤로 들어간다.

이윽하여 련이 코노래하며 나온다.

련이 (살피다가)아니, 오늘은 시험장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 로뒤에서 다시 나오던 철우가 련이를 보자 한발 뒤로 물러선다.

△ 작업장에서 《기중기!-》하고 찾는 소리.

련이 예!-(하며 사다리로 급히 올라간다.)

△ 천정기중기가 멀어지는 소리

△ 철우 다시 다가서더니 불이 꺼지는 로를 지켜보다가 송풍기 스위치를 넣는다.

△ 송풍기 돌아가는 소리

△ 로는 다시 숨인다.

△ 철우는 좀 당황한듯 살피더니 다시 송풍기스위치를 켜다.

△ 다시 숨이 죽는 용선로

△ 철우는 피로게 섰다가 다시 결심한듯 스위치를 넣는다.

△ 다시 송풍기가 돌아가고 로의 불길의 살아오른다.

△ 여기로 급히 나오는 운국이

운국 아니 철우동문 왜 아직 여기에 있소? 시험장을 옮기게 됐다는걸 모르오?

철우 (대답이 없다.)

운국 (로의 불길이 다시 이는것을 보고)

아니, 송풍기는 누가 넣었소?

철우 ...

운국 아직도 여기 시험장에 미련을 가지고있소?

철우 공장장동지! (손에 들었던 깨진 주형관을 놓는다.)

△ 련이가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듣고 선다.

운국 왜? 기술혁신조를 해산하여 현장으로 다 내려보낸것때문에?

철우 공장장동지, 오늘까지 해오던 이 시험을 시금속공업시험소에 옮겨가서 완성하자니...

운국 그러니 어찌겠소, 사실 우에서 받아쓰게 된 인발관대시 자체로 주형관을 생산하여 증기가열기를 만들자고 동무가 제기했을 때 제일 기뻐하구 찬성한 사람두 나구, 그래서 이렇게 주형관 시험 용선로까지 세우도록 앞장서서 내민 사람두 나였지만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걸 보고서야 난들 어떻게나?

철우 그렇다구 이제와서...

운국 이제와선 내가 물려선다는거지?

철우 ...

운국 (나무잎을 하나 둘 집어들며)보우, 인젠 마가울이요. 그런데 우린 동무가 시험하는 그 주형관을 믿고있다가 석탄의 연소효율을 높이게 하는 그 새로운 증기가열기를 한대도 생산공급하지 못하고있지 않소. 그러니 우선 이전처럼 우에서 받기로 한 인발관이라도 받아다가 먼저 증기가열기를 만들어야 할 형편이란말이요...

△ 바람에 날리는 락엽

운국 (떨어지는 락엽을 바라보며)지금 공장들뿐만 아니라 시의 열난방들에서는 증기가열기때문에 시급히 문제를 세워야겠다구 시당에까지 제기하고있소.

철우 그러니까 더 내밀어서 주형관시험을 완성해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자체로 관 문제를 풀어서...

운국 허-답답하구만. 동무의 주형관 시험이야 어디 가서 하건 성공만 하면 될게 아니요. 그래서 내 지금두 또 시금속공업시험소와 토론타구 오는길이요. ...그리구 공장은 시급대책으로 인발관을 받아다가 증기가열기 생산을 보장하구 봐야 하겠소.

철우 ...

운국 자자... 이제 시금속공업시험소에서 사람두 올텐데 시험장을 옮기오. 동문 지금 준기사

니까 기사가 되구 발명권도 받는게 목표구
리상이 아니요. 뭐 리상을 실현하는게 그
렇게 쉬운줄 아오? ... 지금형편에선 공장시험
소에 가서 하면 더 유리할수 있지. 어떻소
응?... 하... (등을 두드려준다.)

철우 (단념하고)할수 없지요.

운국 그래야지, 이제 새 초급당비서두 오늘래일
루 온다구 했는데 생산이 이 꼴루 있어서
야...

△ 운국 나간다.

△ 철우 어깨를 떨구고 나간다.

련이 (불만을 가지고 혼자소리로)저 동무가...
(사다리로 내려온다.)

△ 련이 안타까와 섰는데 명일이 나온다.

명일 아니 련이동문 왜 이러구 섰소?

련이 (돌아서다가 주저한다.)

명일 시험장은 왜 이렇게 조용하오?

련이 저... 지도원동지! 어제 참모회의에서 철우
동무의 주형관시험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론의 되었다지요?

명일 엉?

련이 그래서... 인발판을 받아서 가열기를 생산하
기로 결정했습니까?

명일 동무에겐 소식통이 지내 빠르구만. 하...

련이 이걸... 웃을-일-이 아닙니다.

명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련이 심각합니다. 공장장동지는 철우동무의 주형
관시험을 시급속공업시험소에서 완성하기로
되었다면서...

명일 (웃고선다가)그건 아직 련이동무가 공장장
동무의 속깊은 생각까지는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야.

련이 예?

명일 철우동무나 련이동문 오히려 공장장동무에
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지.

련이 예?? (더욱 의아해진다.)

명일 련이동무, 이제 참모회의 끝에 공장장동무
는 철우동무의 전도를 봐서 그 시험을 시급
속공업시험소의 힘을 빌어서라두 빨리 성사
시키겠다고 제기하였댔소. 그 생각만두 얼마
나 고맙소. 또 시험소에서는 철우동무를 돕
겠다고 적극 나서기까지 한다니까... 그런 일
이 있은건 사실이요.

련이 아니 그런걸 전...

명일 한 창안자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머
리를 쓰고있는 일군은 쉽지 않소.

련이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시험
소엔 중학동창생인 준기사 영도동무까지 있
으니까 잘 도와줄거예요. (기뻐한다.)

△ 박아바이가 급히 나온다.

박아바이 당위원회 지도원동무가 여기 시험장에
있을줄 알았네. 전엔 학교가신 초급당비서동

지가 늘 시험로에 붙어사시더니...

명일 (웃으며)초급당위원아바이! 어서 저를 찾는
용무나 말씀하십시오.

박아바이 시당 조직부 리시준지도원동무가 공장
에 나와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도원동무를 찾
는다고 전화가 왔기에...

명일 리시준지도원동지가요? 갑시다. (나가다 말
고)련이동무, 철우동무를 보면 공장장동무의
그 기대를 봐서라두 더 분발해야겠다구 하시
오.

련이 예.

△ 명일리와 박아바이 급히 나간다.

련이 (더욱 행복해진다. 혼자소리로)어쨌든 경험
많고 속이 깊은 공장장동지의 생각두 그렇
구... 성공의 담보야 공업시험소에 가서 하면
확고한것으로 되겠지. 철우동문 성공의 문
이 열렸어! 운이 났어!(기증기로 올라간다.)

△ 무대 비였다가 철우와 영도 나와 로앞으로
간다.

철우 영도, 이만큼 진척해놓구 동무네 시험소로
옮기자니...

영도 빨리 올라가거나 하자구. 기술을 돕는거야
우리 시험소의 본분이 아닌가. (메를 들고 주
형판을 깨본다.)음... 강도가 너무 약하군.

철우 그러니 시험소에서는무엇으 주장도를 보
장할수 있을것 같나?

영도 우린 최근에 K 금속정광배합법에 의한 용해
법으로 일정한 강도를 보장한 테라두 있는
데...

철우 K 금속정광?

영도 이 주형관두 그 시험으로 된다면 그 K 금속
원료는 우리 도에두 무진장하니까 그땐 이
공장두 관생산공정을 큰 전망성을 가지구 꾸
릴수 있지. 그런데 그걸용해하자면 로는 또
고쳐야 하네.

철우 그게 된다면야 백번 천번이라두 하겠어.

영도 (땅에 그리며)로를 개조해보라구 빨리 도면
을 만들어서 우리 소장동지한테 제기하계,
가열과 주조법두... (계속 계산한다.)

△ 련이가 사다리로 내려온다.

련이 철우동무!

△ 머리를 드는 두 청년

련이 (영도에게)안녕하세요.

영도 잘있었소. 련이동무!

련이 벌써 기술적지원이 시작됐군요.

영도 이러지 마오. (자리를 피하며)철우동무, 그
럼 빨리 도면부터 만들라구. (하며 나간다.)

△ 무대에는 철우와 련이만 남는다.

련이 철우동무의 성공을 난 미리부터 축하하고싶
어요.

철우 (의아하여 쳐다본다.) 그건... 무슨 소리요?

련이 공장장동지가 그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발전문제를 두고 생각하시는줄은 몰랐었어요.

철우 (어처구니가 없는듯 돌아선다.)

련이 난 당위원장 지도원동지의 말을 듣기전엔 공장장동지를 원망했었어요.

철우 (돌아선다.) 뭐요? 당지도원동무두 공장장동지와 같은 생각이란말이요?

련이 아니 동문 왜 그래요? 탐구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린 지금에 와서까지...

철우 련이동무! (속이 탄듯)동문 지금 그렇게 생각하오?

련이 왜 그래요?

철우 공장장동지가 나를 생각해서 보내는줄 아오?

련이 야참...

철우 지금 주형관에 확신을 못가지니까 차라리 날 시험소로 떼보내구 인발판을 달라구 우에다 제기하자는거요. 그런데... (나가려 한다.)

련이 그럴수 없어요. 철우동문 무언가 오해하구 있어요. 어쩌면...

철우 (자제하며)그건... 사실이요!(나간다)

련이 철우동무!- 그렇다면... (주저하다가 뒤따라 나간다.)

△ 명일이 시준이를 데리고 나온다.

명일 저... 이게 주형관을 뽑기 위해 꾸린 로시험장이었습니다.

시준 (로의 온기를 짚어본다.)

명일 저 시준지도원동지!... 아니 저 비서동지! 아직... 습관이 되어서... (멋쩍게 웃는다.)

시준 그건 일없소. 그런데 난 오늘 이 공장 초급당비서로 임명되어오면서 시당의 첫 분공을 받은것이 철우준기사동무의 새 주형관 시험을 완성하도록 도와서 올해안에 시적인 난방용석탄을 대폭 절약하는것이였소, 현존 탄소비량의 절반으로말이요.

명일 (대답을 못한다.)

시준 난 크게 민구 내려왔는데 일이 이렇게 될줄이야... 새 주형관시험에 나왔던 기술혁신동격대원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있겠지요?

명일 예... 우선 이 주형관 창고고안의 주인인 주형공 준기사 최철우동무, 기중기운전공 서련이, 또 기술설계실의 엄일철동무, 가만... 아직 기술자가 한사람 더 있겠는데... 아 저...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준 박아바이가 있지 않소. 60 나이에 공장보이라 기사가 된...

명일 (놀란다)아니... 비서동진 언제 벌써 그걸다... 기사자격증을 받은지가 한주일밖에 안됩니다.

시준 박아바이를 모르다니, 우리 당일꾼들의 사람과의 사업이 그들의 이름을 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깊이 파악해야 한다는것은 당

의 요구가 아니요.

명일 (대답을 못한다.)

시준 이 주형관시험 관계자들을 만나보지요.

명일 예.

시준 가까운데 전화가 있으면...

△ 명일 생각이 깊어져서 나간다.

△ 련이가 힘없이 나와서 기중기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시준이 찾는다.

시준 저... 련이동무 아니요?

련이 (오르다 말고)아니 누구시게 제 이름을? (내려선다.)

시준 공장에 자주 다녔는데 왜 모르겠소?

련이 그럼... 우리 주형관 시험때문에 다니하던 기술자선생?...

시준 아, 난 저...

련이 어쨌든 인젠 더는오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시준 (생각에 잠기며)아니 왜?

련이 그 창안자두 시금속공업시험소로 가서 거기의 도움으로 완성하기로 했으니까요.

시준 시험소에 가서 완성하다니?

련이 여기서야 누가 책임지겠답니까?

시준 (생각이 더욱 무겁다.)

련이 우리 공장장동지는 주형관에 신심이 없으니까 시금속공업시험소의 힘으로라도 도와주자지만 사실은...

시준 (심각해진다.)됐소. 알만하오. 그래 동문 어떻게? 새 주형관이 성공될수 있을것 같소?

련이 우리가 마구 먹구 못한 일이 있습니까.

시준 음 그런 확신이 중요하지.

련이 첫술에 배부를수 있겠다고 시작하는 일이야 없지 않습니까?

시준 동무의 말이 옳소.

련이 그런데 글썄 끝까지 해보지두 았구 인발판을 받아서 생산과제를 할 생각만 하니...

시준 인발판?

△ 이때 공장장 윤국이 달려나온다.

윤국 아, 시준동무! 이렇게 초급당비서로 임명되어왔으면 이 공장장부러 찾아와야지, 옛소 꿈동무도 몰라봐 하... 어쨌든 잘됐네.

련이 (놀라서 섰다.) 아니 초급당비서라니? 어마나... (어찌지를 못하다가 기중기사다리로 뛰어올라가버린다.)

윤국 하... 초급당비서동무두!

시준 별스레두 구는구만 하하...

윤국 이렇게 맞아서 안됐구만, 생산현장이라는데는 늘...

시준 일없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데 좋지. 그리구 난 여기서 주물준기사 철우동무를 만나보려구 하던참이네.

윤국 음, 그 친군 시금속공업시험소로 시험장을 옮겨게 했네.

△ 시준이 말이 없이 걷는다.

운국 아니 왜 그러냐?

시준 주형관시험의 주인은 누군가?

운국 엉?... 이진...

시준 내 말을 못알아듣겠냐?

운국 (긴장해진다.) 아니 이진 뭐 문답식...시험인가?

시준 시험? 그렇다고 생각해두게.

운국 허허... 참... 도대체 듣고도 모르겠네.

시준 철우동무를 어떻게 하자구 하는가말이네.

운국 그의 창안을 성사시켜주자구 하지, 그의 발전문제야 우리가 봐줘야 할것 아닌가.

시준 남에게 부촉되어 걸음을 떼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시키자는건가?

운국 아니 이렇게 만나자 싸움부터 시작할셈인가?

시준 (진지하게)말좀 해보자구. 철우동무가 첫걸음을 걷는 때 제가 하는 일에 신심을 주어야 그도 우리 당이 바라는 자립적인 일군으로, 누가 장화같은것을 가져다주길 바라지 않고 일생 진필길도 주저없이 걸을수 있을게 아닌가.

운국 글썽 공장의 실정을 좀 알게 되느라면 내심정두...

시준 (시켜보고 쏘다) 물론 생산을 맡은 자네로서야 기술적타산을 앞세울수도 있겠지만 그것두 오물썸물해서는 일을 못치네.

△ 이때 박아바이를 비롯한 기술혁신동력대원들이 나온다.

시준 아, 박아바이 안녕하세요? 60 나이에 열기관기사가 된 아바이를 축하합니다.

박아바이 고맙습니다.

△ 이때 명일이 나온다.

명일 (시준에게) 다들 온것 같습니다.

시준 그렇소. 반갑습니다. (악수를 한다.)

△ 박아바이가 곁에서 한사람씩 소개한다.

박아바이 이 동무가 기계제작자 손동무입니다.

시준 아, 능률높은 감자수확기를 만들어낸 동무구만요.

△ 손동무와 악수를 한다.

박아바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 동문 새형의 만능볼판을 만든 준기사입니다.

시준 그럼 김기만동무지요?

기만 그렇습니다.

△ 시준이는 친지를 만난듯 기뻐한다.

박아바이는 시준이가 사람들을 미리 알고있으며 허물없는데 맞게 신바람을 낸다.

박아바이 저...(시준에게)시당지도원동지가 이렇게 내려오신걸 보면...

명일 (당황하여) 박아바이?! (부른다.)

박아바이 왜? (계속한다)또 무슨 과업이라두 제

기된것 같은데요.

시준 참 인사가 늦었습니다.

△ 명일이 나서서 소개한다.

명일 우리 공장 초급당비서로 오셨습니다.

△ 모두 놀란다.

박아바이 아니? 내가 이거...

시준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박아바이 아, 이거 허허...

△ 모두 웃는다.

시준 (웃으며)제가 안고 온 과업은...

△ 모두 긴장한다.

시준 실은 공장이 시당전원회의에서 과업을 받은지가 었그제가 아닌데 아직 석탄을 대폭 절약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박아바이 예.

시준 지금 당에서 화력을 집중하는것이 난문제가 아닙니까.

박아바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서동지 공장은 걸린 문제가...

운국 (그의 말을 막는다.) 박아바이! 됐습니다.

박아바이 (더는 말이 없다.)

시준 아, 내친김에 터놓고 말해주십시오.

운국 비서동무, 공장당사업을 하루이틀에 다하겠소? 자.

△ 명일이 잇었던듯 시준에게 다가서며 말을 한다.

명일 참 비서동지, 시당책임비서동지가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준 그래요? 자 그럼 일들을 보십시오. 난...(나간다.)

운국 (박아바이에게)아니, 아바인 새 비서앞에서 우는 소리부터 합니까.

박아바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실례를...

운국 부임인사를 받으면서야 좀...

박아바이 하두 소탈하기에...

△ 명일이가 운국이를 지켜보다가 다가간다.

명일 공장장동무와 좀 할이야기가 있습니다.

운국 나요? (모두들 본다.)

△ 모두 자리를 피해 나간다.

△ 사이

명일 난 현장을 먼저 돌아본 비서동지의 말을 듣고야 공장장동무의 속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국 그래요? (의미있게 쳐다본다.)

명일 섭섭합니다.

운국 그러니 지도원동문 공장의 생산사정을 모르는 사람같은데 나두 섭섭합니다.

명일 예?

운국 터놓고 말을 합시다. 철우동무의 인발관 시험성공의 현실적가능성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 그래서 인발관문제를 다시 제기

했습니다. 인발관을 받지 않구는 계획을...

명일 (더욱 놀란다.) 그래서 주형관시험에는 시험소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민음이 깨진듯) 그런걸 난 공장장동무가 철우동무를 위해서 그의 시험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것으로 좋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좋게만... 그렇게 참모일군들앞에서, 당조직까지 속이다니요?...

운국 가열기생산은 내가 책임지니 별수 없지 않습니다.

명일 (심중해진다.)

운국 어찌겠습니까. 인젠 시험장같은 공업시험소에 옮기기로 그쪽과 약속까지 되었는데...

명일 그건 초급당두 참모일군들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운국 아니 그럼?

명일 공장장동지가 이렇게까지 된데는 그간 비서동지가 없는 초급당을 맡아본 내 사업에 더 책임이 있습니다.

운국 그럼?

명일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지도하는 립장에 설것이 아니라 공장장동지와 함께 시험로에서 주형관을 직접 부어낸다는 립장에 서지 못한것이...(나간다.)

운국 아, 지도원동무! (뒤따라 나간다.)
△ 잠시후 시준이 철우를 데리고 나온다.

시준 그래 정말 여기서선 자신이 없소?

철우 (대답없이 머리를 떨고있다.)

시준 아니면 무엇에 걸려 것처럼 주저하오?

철우 그런건 아닙니다.

시준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시험장소를 옮겨가야만 되겠다고 생각하오?

철우 저...

시준 왜 대답이 없소? 주인은 동문데.

철우 ...

시준 그래 거기에 가면 인차 되겠소?

철우 (지켜보다가)예-예

시준 (가슴이 아픈듯 지켜보다가) 철우동무! 동무가 이 로에서 해내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철우 전 결심했습니다.

시준 ?...

철우 저두 인젠 지쳤습니다. ...아무래두 공장장동지가 밀어주는대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기 능력을 제가 너무 과신했던것 같습니다. 시험소 동무들두 도와주기로 한것만큼 그들이 제기한 K 급속 배합용해법에 근거해서...

시준 K 급속?

철우 예.

시준 그걸 가져다가 여기서 하면 되지 않겠소.

철우 비서동지, 저도 지금껏 그렇게 생각하였습

니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선 힘에 부칩니다. 공장장동지가 밀어주는대로 하는게 오히려 빠를것 같습니다.

시준 (심중해진다.) 그게 빠른 길이 아니요. 아니, 주인인 동무가 그런 자포자기한 정신상태를 가진다면 그 시험소에서 아무리 도와나선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거요. 그렇게 되면 우린 동무를 영영 락오자로 잃게 될거란말이요. (아픈 가슴을 달래려는듯 걷는다.)

철우 (지켜보다가) 전... 비서동지가 이곳 실정을 더 잘 아시게 되면 그때 아마 저의 심정을...

시준 (대답없이 걷는다.)
△ 철우는 피로운듯 자리를 뜬다.
△ 시준이 아픈 마음으로 그를 지켜본다.

시준 (걸다가) 시공업시험소! K 급속! 가야 한다!
... 그렇다면 거기에 주형관시험과 관련된 그 어떤 기술적비밀이?... (걷는다.)
그렇다면 그를 도와줄 길은... 기술력량도 더 집중해주어야 할텐데 공장장동무는...
△ 여기에 그의 심정의 노래가 울려온다.

당을 받드는 그 마음
협한 길 걸어 변함있으랴
아, 당일군은 언제나
어머니당의 뜻 꽃피워가네

△ 고심속에 걷는 시준이.
△ 명일이 나온다.

명일 비서동지, 철우동무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준 금시 만났소.

명일 예?

시준 공장당위원회는 왜 일이 그렇게 될 때까지 뒤두었습니까?

명일 제가 그만...

시준 나두 철우동무까지 만나서야 실태를 똑똑히 알았소. 문제는 당지도원인 동무가 공장장동무의 마음속 깊이 침투되어 일하였다면 공장장동무의 그 줄타기놀음에 춤을 추지 않았을것입니다.

명일 ...

시준 공장당일군의 몸이 현장에 있다고 하여 당사업을 하고있다고한 생각하면 안됩니다.

명일 (머리를 떨군다.)

시준 지금이야 당의 의도를 받들고 나선 공장사람들의 충성심을 꽃피워주는것이 공장초급당이나 동무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깊어서 걸다가)하긴 그렇다구 책임한게나 따지고있어야 일이 되겠습니까... 내 시급속공업시험소 준기사동무를 만나보구 오겠습니다.

명일 공업시험소에까지말입니까?

시준 지도원동무! 당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사람을 남에게 밀어맡기는 방법은 배우지 못해도 되지만 사람을 끝까지 아끼고 키워내는 우리 당의 사업기풍을 몰라서는 안되오. (나간다.)

명일 (뜨거움을 안고서서) 아, 내 언제나 저런 비서동지와 함께라면...

△ 여기로 흥분된 윤국이와 박아바이가 떠들면서 나온다.

윤국 아바인 어쩌자는겁니까?

박아바이 공장장은 내가 어쨌다는거요?

윤국 무엇때문에 아직 현장 실정두 잘 모르고 온 비서동무한테 할소리 안할 소리를 다해가지구 지금껏 자기 사무실 의자가 어떻게 생겼구 책상이 어떤건지 앓아보새두 없이 뛰게 만듭니까?

박아바이 공장장동무, 당원이 자기 당조직에 생 각된걸 말한게 뭐가 잘못됐다고?

윤국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강소에서 받아오기루 제기된것두 철우의 로시험상태를 좀더 알아본 다음에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하였는지 않습니다.

박아바이 아, 철우동무를 끝까지 믿어보겠다는거야 좋은것이지.

윤국 (더욱 격해진다.)아바이! (뒤늦게야 명일을 발견하고)아, 지도원동무, 비서동무 어디 있습니다?

명일 시험소로 가겠다고 하시던데요.

윤국 아니 시험소에는 왜요?

박아바이 철우의 시험을 남에게 맡기지 않자구 그러겠지요.

윤국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명일 하여튼 비서동무를 만나보십시오.

△ 명일이는 윤국이를 지켜보다가 나간다.

△ 박아바이도 윤국이를 지켜보다가 멀리 마주 오는 시준이를 보고 한마디 한다.

박아바이 마침 저기 비서동무가 오시네. (나간다.)

△ 윤국이 한쪽을 지켜보고 서있다.

△ 손에 배낭 하나를 든 시준이가 나온다.

윤국 (마주가며) 비서동무!

△ 시준이 말없이 마주선다.

윤국 말 좀 하세.

시준 내가 옳게 보았구만.

윤국 되려 그편에서? 그래 뭘말인가?

시준 자네가 하는 처사말이네.

윤국 아니 여보게...

시준 당에서는 자네를 어떻게 키워주었던가?

윤국 엉?

시준 당에선 자네의 걸음걸이를 어떻게 걷게 해주던가말이네!

윤국 ?...

시준 탐구와 열정으로 불타던 철우의 가슴속에 누가 랭기를 불어넣을 그런권리를 주었나말이네. 찬바람을 들썩우는?!

윤국 옳게 말했네, 옳게. 그럼 생산을 책임진 난 어떻게 하라는건가? 어떻게?!

시준 이제야 자기를 발가놓는군. 그 생각을 해주는것처럼 하던 허울을.

윤국 말 다 했나?

시준 찬바람을 들썩워 락오자로 만드는 그것이 자네가 말해온 관심이나 발전의 진면모란말이네. (더욱 가슴이 아프다.)

△ 조금전부터 기중기에서 내려오다가 듣고 서 있는 련이.

윤국 좋네, 그 철우를 끼고돌다가 이제 가열기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나 보라구.

△ 련이는 얼굴을 싸친다.

시준 (아연해진다.) 자넨 이제 다시 보게 되누만. 그래서 철우문제를 외면했나? 동지의 심혈이 깃든 창안품을 놓고 그런 태도를 가지다니...

△ 락엽이 흘날린다.

△ 윤국 락엽을 한줌두줌 움켜진다.

윤국 이걸 보나? 추위를 예고하는 이 락엽을! (맥을 놓는다.)

시준 일하다 일시 난관이 조성되구 제 체면이 어떻게 될것 같다구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도움이나 바라면서 우에다 손이나 내밀어서야 그게 무슨 혁명의 운전대를 잡은 지휘관이겠나?

윤국 생각이나 말만으로는 길가의 돌맹이두 치우지 못해.

시준 (무섭게 쏘아본다) 이것만은 명심하게. 간고한 행군의 진펄길에서도 승리의 신심만을 안고 제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정신은 생명과 같지만 우는 소리부터 하는건 죽음과 같애, 난 철우동무에게 이걸 푹푹히 가르치려네.

△ 두사람 말쑥처럼 서서 무섭게 마주본다.

△ 그들을 지켜보는 련이는 머리를 떨군다.

△ 무대 서서히 암전된다.

제 2 장

△때: 같은날 저녁.

△무대: 철우네가 사는 아파트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아래층 모서리방이 철우의 방이다. 마당에는 마끄럼대가 있다. 철우가 방안가득 도면을 펴놓고 고심에 잠겨있다.

△ 련이 급히 오다가 열어놓은 문으로 철우를

보고 주춤 선다. 무엇을 말하려다가 망설이는데 철우가 도면을 든채 밖으로 나온다. 런이는 급히 미끄럼대로 올라가면서도 도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미끄럼대를 타고 아래로 떨어지는 철우.

△ 웃음이 나오는것을 겨우 참는 런이.

△ 철우는 절뚝거리면서 쏙얼거린다.

철우 하긴 미끄럼대두 나를 비웃을만 하지... (방으로 향한다.)

△ 런이가 조용히 철우앞으로 나선다.

철우 런이동무, 어떻게 왔소?

런이 비서동지가 시금속공업시험소로 가신것을 알지요?

철우 시험소로? 거긴 왜?

런이 철우동무를 보낼수 없대요.

철우 아니 난 이젠 시험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는걸 늦게나마 깨달았소.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런이 동문 무슨 생각을 해요?

철우 더는 나를 건드리지 마오.

런이 철우동무, 사실 나두 처음엔 잘못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철우 됐소! 그러니 인젠 어떻게 하라는거요?

런이 (안타깝게) 야 참... 비서동지는 그대두 동무를 생각해서...

철우 됐소... 비서동지두 내 능력이나 공장실정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아마 생각을 달리하실게요.

런이 동문 참...

철우 동무두 이젠 더는 내 가슴에 동요를 일으키지 마오. 난 인젠 결심한 사람이요. 결심!

런이 철우동무...

철우 됐소!

△ 런이 그만 머리를 떨군다.

△ 좁전에 나와서 듣고있던 박아바이도 참지 못해 말한다.

박아바이 철우!-

△ 두사람은 놀란다.

박아바이 잠은 놀구있구다. (철우앞으로 간다.)장차 공장의 기술을 떠메고 나가겠다면서 고작 생각한게 그게 다야?

철우 ?...

박아바이 심장은 어디다 떼놓구 이끌이야?

△ 침묵.

△ 런이는 어깨를 떠다.

박아바이 사나이라는게 겨우 처녀의 연약한 가슴이나 흔들어놓구?

철우 어쨌든 난 공업시험소에 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박아바이 그게 무슨 말본새야?

철우 저에겐 그 길밖에...

박아바이 뭐라구? 음 그러니 자넨 그 핑계루 시

힘의 책임에서 도피할셈이군? 현실도피?!

철우 (그 말에 참지를 못한다.)예? 제가 현실도피자라구요? 그래 이 철우는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어떻게?...

△ 박아바이도 그의 마음이 얼마간 리해가 되는듯 그의 손에 들린 도면을 앗아들고 본다.

△ 철우 미끄럼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떨군다.

△ 박아바이 도면을 보다가 런이에게 와서 보라고 손짓을 한다.

△ 런이도 도면을 살펴본다.

박아바이 이건 로를 개조한 도면이구만?

런이 (조용히 대답한다.) 예-예

박아바이 (더 조용히)K 금속을 배합해서 용해를 한다구?

런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철우를 본다.)

박아바이 (혼자 말하듯)음, 이 사람이 시험소로 달아날 차비를 단단히 하고있군? (앉으며 조용히)저를 그만큼 키워준 이 공장을 버리구 날아가겠다는거지?...

런이 (속삭이듯)아바이!- (얼굴을 무릎우에 품는다.)

△ 침묵

△ 이대 영도가 오고 운국이도 따라선다.

영도 (박아바이에게 인사하고 철우앞으로 간다.) 철우동무!

철우 (머리를 든다) 아, 영도동무! (희망을 안고) 도면은 다 끝냈네.

영도 인젠 우리 시험소로 오는걸 단념하게.

△ 놀라는 철우.

△ 놀라면서도 듣고만 있는 운국이.

철우 영도! 그게 무슨 소리야?

영도 ...

철우 인젠 날 어떻게 하자구? (머리를 싸쥐다가) 자네까지 날 이렇게 만들어? 영도 ?!-

영도 동무네 비서동지가 우리 시험소에 오셨넹네.

철우 그래서?

영도 우리 기술실장동지와 함께 K 금속정광배합 용해문제두 따져보시구... 물론 기술적가능성이지, 그러다가 동무의 시험문제는 공장안에서 완성하겠다면서...

철우 뭐라구? 야! 비서동지는 공장실정을 모르시기때문에...

영도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공장에 내려와서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네. 우리 소장동지두 자네를 도울걸세.

△ 철우는 진정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 서성거리고있던 운국이 박아바이앞으로 나선다.

운국 박아바이! 들었지요? 그러니 또 그걸 붙잡구 돌아가다가 인발판도 못받아오게 되면 가열기 생산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가열기 생산

이!

△ 무거운 침묵

△ 바람에 밀려다니는 락엽

운국 (날려다니는 락엽을 얼마나 사람처럼 지켜본다.) 이 운국이가 주대가 없지 주대가! 가랑잎이 날리는걸 보면서두 아지 이루구있는 이 운국이가!...

△ 더욱 무거운 침묵.

운국 (또 가랑잎은 한웅큼 잡는다.) 결국은 인발판을 받아쓰자고 제기한 이 공장만 혁명성이 없구 생산두 못하는놈으로 되고만단말입니다.

박아바이 (말없이 한참 지켜보다가) 그러니 어찌하는건가?

운국 일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지요. (가랑잎을 내들며) 이 계절을 보면서야...

박아바이 (대답없이 쳐다만 본다.)

운국 아바이두 초급당위원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내 비서동무 만나서 위원회두 참모회두 제기하지요. 그때 아바이 립장을 옮겨 취하십시오!

박아바이 난 아직 남의 장단이 춤을 춘 일은 없네. (쏘아본다.)

운국 좋수다!

△ 운국 나가려는데 철우네 집쪽으로 배낭을 무겁게 진 시준이 나와서 창문에 대고 찾는다.

△ 운국이 지켜보며 서있다.

시준 계십니까? 여기가 철우동무네 댁입니까?

(하다가 이쪽에서 다가가는 박아바이를 보고) 아, 박아바이!

△ 운국이 미끄럼대뒤에서 지켜본다.

박아바이 철우동무 여기 있습니다.

시준 아!

△ 철우는 머리를 펴군대로 서있다.

박아바이 (배낭을 받아놓으며)이건 뭘 이렇게 지고다니십니까? 아이구 뭐게 이렇게 무겁습니까?

시준 좀 시험에 써볼가 해서요.

△ 일동 의아해진다.

시준 내 오늘 공업시험소에까지 가보길 잘했습니다. 거기서 듣고보니 철우동무를 그렇게 마음고생 안시켜두 뭘일을...

박아바이, 련이 예?

시준 철우동무!

철우 (희망없이 머리를 든다.)

시준 어떻소? 지금 생산직장이나 공장들에서 자력경쟁하여 걸린 문제의 고리를 푸는건 당의 방침이구 따라서 석탄을 절약하는것은 당에서 제일 화력을 집중하고있는 분야가 아니요.

철우 ...

시준 그래 시험소에 가서 로를 새로 세우기로 토로되었다면서요?

철우 (울분을 더치듯) 그것두 시험소가 발견해낸 K 정광을 쓰는 조건에서 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시준 그 K 정광은 가져왔소.

△ 일동 놀란다.

△ 시준이 배낭을 헤친다.

△ 철우는 굳어진다.

시준 연구소에서두 우리의 의견을 듣고 찬성했소. 그래서 당장 나와주겠다고 했소.

△ 철우는 그만 무릎을 꿇더니 K 정광을 들여다본다.

시준 철우동무가 스스로 일어서기만 한다면 나는 그 무엇이든, 이런 작은 배낭이 아니라 앞산이라도 떠오겠소.

철우 (움직이지 못한다.)

시준 나에게는 기술적확신은 아직 없소. 동무를 믿는것뿐이요. 그러나 나는동무가 난관에 힘을 잃고 락오자가 될가봐 그게 두렵소. 지금두 두렵단말이요.

△ 철우는 더는 참지 못하고 시준이의 품에 안긴다.

철우 비-서-동지! (운다.)

△ 시준이 기뻐한다.

△ 련이도 참지 못하고 박아바이 품에 안긴다.

련이 아바이!-

박아바이 (목에 메인다.) 녀석들! (대견한듯 철우를 보고) 아직 털두 채 돈지 않은것들이 제어미의 품을 떠나서 날면 어디서 떨어지자구.

△ 더욱 흐느끼는 철이와 련이.

△ 어린것들을 품에 달래면서 웃는 시준이와 박아바이.

△ 운국이도 그들을 지켜보며 그 어떤 충격을 받은듯 미끄럼대만 틀어잡는다. 그는 기뻐하며 도면을 보여주는 시준이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 그들의 마음인가 노래가 울려온다.

그 언제나 당의 뜻 꽃피워가며

어머니 손길로 이끌어주네

아, 당일군이 서있는곳

어디서나 충성의 불길이 솟네

△ 노래속에 무대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 시험로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공장구내다.

△ 다시 모여온 기술혁신조원들속에서 일손을 돕는 시준이의 모습.

△ 천정기중기가 종을 때리면서 쇠물바가지를 물고 지나간다.

△ 철우네가 강도 높은 주형관을 부어낸다.

△ 계속되는 노래속에 부어낸 주형관을 메로 두드려보는 철우네들, 끄떡없는 주형관,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은 세차게 타오르는 시험로의 붉은 노을속에 물든다. 온 구내가 노을로 물든다.

△ 운국이는 시준이를 깊은 생각속에 지켜보며 움

직일줄 모른다.

운국 (혼자소리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다는 것이 바로 저런것 이구나. 그런데 나는 ...

△ 련이가 꽃다발을 들고 기증기에서 내리더니 시준에게 준다.

△ 시준이 그것을 철우에게 안겨준다.

시준 자! 철우동무! (안겨준다.)

△ 모두 박수를 보낸다.

운국 (철우에게) 철우동무!-(포옹한다.) 당조직은 동무를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철우 공장장동지!-

운국 (시준에게) 비서동무가 이 철우동무를 진펄 길도 걸어나갈수 있는 전사로 키우자고 그렇게 애를 쓸 때 난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구...

시준 공장장동무!

△ 로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는것을 지켜보는 시준이와 운국이.

시준 공장장동무!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우리 당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일을 할 때만이 저 로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대중의 창조적지혜의 불길을 꺼버리는 찬바람이 아니라 끝없이 불타오르게 하는 불바람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잊지 맙시다.

운국 (가책속에 불길만 지켜본다.)

△ 로앞을 걷는 시준이에게 명일이 따라서서 함께 걷는다.

명일 비서동지! 저는 이번에 당일군의 몸이 현장에 있다고 해서 군중속에 살고있다고 생각해

서는 안된다는 말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군중의 마음속에까지 침투한 당일군만이 아래에서 산다고 말할수 있지요.

시준 옳소. 지도원동무, 우리는 자신을 늘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할 일군이라는것을 자각할 때만이 새힘이 생겨 지칠줄 모르고 무슨 일이나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되요. 그러면 공장의 생산자 대중은 지도원동무를 두고두고 잊지 않을게요.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할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보람과 표창이 또 어데 있겠소.

명일 비서동지!

△ 운국이 다가온다.

운국 비서동무! 인젠 자기의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나 봐두기라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준 그래야지요, 우리 일군들이 제 설자리 았을 자리를 똑똑히 아는거야 하 ...

△ 모두 웃는다.

시준 (철우에게) 그래 인젠 어떤 결심을 하고있소?

철우 저는 앞으로 우리 당 정책을 받드는 일에서 는 그 어떤 어려운 길도 걸어갈것입니다.

△ 모두 즐겁게 웃는다.

△ 로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른다.

△ 그 노을이 더욱 붉어지는데 서서히 막이 내린다.

끝

사랑의 바다

유영하

낮이나 밤이나
바다는
크고작은 수많은 물줄기
한몸에 인아주네

개인날 궂은날
맑은물 흐린물
바다는 가림없이 열싸안아
푸르게 빛내여주네

심산속 샘줄기
여울치는 시내물도
그 넓은 가슴에 품어
세찬 격랑으로 키우는 바다

천줄기 만줄기
이 땅에 흐르는 억만물줄기
품안고 설레는 그 모습
내 안겨사는 그 품을 생각해 해라

헤아려도 헤아려로
그 사랑 그 은정 끝없는
아, 어머니당의 품
한없이 은예로운 사랑의 바다
나는 그 사랑의 바다
하나의 물방울이거니
천번 부서져도 만번 흩어져도
그 품속에 아, 그 품속에 빛나리라

만 적 이

리성덕

(1)

고려 신종와 원년인 4월 어느날 이른아침이었다.

당시 무신집권자의 우두머리인 최충헌의 집 키 높은 담장안에서 크지는 않으나 뜻하지 않았던 한가지 일이 벌어졌다.

아침에 집사가 늙고 병든 종 세사람을 소전(소를 팔고사는 시장)에 끌고가서 제사에 쓸 햇송아지 한마리와 바꾸어오라는 분부를 내렸던것이다. 가병들이 집에서 부리던 늙은 종 세사람을 끌고 대문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무지계를 진 젊은 총각하나가 안으로 마주들어갔다.

마당에서 벌어진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던 총각의 술진 눈섭이 꿈틀하였다.

《아니? 웬일이요》

끌려가던 늙은이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풀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었다.

《어허이구... 세상에 이런 일두 있나? 한평생 일하다가 늙고 병드니 사람이 송아지만두 못하게 될줄이야...》

늙은이의 여위고 조글조글한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사람, 잘있으라구. 우리는 소전으로 가네. 아주 가네...》

총각은 급히 나무지계를 벗어놓았다.

《아니? 사람을 소와 바꾼단말이요? 이게 무슨 짓이요.》

총각은 옆에 서있는 집사를 쏘아보았다. 짝 부르친 주먹에서 으드득 뼈마디 꺾이는 소리가 들리었다.

《못끌어간다!》

총각이 대문을 가로 막아서며 부르짖었다.

《이놈들아! 종도 사람이다!》

《뭐가 어째?》

노한 집사가 총각을 노려보았다.

《저놈을 쳐엎어라!》

집사의 호령이 떨어지고 가병들이 총각의덜미를 덮치려고 달려들 때 문득 사랑대청 마루우에서 엄한 호통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무슨 란동이나?》

거울같이 알른거리는 대청마루우에 이 집의 주인이요 국왕까지 눈아래 깔고본다는 최충헌이가 서있었다.

집사도 끌려갔던 종들도 한순간 기겁을 하여 엎드리고 대문을 막아섰던 총각의 눈에도 한가닥 공포의 빛이 스쳐지나갔다.

최충헌으로 말하면 당시 고려의 왕실과 조정을 줌안에 쥐고 쥐락펴락하던 인물이었다.

1196년 5월, 당시 무신 우두머리였던 리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가로챈 최충헌은 그 이듬해에는 자기의 가병들을 풀어 국왕 목종까지 창락궁에 감금하고 그 동생인 신종을 왕의 자리에 앉힌후 자기 일파가 모두 공신이 되어 나라의 요직을 다 차지하게 하였던것이다. 온 나라가 그의 세상이요. 그의 집은 제2궁궐이었다.

리부(인사관계를 맡은 관청)와 형부(형벌관계를 맡은 관청)의 상서(최고장관)의 자리를 겸하고있던 최충헌은 자기 집 사랑에 앉아 나라의 정사를 제마음대로 료리하였고 관리들에게 벼슬을 주고 떼기기도 제마음대로 하였다.

최충헌이 하면 산천초목도 치를 떨만큼 그 위엄은 서슬이 푸르렀다.

그러한 최충헌이 대문간에 버티고 서있는 총각 종을 지그시 쏘아보고있었다. 무쇠덩이라도 순식간에 녹여 없앨듯한 그 서슬푸른 눈살.

하지만 그 눈살에도 끄덕하지 않고 버티고 선 총각의 눈빛.

두눈빛이 허공중에서 번개를 일으키며 부딪치기를 수십번!

이윽고 최충헌이 입을 열었다.

《네놈은 대체 누구냐?》

《이 집 가동(집에서 잡일을 하는 어린 종)만적이요.》

《만적이? 그래 네 아버지미는 어디서 종노릇하느냐?》

《아비에미를 본적도 없소이다.》

《아비에미도 모르는 종놈의 종자... 그래 네가 금방 종도 사람이라구 했더냐?》

《그랬소이다. 사람이 아니면 그래 무엇이웁니까?》

《무엄한놈같으니라구... 종은 사람이 아니라 종이다! 알겠느냐. 날때부터 하늘이 점지해준 너의 명분이 그러하다.》

《...》

만적의 눈에서 굵다란 눈물이 드르르 굴러내렸다.

《알겠느냐?》

총각이 눈물을 삼키며 부르짖었다.

《모르겠소이다. 하늘이 그렇게 점지했더면 그 하늘이 틀린 하늘인줄 압니다.》

《음?》

최충헌이 흠칫 놀라며 하얀 버선발로 마루를

광 굴렀다.

《저놈을 얹어놓구 쳐라. 저놈의 앞에서 알았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사를 보지 말구 매우 쳐라!》

이리하여 이른아침부터 최충헌의 집 키높은 담장안에서 사람을 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서 노비의 전성시대라고 할만치 노비가 많았고 노비의 피와 뼈가 대궐의 주춧돌로 되었던 고려중엽, 당시로서는 이것은 너무도 레사로운 일에 불과하였다. 노비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팔거나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렸던것이다.

그러나 이 레사로운 일속에서 레사롭지 않은 일이 커가고있는줄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

만물이 앞을 다투어 소생하고 꽃피는 5월, 개경의 봄은 아름다웠다.

술의 도움(송도)이라 불리울만치 그렇게 유명했던 개경의 소나무들이 그 푸르고 장한 기상을 자랑하며 산과 들 그 어디에서나 봄바람을 안고 설레이었다.

개경의 복산인 송악산.

소나무 무성한 숲속.

《빠꼭, 빠꼭!》

어디에선가 구성진 빠꾸기울음소리가 들렸다.

지계를 지고 낮을 찬 봄나무꾼들이 송악산 골짜기로 하얗게 모여들었다.

대개가 관청이나 랑반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었다.

만적은 양지쪽에 비스듬히 누워서 높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에는 수리개를 부러움에 가득찬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집에서 같이 일하는 가동들이 미조이, 연복이, 성복이, 소삼이, 호삼이들도 늙거나 앓거나 하고서 만적의 눈길을 따라 수리개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아! 우리는 어찌하여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났을가? 하늘두 부처님두 어찌면 이다지도 야속하냐...》

누구의 입에선지 울부짖음같은 한탄이 터져나왔다.

만적의 어글어글한 눈에서는 어느새 소리없는 눈물이 어룡거리었다.

만적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 애들아, 이 지긋지긋한 종의 신세를 목숨걸고 면해보자!》

《종의 신세만 면한다면 목숨이 아깝겠니?》

만적은 눈빛을 번쩍거리며 오래오래 곱씹어보던 생각을 털어놓았다.

《장수나 정승이 본래 종자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다 같은 사람이다. 때를 만나면 누구나 장수나 정승이 될수 있다. 우리가 어찌 한평생 채찍밑에서 천한 일만 하겠느냐. 개경안의 노비들이 모두 일시에 들고일어나 상전을 쳐죽이고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면 우리가 이 신세를 면할수 있다. 하늘이나 부처님이 우리를 구해줄리 없다. 힘을 모아 한번 겨루어보자!》

《좋다. 목숨걸고 해보자!》

《피로 맹세하자!》

만적은 품속에서 흰종이 몇장을 꺼내서 퍼놓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다. 다른 가동들도 다 같이 손가락을 깨물었다.

여섯사람의 손가락끝에서 그들의 불타는 희망처럼 빨간 피가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만적은 그 손가락을 한데 모아쥐고 종이우에 정(T)자를 써나갔다.

여섯장을 써서 한장씩 나누어가졌다.

《이것은 동지의 필적이니 깊이들 간수해라.》

(3)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울었다.

동무들과 헤어진 만적은 나무 한지개를 해지고 송악산을 내렸다.

새 잎이 파랗게 피어나 실버들이 휘늘어진 시내가에 이르렀다. 어디선가 빨래방치소리가 들려왔다. 만적은 돌등에 넙적 엎드려 샘물을 꿀꺽꿀꺽 삼키고 일어서다가 파릇파릇한 버들잎사이로 빨래방치를 가슴에 안은채 이쪽을 망연히 바라보는 한 처녀를 발견하였다.

《사월이!》

만적은 돌등을 밟고 시내물을 건너뛰며 한달음에 사월의 곁으로 다가갔다. 한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서로 뜨거운 정을 나누는 사이이면서도 매일 만나볼수 없는 그들이었다.

《아이참, 천천히 오세요. 빠지겠어요.》

사월을 귀밀을 살그머니 붉히었다.

부푼 가슴우에 치렁치렁 드리운 머리태는 빨간 땀기를 물고 몸들바를 모르는듯 흔들거리에 찬물에서 방금 꺼낸 밭그레한 젖은 손으로 제마음처럼 갈광질광하는 그 머리태를 사뿐히 바로잡아 진정시키는 사월의 모습! 그 빨간 땀기의 사연!

그것은 그들 두사람만이 안다.

《아이참, 손 다치셨어요?》

사월은 어느결에 말라붙은 피자국이 있는 만적의 험한 손을 붙잡고 살펴본다.

《아니, 다친게 아니래두...》

《그래두 이 피 보세요.》

처녀는 울상이 되어 고운 눈을 근심스럽게 깜박거린다. 만적은 빙그레 웃으며 사월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들여다본다.

《그런 일이 있었어.》

《호- 그런 일이라니요? 도끼랑 낫이랑 조심히 다루세요.》

처녀는 살그머니 돌아서서 옷고름을 끊어 들고 만적의 터진 손가락을 싸매기 시작하였다. 싸매지 않아도 좋은 손가락이었으나 처녀의 고마운 정성을 깡그리 받고 싶어 만적은 손을 말갓채 빙그레 웃고만 있었다.

《사월이!》

손을 다 싸매자 만적은 처녀를 부르며 품속에서 《정》자를 새긴 종이를 꺼내보이였다.

《아니? 이걸 무슨 표적이에요?》

《종노릇 면해주는 표적이야.》

《종노릇을 면해요?》

《그렇지.》

《언제?》

《이제 끝...》

《참, 꿈같은...》

처녀의 반짝거리는 눈은 그 무슨 꿈을 그려보는 것 같이 빛났다.

《글쎄. 이런 말을 듣자구 그랬을가... 호호...》

처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무슨 일인데!》

어제밤 꿈을 꾸었어요. 부처님이 걸어오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제 종노릇을 그만하고 제집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며 잘살게 되었다. 이러겠지요. 우리도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바깥 행랑채로 뛰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중대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두드리고 소리쳐도 누구도 열어주지 않아서 막 울다가...

《그래서?》

《잠에서 깨었지요. 잠에서 깨어서도 울었어요. 너무 분해서...》

《하하하...》

만적은 시내물소리마냥 랑랑한 소리로 웃었다.

《부처님이 종노릇을 면하게 해줄 수야 없지. 힘을 합쳐 제힘으로 종노릇을 면해야지. 이런 종이를 개경안의 노비들이 다 가지고 일시에 들고 일어나

야 해. 사월이, 이런 종이를 구할 수 없을까?》

《주인대감네 제사 때 쓰고 남은 종이를 건사 해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주어.》

그날저녁, 사월은 저녁상을 물리려고 바깥행랑채로 나갔을 때 종이뭉치를 남몰래 만적에게 넘겨주었다.

그날밤으로 만적은 다섯 동무들과 함께 《정》자를 쓴 종이 수천장을 만들었다.

만적이와 몇몇 동무들은 그 종이를 가지고 송악산 나무군들속에 들어가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

하였다.

미조이 등은 왕궁 내시들과 개경안의 여러 관청에 있는 노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주며 만적이 뜻을 알렸다.

며칠안으로 개경안의 천여명의 노비들이 만적의 폭동에 호응하였다.

만적의 폭동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5월 보름날 밤, 달이 뜰 무렵, 뜻을 같이 하는 노비들이 개경 홍국사로부터 3정 (격구장) 에 이르는 사이에 모여 일제히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 왕궁안의 내시들이 호응하고 모든 관청의 노비들은 해당관청의 관료들을 쳐죽이며 가소 (집에서 일하는 종) 들은 각기 자기 상전을 쳐죽인 다음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노비들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정승이나 노비나 본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온 세상에 뽐뽐이 알리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을 전해들은 노비들은 저마다 가슴을 끓이며 보름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온 개경안의 노비들이 가을갈밭처럼 설령거렸다.

(4)

며칠 후 이른 아침.

최충현의 집 높다란 솟을대문앞에 웬 말한필이 급히 와뒀었다. 급히 달려온 말이 투레질을 하며 주둥이로 흰 거품을 내뿜었다.

대문이 요란히 여닫기고 남부종들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한동안 집안밖이 분주하더니 청지기하인이 길게 뿡는 목청이 들렸다.

《불학박사 한충유드옵시오-》

말에서 내린 한충유가 대문간을 지나 사랑대청앞에 이르렀을 때 잠자리에서 갓 일어난 최충현이 마루우에 나섰다.

《불학박사 한충유 문안드리오.》

한충유는 급히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비단옷으로 감싼 한충유의 살쥔 등판을 내려다보는 최충현의 얼굴에는 시끄러워하는 빛이 가득 떠돌았다.

《웬 일이나?》

《황송하옵니다.》

한충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장을 반쳐올렸다. 종이를 받아들고 살펴보면 최충현은 고무레 《정》자가 눈에 띄우자 《음》 하고 놀라며 다시 한충유를 바라보았다.

《황송하옵니다. 그것은 개경안의 종놈들이 작당을 하여 역적질을 하려던 표적인줄 아뢰오.》

《역적질을?》

최충현의 눈알이 대뜸 붉어지고 몇오리되지 않는 수염이 부들부들 떨렸다.

《날날이 아뢰여라!》

이리하여 한충유를 지난밤 저의 집 중 순정이 라는 자가 밀고해바친 만적의 폭동모의를 날날이

고해바치었다.

최충헌은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그 주모자가 뉘집종놈들이냐?》

《아뢰옵기 황송하옵니다.》

《아뢰이지 못할가.》

최충헌은 꼬리에 불달린 범처럼 날뛰었다.

《예. 황송하오나 만적이, 미조이 등 주모자들은 다 최대감택 가동들인줄 아뢰오.》

《뭘? 내집 종놈들이?》

최충헌은 벌떡 일어섰다.

갑자기 앉은 자리가 안심치 않고 비단 돗자리 밑에서 불쑥 칼날이 솟아나올것 같기도 하였다.

《아니, 이런 변고가 내 집에서?...》

최충헌은 살맞은 뱀처럼 뱅뱅 돌며 갈팡질팡하다가 울부짖듯이 소리를 질렀다.

《여봐라, 게 누구 없느냐-》

이리하여 때마침 때 최충헌의 집은 쭈서놓은 벌의 등지같이 끓어번지기 시작하였다. 말구종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들볶이우고 형부의 라졸들을 부르러가는 말들이 마구간을 나서기 바쁘게 네굽을 안고 달리었다.

...이날, 개경안의 100여명의 노비들이 체포되었다. 만적이, 미조이, 연복이, 성복이, 소삼이, 효삼이는 말할것도 없고 종이를 품고 다니던 노비들만 100명이나 오라에 묶여 옥에 갇히었다.

...

최충헌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다시한번 몸을 떨었다. 왕에게 이 변고를 아뢰일 때 그는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것을 분명히 보았다.

아니될수 없는 일이었다.

왕궁 내시들중에도 만적의 작당이 있었던것이고 개경안의 노비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면 철의 웅성이라도 아니 무너질수 없는것이었다. 하물며 무신들의 주먹안에서 놀아나는 조정이요 왕권이고 보면 어찌 무사하기를 바랄수 있었겠는가.

(만적이?)

최충헌은 다시 생각을 굴려보았다.

저의 집 가동이라 해도 너무 많으니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병들어 죽게 된 늙은 종 셋을 소전에 끌고가 송아지 한마리와 바꾸어오게 했던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며 종도 사람이라고 울부짖던 총각 바로 그가 만적이였다.

(웁다. 그놈이 만적이였지...)

최충헌은 눈을 스투스 감았다. 종놈에게는 없어야 할 그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고 그 피물이 다시 불길로 변했다는것을 어렴풋이 상상하였다. 그러자 만적이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말이 귀가에 쟁쟁이 울려왔다.

《모르겠소이다. 하늘이 그렇게 점지했다면 그 하늘이 틀린 하늘인줄 압니다.》

최충헌의 얇은 눈가죽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한때의 분풀이가 아니다. 그보다 몇천 배나 무서운것이다.)

최충헌은 부드득 이를 갈며 침상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봐라!》

이윽고 서리발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저 무도한 역적모의를 한 종놈들을 모조리 레성강에 수장해라. 그러되 개경안의 모든 노비 천역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징계를 하라!》

칼찬 가병들이 와르르 대문을 차고 밖으로 쏘어나갔다.

(5)

이날 오후, 해는 서쪽으로 퍼그나 기울었다.

개경에서 레성강에 이르는 허허벌판에 사형수들의 긴 행렬이 나타났다. 행렬은 긴 그림자를 끌며 무겁게 움직이였다.

결박을 지고 줄레줄레 따라서는 노비들, 《수궁남시》라고 불리우는 바줄에 비끄러맨 무거운 돌덩이를 목에 건 노비들의 긴행렬뒤로는 수십명의 형졸들과 말탄 탐형관(형의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이 따르고 또 그뒤로 숨소리를 죽이고 따라오는 수많은 남녀노비들...

그들속에 사월이도 있었다.

무명수건을 꼭 뒤집어쓰고 눈물어린 눈으로 사형수들의 행렬이 한끝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거기 맨앞에 만적이가 있었다.

그의 목에는 남달리 크고 무거운 돌덩이가 그 무슨 숙명처럼 걸려있었다. 그 무거운 돌에 짓눌리어 허리를 펴기 힘들련만 만적은 조금도 굽히지 않으려고 모진 애를 쓰고있었다.

세상의 이 마지막 길조차 저토록 무거운 짓눌림과 고통에 시달리며 가야 하는 만적을 생각할 때 사월은 몸부림을 치고싶도록 원통하였다.

이윽고 거무스레한 레성강 물줄기가 나타났다. 아득한 벼랑아래서 물결은 시꺼멓게 흐린 하늘을 비껴실고 소리없이 흐르고있었다.

벼랑끝에 사형수들이 나섰다.

《뻘이- 뻘- 이》

벼랑에 깃들었던 물새들이 놀라서 강물우로 날아올랐다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조상하듯이 다시《뻘이-뻘-이》하고 구슬픈 울음을 남기고 사라졌다.

《유시요(오후6시경)》

사형집행시간을 알리는 형졸의 찢는듯한 목소리가 사형장을 울리고 지나갔다.

사월은 북받치는 울음을 참으며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비집고 앞줄로 나섰다.

벼랑끝에 나선 만적의 얼굴에 거뭇게 말라붙은 피자육이 보였다.

만적이가 소리를 질렀다.
 《이보우, 형줄, 마지막 소청이 있소.》
 《뭔데?》
 만적은 목에 매단 돌덩이를 눈길로 가리키면서
 《이것이 너무 작으니 큰걸로 바꾸어라!》하고
 벼랑끝에 있는 화로만한 큰돌을 가리켰다.
 《그건 왜?》
 《한치라도 더 깊이 들어가 늡겠다. 이놈의 세
 상과 한치라도 더 멀어지고싶다!》
 《음?》
 형줄은 기가 질려 두리번거리다가 감형관의 눈
 치를 흘끔 살폈다. 무슨 말썽이라도 생길까 겁을
 내고있던 감형관은 형줄에게 소리를 질렀다.
 《마지막 소청이니 들어주어라!》
 형줄은 무엇에 쫓기듯이 황황히 큰돌을 만적의
 목에 걸어주었다. 바줄이 걸린 목에는 대줄기
 같은 시퍼런 피줄이 우뚝 일어섰다.
 《아! 원통하구나!》
 만적은 가까스로 목을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었다.
 《천추의 원한도 풀지 못하고... 품어오던 뜻도
 펴보지 못하고 가다니...》
 사월은 끝내 소리를 내어 흐느끼고야말았다.
 만적은 그제야 사월을 알아보고 다정한 눈길을
 던졌다. 그 눈빛은 수많은 사연을 이야기하고있
 었다.
 저 봄빛 쏟아지던 송악산, 그 시내물, 꿈꾸어오
 던 그 앞날, 아, 돌부처가 걸어와서 종살이가 끝
 났다고 하던 그 꿈은 얼마나 허황하고 현실은 얼
 마나 엄혹한가!

사월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감형관의 독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만적은 들
 러선 사람들을 향하여 웅쳤다.
 《여러분, 우리는 가오. 하지만 이 원통한 백사
 람의 혼을 잊지 마오. 어찌 이대로야 참겠소. 이
 원추의 세상을 바로잡고 종들도 사람답게 살날을
 꼭 찾으시오. 종문서를 없애고 우리 자손들이
 다시는 종노릇을 하지 않게 목숨걸고 싸우시오.》
 모여섰던 노비들이 웅성거렸다.
 이때 사월은 문득 가슴에 손을 넣어 고이 품고
 있던 누런 종이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자기 몸속
 에서 자라고있는 아기를 생각해보았다. 만적이가
 남기고 가는 이 종이는 그의 뜻이고 열이고 노
 비해방의 불씨이기도 하다. 이 종이를 아기의 손
 에 쥐여주며 아버지의 뜻을 말해줄 그날을 이 순
 간 사월은 눈물을 흘리며 그려보는것이였다. 그
 리고 그 아기는 노비로 되지 않을것을 간절히 빌
 고 또 비는것이였다.
 감형관의 령이 떨어지자 형줄들이 벼랑끝에 나
 선 사형수들을 발길로 차던졌다.
 《풍덩, 풍덩!》
 강물이 사람을 삼키는 소름끼치는 소리가 들렸
 다.
 《철썩 처절썩!》
 레성강은 갑자기 물결을 일으키며 무섭게 노호
 하였다.
 이때 저 하늘한끝에서 《우르릉!-》하고 이해의
 첫 봄우뢰소리가 은은하게 그러나 막을수 없는
 힘을 가지고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침엽수

최창근

봄내 여름내
 무성한 활엽수림
 마가울 찬서리에
 잎사귀는 가랑잎되어 덩굴고
 햇빛은 나무가지 펴고있는데

 자연의 힘도 꺾지 못하는
 불굴의 의지인가
 잎잎이 창끝인양
 수난의 눈서리를 무찌르는 침엽수

미풍과 속삭일줄 모르고
 설한풍에 쫓기지 않는 그 자세
 사철 푸르려 변함없다가
 새싹에 자리를 내어주고야
 고즈너기 땅에 꽃히는 그 절개

 아, 침엽수
 햇빛따라 별빛따라
 내 가는 인생길에
 길동무처럼 서있는
 소나무, 이깎나무...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의 반동적본질

주문걸

오늘 미제의 부추김을 받고있는 전두환피뢰도당은 말로는 대화와 통일에 대하여 떠들지만 실제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세의 흐름과 인민들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있는 남조선피뢰예술단의 공연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놈들은 공연에서 《겨레의 맥박》이 어쩔소 《2000년대》가 어쩔소 하면서 마치 제놈들이 통일위업에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교활하게 위장하고나왔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나라의 영구분렬과 《반공》대결의식을 고취하는데 광분하였다.

또한 놈들은 공연을 통하여 제놈들의 공연내용의 반동적 반인민적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을뿐이며 그 수준에서 예술적락후성과 저조성, 퇴폐성과 기형성을 그대로 적라라하게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 제놈들의 락후하기 짝이 없는 예술작품들을 통하여 《승공》야망과 영구분렬의 음흉한 속심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추태를 다 부린데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야망은 벌써 공연의 첫 시작에서부터 찾아볼수 있다.

무대에 고정시켜놓은 얼룩진 법고, 그것을 복채가 아니라 방망이로 미친듯 두들겨대는 더부룩한 머리의 한 사나이 그리고 봉건시대 종교무용의 대표적인 소도구인 바를 광란적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또 다른 한패거리, 이것이 개막무용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복소리》이다.

바를 치고 복을 때리는 이러한 추태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것인가. 이것은 도전적이며 광기 편 제놈들의 본심과 정신상태를 그대로 외부에 드러낸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 본심이란 곧 《승공》야망이며 영구분렬을 추구하려는 그 속심인것이다.

그것은 가곡《그리운 금강산》 가요《꿈에 본 내고향》《불효자는 읍니다》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가곡《그리운 금강산》에는《자유만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누구를 가리킨 말인가.

그리고《못가본지 몇몇 해》,《금강산은 부른다》,

《오늘에야 찾을 달 왔다》하는 등등의 가사 구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가사내용들을 통해 놈들이 추구하려는 본심은 너무도 뻔하다.

그것을 어찌 금강산이 그림다, 보고싶다 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으로 볼수 있겠는가.

《꿈에서 본 고향이 그림다》느니 《부모가 그림다》느니 《불효자를 용서해달라》느니 하면서 얼굴에 독기를 띠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분에 차서 고아대는 그 모든 웨침과 몸동작들은 하나하나 다 단순히 고향이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아니라 그 무엇을 잃은데 대한 울분이다.

다시말하여 기어이 《승공》의 야망을 실현하겠다는 속심 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제놈들이 금강산이나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부모를 만나보지 못하는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전두환군사파쑈통치에 있는것이 아니라 마치도 그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것처럼 사실을 외곡날조하려고 꾀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놈들이 공연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추악한 목적이 있으며 그 반동적본질이 있다.

놈들은 저들의 공연에서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속심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그 대표적실례로서 가요《서울찬가》 민속무용《태평성대》를 들수 있다.

놈들은《서울찬가》에서《서울을 사랑하고 자랑한다》느니《서울에 한번 와보라》느니 하고 지껄여대였으며《태평성대》에서는 수십명의 기생들을 등장시켜놓고 몸과 옷맵시 자랑이나 하고 간사스럽고 구역질나는 얼굴표정만을 보여주면서 갖은 추태를 다 부리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마치도 서울이《아름다운 수도》로, 남조선사회가《태평》이나 한것처럼 외곡묘사하였다.

거지와 빈민소굴로 짝 들어차고 온갖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각종 공해에 오염되어 허덕이는 땅, 혼혈종이 옥실거리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들만이 전횡을 부리는것이 오늘의 서울 남조선사회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마치《아름다운 수도》로, 남조선사회가《복지사회》로나 되는것처럼 사실을 외곡묘사한것은 놈들이《승공》야망과 나라의 분렬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광분하고있는

가 하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는것이다.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의 반동성은 또한 오래전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인민들앞에 죄를 짓고 달아난 어중이떠중이들을 굶어모아 예술단을 구성하고 돌격대로 내세워 그런자들의 작품을 들고온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서 23년동안이나 방송원을 해먹은 김동건이라는자는 공연소개에 앞서 자기는 황해도 봉산태생이고 기차를 타고 고향을 지나오면서도 감개무량했다는 엉터리없는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통일에 그 어떤 기대와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지껄여대었다. 이 자가 얼마나 《반공》선전에 날뛰었으면 1983년 소위《리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사회로 전두환피뢰도당으로부터 《대통령표창》까지 받았겠는가. 그런데 이 반동소개자는 신성한 평양대극장 무대에까지 와서 제놈들의 공연작품이 《겨레의 맥박을 확인한 작품들》이고 《민족정서를 음악과 무용으로 구성한 작품들》이며 《우주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세계는 날로 좁혀지고있다》느니 《국제화시대》라느니 하고 어찌구 저찌구 하면서 여전히 파렴치한 매국노로서의 본심을 드러내었다.

그런가 하면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에게 몇푼의 돈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하며 이미 예술계에서 도태되어 카페에서 팡대놀이하는 늙다리 사환군들인 김정구, 김휘갑이란자들은 비판과 설움에 젖어 몸부림치며 한탄하던 일제시기의 류행가들인 《눈물젖은 두만강》, 《불효자는 읍니다》라는 노래를 불러대었다.

이자들은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의 사환군으로 전락된것을 더없는 죄악으로 여길 대신 원산태생이요 장진태생이요 하면서 갖은 너두리를 다하였다.

미제를 남조선땅에서, 전두환피뢰도당을 《정권》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는것이 오늘의 절박한 시대적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에 아부하면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나가고있는것은 매국노로서의 이자들의 정체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에 도망가서 《반공무용》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남조선반동안무가 김백봉이라는자도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종목에 3작품이나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태평성대》는 모순에 가득차고 사회적불안이 날로 커가고있는 남조선사회가 그 무슨 《태평》이나 한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의 하수인으로서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이처럼 남조선피뢰예술안은 미제와 그 주구들

의 너절하고 파렴치한 사환군들을 굶어모아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공》선전에 돌격대로 내세운것으로하여 놈들의 공연은 더욱 반동적이며 악랄한 형태를 띠었다.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의 반동적본질은 《전통문화》의 구실밑에 복고주의를 고취하는데서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문화건설에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그 어떤 시대의 문화도 빈터우에서 대번에 만들어질수는 없다. 인간의 귀중한 정신적창조물인 문화예술은 그 이전시기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고 유산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승하여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방법으로 발전해나간다.

이것은 민족문화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그러나 복고주의는 이러한 유산계승의 원칙과 모순된다. 복고주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이 자라나게 된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41페이지)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의 반동성의 하나가 바로 이 복고주의를 고취한데 있다.

그것은 공연에서 과거 착취계급들이 즐기었고 그들의 고루하고 저속한 취미를 반영한 반동적인 작품들을 그대로 내놓고있는데서 그리고 궁중에서 입고 쓰던 낡은 의상들과 소도구들을 그대로 리용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놈들이 1부에서 들고나온 대부분의 음악, 무용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15세기말의 종교무용인 《승무》는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장삼을 입고 흰 고깔을 쓴 녀인이 절간에 세워놓은 돌탑에 인사를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무용은 봉건사회의 불교의식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무용음악에서도 궁중에서 한 기악곡《령산회상》과 무당들이 굿이나 할 때 부르던 《성주풀이》를 그대로 쓰고있다.

그런가 하면 성악에서는 탁성을 그대로 내기때문에 남자가 부르는지 녀자가 부르는지 도대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악기들도 탁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옛날 팔동품들을 그대로 쓰고있다.

이러한것들은 다 량반들이 갓쓰고 하늘소타고 다니던 시절에 술이나 마시면서 앉아서 흥얼거리

던것인데 어떻게 오늘의 시대에 맞을수 있겠는가.

놈들은 이렇게 하는것이 마치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어떤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지만 그것은 제놈들의 반인민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한갖 서투른 위장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본질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봉건유교 사상을 고취하여 그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는데 있는것이다.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의 반동성은 특히 승미사대주의와 양키식문화 미국식생활양식을 고취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며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장본인이며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놈들은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의 대결로선에 추종하면서 자기들의 공연을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승배》사상을 고취하는 하나의 매국적인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로서 창작무용《꽃보라》현대무용《2000년대를 향하여》를 들수 있다.

놈들은 《꽃보라》에서 황당하게도 봄을 맞이하여 화려한 꽃보라와 더불어 봄을 즐긴다는 구실 밑에 도포를 입고 꽃을 쓴 한 사나이가 얼굴을 드러내기조차 꺼려하는 쓸치마를 쓴 한 녀인을 유인하여 그를 바레식으로 공중에 들었다놓았다하다가 나중에는 껴안고 키스를 하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추태를 보여주었으며 《2000년대를 향하여》에서는 우리 민족의 감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벌거벗은 수십명의 무용수들이 미국식 음악에 맞추어 한쪽에서는 엉덩이를 흔들는 동작, 다른 한쪽에서는 팔과 다리를 내뻗치는 동작, 또 한다른쪽에서는 몸을 비비꼬며 광란적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을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독창을 하는 남녀가수들의 노래도 얼치기소리법으로 하여 듣기가 거북하였으며 더우기는 미국식발음이 농후하여 가사전달이 되지 않아 무엇을 노래하는지 전혀 분간할수 없었다.

리별과 탄식, 비애와 절망 등 노래가사는 더 말할것도 없고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광기된 웨침은 예술을 감상하기보다 미국과 일본의 호색동물들앞에 벌거벗고 나서서 아양을 떠는 창녀의 모습을 그대로 방불케하였다.

남조선피뢰예술단이 들고 온 대부분의 음악무용작품이란 바로 이런것들이다.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벌써 남조선피뢰예술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얼마나 모독하고있으며 세기말적인 양키식문화 미국식생활양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놈들이 허황하기 그지없는 이런 작품들을 두고

이른바《거례의 의지와 저력을 표현하고자 하여 창작한 현대음악무용》이라고 떠벌인것은 남조선 예술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선전을 위한 도구로 완전히 전락되었다는것을 말해주는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오늘 특히 남조선무용예술이 이처럼 한심한 지경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인 전두환피뢰도당의 책동과 관련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니콜라이 현대무용단》이라는것을 해마다 5~6차례씩 남조선에 들여 보내어 전위무용을 전파시키고있다.

미제는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에 《서양무용단》을 조작하고 썩어빠진 양키무용을 남조선무용예술인들속에는 물론 인민들속까지 보급하고있다.

그리하여 양키식문화 미국식생활양식의 로골적 반영인 《트위스트》, 《차차차》, 《록큰롤》 등을 비롯하여 온갖 추잡한 자즈무용이 무대와 거리에 전파되었다.

오늘 남조선에서 성행하고있는 이러한 퇴폐적인 춤가운데서도 《트위스트》는 대표적인것의 하나다.

《트위스트》는 오늘 남조선에서 특히 청소년들속에 악성병균처럼 퍼지고있다.

이러한 퇴폐적인 반동무용들은 미제침략군을 상대로 하는《자즈악단》과 각종《유흥장》을 통하여 남조선에 급격히 파급되었다.

양키무용은 남조선 젊은 남녀들에게 극단한 향락주의, 허무와 절망의 감정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을 룬락의 나락으로 밀어넣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무용예술은 퇴폐와 타락과 함께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지고있다.

남조선피뢰예술단공연의 반동성의 다른 하나는 또한 무대배경을 통하여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예술단의 교환공연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국토가 분단된 때로부터 40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것만큼 오해와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겨례의 가슴을 따뜻한 동포애와 신뢰의 분위기로 덥혀주고 한줄기로 맥박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며 북과 남의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예술의 무대를 통하여 지금은 비록 갈라져있지만 한 강토에서 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속에서 통일기운을 높여주는데 큰 작용을 놀게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피뢰예술단은 상대측을 비방하거나 자극하는 내용을 삼가할데 대한 북남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에 어긋나게 무대를 통하여 그 어떤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선전하는데 혈안이 되어 미쳐날뛰었다.

놈들은 특히 마지막 순서로 합창《아리랑》을 부르면서 무대배경에《승용차》,《유흥장》,《고

속도도로》, 《항구》, 《복지농촌마을》을 내비치고 마치 저들의 경제가 《고도성장》이나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었다.

오늘 남조선경제로 말하면 미국경제에 철저히 복무하는 식민지예속경제로 전락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경제는 자본과 원료, 연료, 기술 그리고 제품실현까지도 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 철저히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외세의존경제로, 식민지예속경제로 굴러떨어지고말았다.

남조선경제는 또한 원료, 연료의 80~90%, 주요자재의 100%를 외국에 의존하고있을뿐아니라 생산된 제품실현도 외국에 의존하고있을뿐아니라 생산된 제품실현도 외국시장에 의존하고있는 경제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예술공연무대를 통하여 식민지예속경제가 그 무슨 《고도성장》의 산물인 것처럼 미화분식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놈들의 예술이 철두철미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미화분식하고 변호하는데 복무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피뢰예술단의 공연은 본질에 있어서 반민족적인것이며 양키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합리와하고 찬미하며 《반공》, 《승공》을 추구하고있는 반동적이며 특선적인 예술공연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고있는 우리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의 분렬주의적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반동문학예술을 철저히 폭로규탄함으로써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의 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막장의 《하늘》에도 눈이 내린다

황명성

교대를 이어 반나절도 못되어
하루계획 넘쳐난 막장에
그 무슨 반가운 소식인가
깡장은 지령대우에 송수화기를 놓자
속삭이듯 -동무들, 눈이 내리오
깡밖에 올해 첫눈이 내린단말이요!

한껏 흥분에 떨리는 그 목소리에
사나이 탄부들의 가슴이 흔들리는가
억실한 얼굴들에 불꽃처럼 타는 눈빛들
수북이 쌓인 솟날길우에
제먼저 큼직이 발자국을 찍고싶어
꿈속처럼 뽀얀 눈보라속을 헤치며
눈내리는 청신한 조국의 대지에 서보는 순간이여

...

그러면 내 마음 가닿는곳에
판을 따라 증기흐르는 소리
이끌리듯 탄부들 걸어가라
눈송이 닿자 이슬지는 창가에
꽃망울들이 열리는 화분,
재잘대는 아이들의 웃음도 꽃인가
창밖엔 눈이 내려 바람찬데
어이하여 방안에 훈훈히 더운김 서려오는가

계절의 변화도
조국의 뜨거운 숨결을 식히지 못해라

내리는 첫눈을 안고 화력타빈은 더 세차게 돌고
저멀리 용해장의 하늘엔 쇠물빛노을이
내리는 첫눈을 온통 불보라로 아름답게
휘날려주거니-

행복해라,
여기 천길지심 막장의 한끝에서
탄벽을 밀며 웃는 다감한 가슴들은
계절보다 앞서
그 설레는 생활의 모든 수레우에
힘을 보태주고 빛을 주는 무진장한 심장의
열원이 아니냐!

3대혁명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조국의 첨단엔
그대들 탄부들이 서서 걸어간다,
식물줄 모르는 사랑과 충성의 열도를 뽐으며...
쌓이는 빙설도 녹이고 봄을 불려올듯
내리는 눈송이에도 정다운 미소를 보내며
시대의 호흡으로 들먹이는 가슴이여

아아, 탄벽을 미는 그 가슴에 눈이 내린다
불같은 뜨거운 눈
아버이수령님께 바치는
성실한 탄부의 충성처럼
티없이 맑고 순결하고 깨끗한 눈
계절과 함께 막장의 《하늘》에도 눈이 내린다
하얀 배꽃처럼 송이송이

남조선부르조아소설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

장소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집》제25권, 278페이지)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화의 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은 주체의 혁명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문화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의 하나이다.

우리는 남조선부르조아소설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부르조아반동문학의 사소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해들어오지 못하도록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은 애국과 매국간의 투쟁이 치열한 격전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의 작가들이 인간의良心과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응당 남조선사회현실을 진실하게 그려내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건전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적지않은 소설가들은 애국민중의 거세찬 투쟁과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자신의 안일만을 꾀하면서 너절하고 반동적인 소설들을 마구 써내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문학은 미제와 그 주구 군사파쇼도당의 침략적 및 매국배족적 행위에 아부굴종하면서 부르조아반동사상의 독소를 퍼뜨리는 너절한 어용수단으로 더욱더 반동화되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들에서 나타나고있는 경향의 하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관련된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시시한 신변잡사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소설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는 《나》라는 주인공이 삼식쪽으로 여행을 가서 투전놀이도 하고 너자를 희롱하다가 돌아오는 시시한 내용을 작품화하고있으며 2월에 발표된 소설 《고가》는 자식5남매를 시집장가를보내고 늙은 부부만 남은 어느 한 로인이 69살의 생일을 맞이하는데도 아들딸들이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면서 찾아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내용을 쓰고있다. 그런가 하면 3월에 발표된 소설 《자살방지 클럽》은 삶의 목적과 의의를 상실한 정형의 파의사, 그의 동창생인 철학자, 관화가, 창녀, 교

원등 각이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지하카페에 자주 모여 쓸데없는 지껄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내용을 소설이라고 서내고있다.

이런 시시한 소설들은 그 어느달 그 어느 잡지를 막론하고 모든 문예출판물들에 범람하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이 이처럼 시시결령한 신변잡사를 그리는데 몰두하고있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으로 뒤엎긴 남조선현실을 똑바로 인식할수 없게 하고 인생의 무의미성과 허무함을 강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지난해에 발표된 소설 《미로의 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간이맥주점에 모여 신세타령을 한참 붙어대다가 《이 세상 일치고서 어찌 하나라도 방황 아닌 인생이고 처방은 있어도 약효가 보장되지 않는게 현실인데 저마다<끝>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고서 바쁘게들 방황하고있는것이 현세인들의 실태》가 아니냐고 인생의 허무함을 지껄인데서도 잘 알수 있다.

최근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다른 하나의 경향은 고독과 불안, 절망과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써는 극복할수 없다는 사상을 설교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의연히 많이 창작되고있는것이다.

고독과 절망, 죽음에 대한 설교는 일찌기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실존주의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아는바와 같이 실존주의는 자본주의사회제도의 쇠퇴몰락과정을 체험하는 부르조아지들의 불안과 공포의 기분을 반영한 반동적사상조류로서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널리 전파되였다.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과 통치계급들의 퇴폐적인 사상감정과 기분을 반영하고있는 실존주의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도 극단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대한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케르케골, 하니뎃카로부터 시작된 실존주의철학자들은 한결같이 고독과 불안, 허무와 절망, 삶에 대한 혐오,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을 설교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놓고있다. 주관적관념론의 한 변종인 실존주의를 《불안의 철학》, 《죽음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리유도 바로 이런 반동적본질과 관련되고있다.

미제는 극도의 불안과 고독, 허무와 절망으로

특징적인 실존주의의 이러한 해독적작용을 타산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리론적》으로 합리화하며 그들을 더 깊은 허무와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위하여 남조선에 실존주의를 광범히 퍼뜨리는것을 저들의 주요한 해외침략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남조선피괴도당 역시 인민대중의 반항기세를 억누르고 군사파쑈통치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실존주의의 사상독소를 널리 퍼뜨리고있으며 이에 따라 실존주의문학이 남조선문단에서 계속 나오고있다.

실존주의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샤르트르가 실존주의라는것은 그 어떤 《참된 삶에로의 지향》을 위한 인간의 실존적가치를 말하는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존주의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구호에 불과하다. 그것은 인간이 불안과 고독, 절망에 몸부림친다는 그자체가 곧 참되게 살려는 념원을 잃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런 념원의 실현이 불가능한것이 인간생활이니만큼 사람들은 불안과 고독, 멸망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고 설교하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실존주의문학은 마치도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동정하는듯한 외피를 쓰고서 사람들을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도록 부추기고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중편소설 《목우》는 이런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실례의 하나로 된다.

소설의 주인공 복임은 처음 연극배우 지준규와 결혼하였으나 《사주팔자》대로 남편이 인차 죽게 되어 유복자 하나를 가진 과부로 되며 그후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면서 남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환자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마저 죽게 되어 고독과 불행으로 눈물짓는다는것이 기본내용으로 되고있다.

소설은 이런 내용을 그리면서 복임과 같은 녀인들은 날 때부터 남편과 애인을 잃어버리고 고독과 절망에 시달려야 할 운명을 타고난것이기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써는 그 불행을 도저히 막아낼수 없다는 숙명론을 설교하고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소설 《사람의 자식》도 이와 류사한 작품이다.

이 소설 역시 17살에 문동병환자하네 시집을 갔다가 놀라서 그날밤으로 달아나 두번째로 산지기 홀아비한테 출가하였으나 그로부터도 내쫓기위 백날도 못된 아들을 업고 떠돌아다니며 그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직장에 나가는 첫날에 자동차사고로 죽고말자 주인공 윤로파는 비로소 《신의 자식》이 아닌 《사람의 자식》은 이러한 운명에 처할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면서 끝없는 절망에 빠져 아들의 유골을 가슴에 안은채 옛고장으로 돌아와 부모의 무덤곁에서 죽고마는것이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실존주의문학은 사람들

을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비판주의와 패배주의에 물젖게 하는 반동적사상독소를 뿜고있다.

주체철학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을 가지고있는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리해하고 그것을 옳게 리용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창조할수 있는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동소설들이 이처럼 인간이란 불행과 고독, 절망과 죽음에서 헤여날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설교하는것은 남반부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의 예속화정책과 남조선피괴도당의 군사파쑈통치체제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실존주의문학은 그것이 프로이드주의와 유착됨으로써 그 반동성이 더욱 악랄한 형태를 띠고있다.

아는바와 같이 정신병학자인 프로이드에 의하여 제창된 관념론적심리학설인 《정신분석학》은 부르조아문학령역에 도입되어 그 색정주의적성격을 강화하는 주요한 사상적바탕으로 되고있다.

프로이드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무의식》의 심리적영향을 받고있는데 그 《무의식》의 내용을 이르는것은 《리비도》 즉 성적충동이라는것이다.

그리고 이 성적충동이야말로 인간의 심리와 모든 활동의《원동력》으로 된다고 보고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사회현상들을 이 《무의식》의 작용에 귀착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부인하자는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그들을 부화타락시키는데서 가장 악독한 작용을 하고있는 프로이드주의의 이러한 반동성과 부패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소설창작에 끌어들이도록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에는 사람들을 부화타락시키는 색정주의적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있다.

소설 《달맞이》는 사춘기에 이른 윤구라는 청소년이 처음으로 료락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을 자연주의적으로 그리고있는가 하면 소설 《감부기》는 시골학교의 녀교원이 자기가 담임한 학급의 남학생인 한 소년을 자기 집에 대려다가 밤마다 추잡한 행동을 하는 내용을 써내고있다.

남조선문단계에서 《경이롭고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그렸다고 레찬을 아끼지 않는 중편소설《들리는 빛》도 정신착란중에 걸린 변태성욕자의 색정주의적관음세계를 그리고있는 작품이다.

사람들이 듣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대신 빗을 소리로 듣는다는 주인공의 괴이한 생활과 행동이 란잡한 성행위의 결과로 생긴 병적현상이라는 것을 밝히고있는 이 역겨운 소설에 대하여 남조선문학계에서는 마치도 그 어떤 《아름다움을 다루고있는》 듯이 떠돌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이 성적충동을 인간의 생존발육의 《원동력》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이론에 얼마나 깊이 물젖어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들은 이처럼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동물들의 저속한 성적본능으로 타락시키는 마약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반동적인 프로이트주의소설들은 반파썸민주화와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극악한 사상적마취제로 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소설가들은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퇴폐적인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열을 올리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그들의 동경심을 깨뜨려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소설 《뜨내기》는 반파썸민주화와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의욕을 꺾어보려는 악랄한 목적에서 씌여진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소설은 어느 한 학교의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사회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출근정지를 당한 끝에 퇴직령을 받게 되자 술주정뱅이가 되어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졌다는것을 그린 작품이다.

술을 잔뜩 마시고 비칠거리며 비속을 걸어가는 주인공의 형상은 사회운동에 참가한 결과 얻어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반파썸민주화와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에 사람들이 떨쳐나설것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여야 한다는것을 설거하는 반동적사상독소를 풍기고있다. 이것은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과 같이 시위와 통성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의 진보적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소설가들은 이처럼 반파썸민주화와 반미자주화를 위한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모독하는 작품들을 꺼리낌없이 써내고있을뿐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북반부로 쏠리고있는 남녘겨레들의 지향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

다.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고 민족적단합과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오늘 공산주의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증상으로 일관된 《반공문학》작품들을 계속 써내고있는 남조선반동작가들의 죄행은 결코 묵과될수 없다.

남조선의 반동소설가 리문렬의 장편소설 《영웅시대》와 반동소설가 김원일의 중편소설 《환멸을 찾아서》는 최근년간에 나온 가장 악랄한 《반공문학》작품들이다.

이 《반공소설》들은 한결같이 남반부에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주인공을 공화국북반부에 들어보내놓고 그들이 점차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꾸며대면서 공산주의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고있다.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던 사람들이 좌절당하고만다고 하는것은 사실에 대한 란폭한 외곡으로 될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심을 훼손시켜보려는 극악한 반공모략책동에 불과하다.

만일 남조선 작가들이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과 화해에 찬물을 끼얹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전두환대국도당의 너절한 하수인으로 되어 《반공문학》을 계속 써낸다면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최근 남조선의 소설문단에서 많이 논의되고있는 《분단문학》도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미제와 그 괴뢰도당의 분렬주의적책동을 규탄하고 통일지향의 념원을 강조할 대신 이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불행과 고통을 확인하는데만 그친다면 조국통일의 위업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민족문학으로 될수 없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동적일뿐아니라 그 형식에 있어서도 극히 파멸적인 길을 걷고 있다.

남조선의 반동소설가들은 초현실주의의 영향밑에 인간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거부하고 객관적현실과 동떨어진 《무의식》의 세계를 《내면독백》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의식의 흐름》파 소설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 일반화를 란폭하게 거부하고있다.

남조선문단에서는 《반소설(양띠 로망)》제창자들에게 의하여 씌여진 기형적인 형식의 사이비소설들이 나오고있다.

종래의 소설형식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반소설》이라고 하는 이 류파들은 인간이나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어떤 이야기처럼 짜여져있는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이나 인간관계를 논리적으로 체계화

하여 그 의미나 가치를 이야기한다는것은 거짓이라고 하면서 소설도 인간과 그 주위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려면 어떤 감정, 분리, 사상 등을 개입시켜 일관한 줄거리, 정연하게 연결된 인간심리의 움직임을 《조작》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등장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을 정연한 시간적연관이 없이 뒤죽박죽으로 무질서하게 엮고 일관한 이야기줄거리가 없이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요구에 가장 맞는 《문학》으로 된다고 떠들고있다.

올해초에 발표된 소설《사라진 사흘》이 바로《반소설》의 한례로 된다.

이 소설은 림종에 가까운 시아버지의 병구완을 하는 《나》와 남편이 말하고 생각하고 회상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뒤범벅으로 섞어놓았을뿐 아니라 지문과 대화의 구별이 없고 심리묘사와 행동묘사의 구별이 없이 이것저것을 생각나는대로 적어 내려가 작가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자고 한것인지 도저히 가늠할수 없게 한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소설들은 이상과 같이 반동문학의 각종 사조와 류파들의 영향밑에 극도의 반동성과 퇴폐성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시대의 지향과 생활의 진실을 반영한 진보적문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퇴폐적인 반동소설들이 그처럼 범람하고있는것은 남조선작가들의 사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에게 그러한것을 강요하는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언론탄압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는데 보다 중요한 원인이 있다.

미제의 조종하에 총칼을 휘둘러《정권》을 강탈한 전두환군사장패들은《언론정화》의 간판밑에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기관들을 통합폐쇄하고 신문, 잡지들을 무데기로 폐간시켰으며 수천명의 문화인들을 언론기관에서 내쫓거나 감옥으로 끌고갔다. 전두환역도의 이 파렴치한 파쑈독거에 의하여 남조선의 량심적인 문학인들의 문학계간지인 《창작과 비평》을 비롯하여 많은 진보적출판물들이 폐간당하였다.

최근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언론기본법》을 휘둘러 더욱더 많은 량심적인 문학인들을 체포구금하고 진보적인 문학서적들을 대량적으로 압수하는 소동을 벌리고있다. 지난 5월초부터 시작된 이른바《리념서적》에 대한 압수소동의 일환으로서 체본직전에 있던 광주사태현지보고문학《죽음을 넘어, 시대의 암흑을 넘어》2만권을 압수하고 이 책을 쓴 량심적인 남조선작가 황석영과 인쇄관계자들을 련행하여간것은 그 실행들중의 하나이다.

놈들은 원래 서적압수소동을 6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사회여론이

비등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와 인쇄소, 서점, 대학도서관, 개인집 등을 불의에 기습하여 수색을 퍼면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출판물들을 마구 압수해가는 란동을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시인 김지하의 시집《타는 목마름으로》를 비롯하여 민중문학작품집인《민중시대의 문학》,《땅의 련가》수기《서울로 가는 길》,로동청년 전태일의 투쟁기를 수록한 작품《어느 청년로동자의 삶과 죽음》등 남조선사회현실을 진실하게 그린 수많은 작품들이 회수하당하였다. 지어 놈들은 지난 8월말 자유실천문인협회의회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잡지《실천문학》을 폐간시키는 폭거를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군사파쑈도당의 무지막지한 언론탄압책동으로 인하여 사실상 오늘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생활의 진실을 그린 작품을 창작할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정의와 진실을 쓰는 작가들의 손을 모조리 엮어매고 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량심적인 소설가들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린 진보적인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최근에 주목되는것은 군사파쑈도당의 인민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온갖 자유가 말살되고 있는 남조선현실을 폭로하고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히고있는가, 인민대중의 기본생존권이 어떻게 유린되고있는가를 신랄하게 보여주는데 진보적작가들의 관심이 돌려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진보적소설가들은 또한 공산주의와 공화국북반부 형제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는것이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지름길로 된다는것을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묘사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가속화할수 있는 반미주제의 작품들도 대담하게 창작하고있다.

그들은 군사파쑈도당의 언론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때로 은유와 비유의 수법을 쓰고있지만 그 풍자의 농도는 매우 진하며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참다운 삶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고무적인 힘을 주고있다.

남조선의 모든 량심적인 문학인들은《인간정신의 기사》로서의 작가의 고상한 사명을 되찾고 미제와 그 주구 군사파쑈도당의《반공》나팔에 춤추면서 신성한 문단을 더럽히는 어용작가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의 참다운 빈전과 반파쑈민주화, 반미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노을비낀 포구에서

리영준

붉은 저녁노을이 비낀 포구는 더더욱 정다운 화쪽으로 눈앞에 안겨온다.

붕- 가공모선의 배고동소리를 들으며 수산사업소의 정문으로 들어서던 나는 정어리 풍년으로 흥성거리는 부두앞에서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저녁포구는 자그마한 사돌선으로부터 대형가공모선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배들이 짝 들어찼는데 정어리부리는작업이 한창이었다. 부두는 저녁노을빛에 채색된 연분홍색의 비말로 온통 덮였다.

정어리폭포는 볼수록 장관이다. 푸른빛 정어리들이 붉은 노을빛속에서 이따금 푸들쩍거릴 때마다 무지개빛 포말들이 한가득 풍겨 날리기도 한다.

가공직장처녀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선원들의 흥겨운 손풍금소리...

색갈 고운 비옷들을 펼쳐입은 가공공 처녀들이 고기무지들 사이로 언뜻언뜻 보인다.

참으로 좋은 저녁이다. 어디를 보아도 좋다!

물고기 전용화차들, 은백색의 랭동차들, 크고 작은 기계차들이며 끊임없이 흐르는 고기콘베아... 어느것이나 다 《더 많은 정어리를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자!》는 대형구호판 밑으로 빠져 통졸임직장, 가공직장, 랭동직장, 준비직장쪽으로 나가는가 하면 생신한 물고기를 싣고 그길로 아예 떠나가는것들도 있다.

정말 속이 후련한 광경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랭동설비를 비롯한 수산물가공설비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잡은 물고기를 한마리도 썩이지 말고 제때에 가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부두에 서니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뜻이 현실로 꽃피는 감동적인 화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정어리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 저녁에 누구의 일손엔들 불꽃이 튀지 않으랴.

문득 손살같이 달려오던 자동차가 한대가 뻗

- 하고 멈춰서더니 연미색의 비옷을 입은 한 처녀가 급히 뛰어내렸다. 지게차가 고장이 났을가?

처녀는 분초가 새로운 때에 차를 세워놓고 방금 지나온 길쪽으로 뛰어가는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급히 뛰어가 소중히 집어든것이 한마리의 정어리였다.

처녀는 누가 흘렸는지 찾아내기라도 하려는듯이 쪽 저쪽을 살펴보더니 어디에 밟혀졌는지 것이 겨진 꼬리쪽을 조심히 쓸어내리었다.

마치도 죽은 고기가 아파하기라도 하는것처럼...

처녀의 눈엔 물기가 펴 하니 어리는것 같았다.

처녀는 무척 낮익어보인다. 얼굴에 연한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히고 눈썹이 붓으로 그은듯 선명한 저 처녀를 어디서 봤던가... 아니 나는 저 처녀를 본일이 없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에 깊이 잠긴듯하다. 그의 눈에는 소중한 추억이 얼른 거리는가싶다.

그의 생각을 가늠해보던 나는 온몸이 찌르르해나며 눈뿌리가 확 달아올랐다.

어느해였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이 포구를 찾으시여 찬바람 불어에는 방파제를 걸으시던 일이...

그날은 진눈까비가 날리던 곳은 날씨였다. 부두가에 산처럼 쌓이는 물고기무지를 바라보시며 그리도 만족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부두가를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었다.

이곳 수산사업소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느라고 시간도 퍼그나 흘렸는데 떠나가시는 그이의 바쁘신 이 길을 멈춰세우신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어로공들과 일꾼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두에 떨어진 도루메기를 손수 집어드실 때야 비로소 영문을 알아차렸다.

늘 인민들속에 계시며 현지도의 길우에서 밤낮을 모르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은 그 얼마이고 이제 가실 길 또 얼마이신데 날저무는 이 부두가에 두마리의 도루메기를 보시고 발길을 멈추신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길에 떨어진 물고기를 고기무지에 손수 가져다놓으시고 가시던 걸음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눈덮인 산간마을을 찾으시면 상점부터 들리시여 물고기를 공급하고있는것을 보시고야 마음을 놓으시고 배머리를 찾으시면 먼바다에 나가는 어로공들이 타고갈 배부터 살펴보시며 어로공들의 비늘 묻은 비옷을 손수 입어보시기도 하신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조선소들을 찾을 때면 어로공들에게 더 좋은 배를 더 많이 무어주자고 것처럼 간곡히 말씀하신다.

정녕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시려고 아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은 또 몇천몇 만리랴.

바로 이처럼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이 나라 북변으로부터 동해천리 기슭의 이르는곳마다에 대규모의 조선소들과 선박수리기지, 랭동공장, 통줄임공장, 가공공장들이 수풀처럼 들어차고 먼바다를 구름처럼 덮어나가는 대선박 군단들이 생겨났다.

오늘따라 이 포구의 현대적인 가공설비들이며 만능화된 고기배들, 준비하게 늘어선 건물들이 크나큰 감동속에 안겨온다.

저 하늘을 유유히 날으는 푸른 탐색비행기까지도 뜨거운 눈물속에 흐릿하게 보인다.

해방전 이 기슭은 과연 어떠했던가.

모래불에 돌가마를 걸고 정어리기름을 내던 까망게 탄 녀인들, 어머니들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허기져울던 발가숭이 아이들이며 파도에 밀려 기슭으로 밀려나온 깨어진 쪽배들의 잔해들...

지금은 먼 옛날로 된 어두운 풍경이였다.

가공모선이 닳을 내린 저 해당화핀 기슭은 우리 뒤집 삼덕이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부르며 파도사나운 바다로 뛰어들었던 해방전의 그 부두였다.

어릴 때 나의 어머니가 정어리기름통을 머리에 이고나르던 그 오솔길이 지금 지게차가 렬을 지어오가는 대도로로 변했다.

그곳이였다. 갈매기들마저 울다울다 목이 쉬어 갈린 외마디소리를 냈다던 이 포구였다.

저쪽 선수 란간에 기대서서 장쾌하게 쏟아지는 고기폭포를 바라보는 늙은 선장의 과거는 또 어떠했던가.

그의 고향은 본래 이 바다기슭에서 멀리 떨어진 이천 《고미탄》이였다. 거기에는 몇마리의 정어리를 장에서 구해가지고 왕복140리길을 걸어오다가 어머니가 운명했다는 비보를 접했던 눈물의 고개가있다.

소년은 숨쳐가는 어머니에게 정어리 한마리 대접하지 못한것이 가슴에 맺혀 눈물을 뿌리며 고향을 떠나 열다섯의 그 나이에 이 바다기슭으로 찾아왔었다. 그러나 칠성판을 등에 지고 사자밥을 먹으며 험한 파도우에 떠돌던 지난날 그의 가슴에 맺힌 웅어리는 풀릴수 없었다.

아버이수령님과 당의 사랑속에서 마침내 그의 소원은 풀렸다. 그러기에 그의 눈에는 저렇듯 뜨거운 눈물이 맺혔으리라.

나의 눈에는 보이는것만 같다. 폭포처럼 떨어지는 저 물고기들이 가닿는 립산마을의 오붓한 배대와 아득한 구름령 탐사대원들의 천막에도, 그리고 그 어느 밥투정군 애녀석의 집에도 나의 상상은 내려친다. 선장의 어린 발자취와 눈물이 어렸던 그 고개너머로 달려가는 사랑의 랭동차 대렬이 보이는것만 같다.

위대한 사랑의 흐름은 혈맥처럼 온 나라에 굽이치고있다.

수산업소구내로 끝없이 이어달리는 지게차들의 맨뒤로 연미색비옷의 낮익은 그 처녀가 달려온다.

밝게 웃는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박속같이 흰 이를 드러내며 밝게 웃는 저 모습, 황홀한 저녁노을도 마치 저 웃음으로부터 시작되는것만 같다.

나는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를 꽃피워가는 저 처녀의 심정을 알수 있었다. 그의 기쁨과 긍지로 더욱 아름다운 그 미소의 진가를 누군들 모르랴!

처녀의 티없는 웃음이 넘치는 포구는 더더욱 아름답게 안겨온다.

나는 그래서 심장으로 사랑하는것이리라. 포구의 저녁을!...

사랑과 증오 외 1 편

백일호

평범한 나날에
벌에 영글린 이삭은
그대로
땅을 안고사는 대지의 내 사랑

전화의 나날
원췌의 흉탄에 상처입은 이 가슴

뜨겁게 익힌 열매는
미제를 향해 불타는 나의 증오

그렇게 익힌 사랑의 열매
내겐 더 달고
그렇게 익힌 증오의 열매
충알처럼 알차더라!

포구의 아름다움

물결 출렁
마음도 출렁
때아닌 철에도
정어리퐁넨 들어
또 한그물 추니
배가 묵직하다

그제서야 허리펴니
아득히 안겨오네
기암절벽속에
그림처럼 펼쳐진
내 사는
바다가마을

기뻐
포구를 향해
배머리 돌리면
학들이 날아오르는가
해빛에 번쩍이며 솟는
은빛 지붕들

그속에서도
울봄에 새로 지은
정어리기름공장이

큰 자태 들어내며
배들을 손저어부르네
정다운 품인양

빈배로 나갈 땐
꽃다발처럼 흔들어주는
딸애의 주먹도 볼새 없더니
배 무겁게 들어올 땐
바다가의 모든것이
아름답게 안겨오는가

저 아름다움
바다보물 산호진주마이라
색고운 정어리떼 늑실대는
그 만경창파에 뿌리를 박아
나날이 키돋움하며
자라는듯

아, 만선의 기쁨속에
그 기쁨 클수록
포구의 아름다움 황홀기묘해
대양도 썩아- 처절씩
걱정을 뿜는다
내 가슴에 위훈의 노래를 준다!

희망찬 기적소리

신운호

노을비긴 이른새벽 울리는 기적소리
사랑하는 처녀와 작별을 재촉하네
아 청춘을 부르는 아 희망찬 앞길
처녀는 간석지로 나는 탄전으로 우리는 떠나가네

천리먼길 헤어져도 다진 약속 힘이 되어
불꽃튀는 혁신으로 오가는정 깊어지리

아 조국이 펼쳐준 아 보람찬 앞길
간석지 건설하며 검은 금 캐며 청춘을 꽃피우리

한생토록 우리 심장 하나로 불타리라
처녀는 사랑담아 꽃수건 흔들어주네
아 희망찬 기적소리 아 우릴 축복해
금별의 위훈 떨치고 다시 만나 기쁨을 노래하리

풍년이삭 안고선 옥아

김 수

네가 것처럼 간절히 바라던
만풍년의 이 가을
금나락은 설레여 옷자락에 감기는데
옥아, 너는 그저 스스러이 섰구나

둥그스름한 얼굴이 노상 웃음속에 피던
소조원 사랑스런 처녀야
벼이삭 안은채 눈물이 글썽해 말없으니
바라보는 우리 마음 더 뜨겁다

이 벌에 푸른 옷을 입히고
이 벌에 황금옷을 입혀온 나날
수고많은 네 손을 꼭 잡아보고싶다 옥아
해말가던 네 얼굴이 감실히 났구나

나어린 도시처녀 농사일을 해낼가
내 정말로 아니할 생각했구나
몇십년 땅가꿔온 우리 농장원들을
오히려 이끌고온 처녀야

풍년모 어서 내자요
수령님은 우리 모내기도 그려보실거예요-
너의 그 말은 어찌나 진정이 어리었던지
가뜩이나 뜨거운 우리 마음 더 울리어
일손을 다그친적 그 얼마...

가장 소중한 첫사랑의 그 순결함을
저 억만이삭들의 알알에 맺히게 하려고

누구보다 간절히 가을을 안고산
네 마음을 대지도 들먹이며 안았다

창밖에 비내려 고향거리 그리운 밤이면
수령님 바라보실 푸른 벌을 안아보며
잠 못든적은 또 그 얼마...

아, 사랑스런 옥아
감실히 탄 네 얼굴 오래도록 바라본다
비바람속에 찍어간 네 작은 발자욱들
오늘에도 달려온 그 모습 생각한다

어떻게하나 아버지수령님께
풍년기쁨 드리려는 너의 그 진정
그 진정은 이 넓은벌 이랑이랑에
만풍년의 금나락으로 여물었구나

옥아, 한마디 안한들 어떠랴
그처럼 애타게 풍년가을 펼친 마음
풍년수확 당에 바친 충성의 그 마음
황금이삭은 끝없이 속삭여주나니

아 풍년가을 풍년가을
우리 마음 뜨거워 생각은 깊어진다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은
어이 벼이삭만 여물리웠으랴
대지도 사람도 한껏 무르익혔구나

흘러라 대동강

김송남

설레이네 출렁이네 은물결 금물결
금수산 푸른 숲에 안겨 춤추네
탑우의 화불을 비껴 담았네
오늘의 이 기쁨 맞이하자고
천년을 만년을 굽이쳤더니
아, 흘러라 대동강
우리 마음아!

속삭이네 반짝이네 은물결 금물결
정다운 눈빛처럼 살뜰하여라
못잇을 음성처럼 친근하여라
수도의 하늘가 억만 창문도

물우에 어리어 밝게 빛나네
아, 흘러라 대동강
우리 기쁨아!

넘쳐나네 굽이치네 은물결 금물결
해와 별 찬란한 하늘을 이고
이 강물 영원히 맑고 푸르리
이 물을 마시며 자라난 인민
슬기와 용맹을 길이 떨치리
아, 흘러라 대동강
우리 희망아!

배고동소리 울려라

김래경

우리를 불러
우리를 찾아
배고동소리 하늘땅에 울리며
우리들을 실어다준 귀국선이
니이가다항구에 들어서는데
...

안아보자 꽃단아
다시보자 순철아
조국으로 가는 길이 기뻐서나
얼굴마다엔 함박꽃마냥 웃음이 어리고
동백꽃처럼 활짝 피어났어라

10년전 그때도
바람세찬 눈보라마 홀날렸어라
허기쳐우는 너희들을 업고
차디찬 교아원을 나섰을 때
눈에선 소리없이 눈물이 고이고
가슴엔 저주의 불길이 타올랐어라

아버지가 지켜낸 우리 학교에서
어머니의 한생소원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 말 우리 글을 배우며 잔뼈가 굵고
수령님 은정에 떠받들리어
10년세월 상록수마냥 푸르싱싱 자랐어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그 누가 시킨이도 없는데
동포들이 모이면 이 노래를 불렀고
문득 어머니 생각에 젖어들어도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달래면 너희들이
꿈결로만 그리던 귀국의 길에 올랐구나

다시보자 순철아
안아보자 꽃단아
오늘은 포근히 안아줄 조국이 있어
오늘은 웃으며 돌아갈 배길이 있어
배고동소리 울리며 오가던 귀국선타고
어머니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아, 부모없이는 살수 있어도
조국없이는 살수 없는 너희들을 부르는가
배고동소리 배고동소리 어머니의 자애로운
음성으로
하늘땅에 메아리칠 때 너희들은 교아가
아니였어라

아동공원에서

박혜란

《이야기는 재미있는것 같은데 우리 시대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만만하게 썼다고 생각한 나의 아동소설원고에 대한 편집부의 평가였다.

공상을 불러일으키던 처녀작이 기각당했다는 실망을 안고 퇴근길에 나선 나는 쓸쓸한 감정을 멀리 마음밖으로 날려보내고 싶어 아동공원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보람찼던 3대혁명소조시절에 이미 정들여놓은 아동공원은 예나 변함없는 류다른 정서로 나를 동심세계로 이끌어갔다. 푸른 잔디우에서 좋아라 덩구는 장난꾸러기들, 빙빙 도는 비행기안에서 손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꼬마들...

무성한 나무아래의 돌의자에 앉아 즐겁게 뛰노는 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있는데 어디선가 문득 《소조원아지미!》 하고 부르는 총각애의 애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전까지 평양시의 어느 한 완구공장에서 3대혁명소조로 사업하던 나날에 유치원의 임자를 찾아 저도 모르게 머리를 돌렸다.

한 꼬마가 나를 향해 달음박질해왔다. 3대혁명소조기간을 마치고 공장을 떠나올 때 헤어졌던 철이었다. 공장유치원에 다니던 철이와는 인연깊게 친숙해졌던지라 나는 다정한 친구라도 만났듯 한 유쾌한 기분으로 그 애를 덥석 안아올렸다.

《야, 소조원아지미 딱 보고싶었다.》

《정말?》

《정말 아니문 씨- 나 땅크 만들어준 아지민데 뭐.》

철이는 자기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손에 들었던 놀이감땅크를 내밀어보였다. 철이가 내민 낯익은 놀이감을 대하게 되니 3대혁명소조활동을 벌리던 나날들이 선히 떠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교양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길수록 우리는 아동교양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완구공장에 파견되였던 우리는 완구생산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완구를 만들기 위하여 시안의 유치원들을 찾아다니며 완구품종을 연구했었다.

그대 철이는 나에게 저절로 굴러가는 땅크를 만들어달라고 졸랐다. 그래서 나는 철이의 요구대로 건전지를 넣으면 썩- 하고 달리는 멋진 땅크를 만들어 유치원에 보내주었다. 놀이감땅크가 유치원의 넓은 방안과 긴 복도를 쉴새없이 오가며 아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때 나는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풀어준 만족감으로 가슴부풀어올랐다.

아이들을 위하여 만든 나의 창조물이 해넘도록 지금도 철이의 손에서 사랑을 받고있는것을 보니 그 애가 무척 고마와졌다.

《철인 땅크놀이감이 제일 좋은 모양이구나?》

이 물음에 철이는 꽃망울같은 입술을 오무리며 대꾸했다.

《예, 그런데 이 땅크 싫어요.》

《?...》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방금전 그 애한테서 받았던 일종의 고마움도 짱그리 사라져버렸다.

제법 고무로 바퀴를 해썩은 무한계도며 포신까지 빙빙 돌아가는 철갑땅크... 이 멋쟁이 놀이감이 싫다니?

《아지미, 인민군대아저씨들이 탄 땅크는 산두 넘구 강두 막 건너가는데 이 땅크 도랑창도 못 건너가는데 뭐.》

과연 그 말이 옳다. 말그대로 놀이감땅크가 아닌가. 쌓였던 의혹이 일시에 풀렸다. 이쯤한 비란이면 얼마든지 너그럽게 받아들일수 있었다.

《이담에 땅크병 되문 이따위 땅크 안몰태야. 강두 산두 막 넘는 땅크를 몰태야. 그래야 이 책에 있는 형님처럼 미국놈 많이 잡구 영웅되지.》 하더니 철이는 잔디밭위로 외롭게 굴러가는 놀이감땅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치원가방안에서 그림이야기책을 꺼내서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었다.

자기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번 보라는듯이...

《용감한 인민군대 땅크병아저씨는...》

들어보니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과 용감히 싸운 한 땅크병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재롱스레 글을 읽어내려가는 철이의 모습을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헤어진지는 오래지 않건만 벌써 우리글을 배운 그가 무척 대견스러웠다.

그러고보니 철이는 얼마나 몰라보게 성장했는가. 하지만 아직 그는 어린애여서 어리광을 부리듯 내 무릎에 털썩 안기며 귀에 대고 속삭이듯

다.

《아지미, 나한테 더 좋은 땅크만들어줘 응?
난 꼭 영웅 땅크병 될테야.》

그리고는 이미 소조원시절이 끝난 나에게 새끼
손가락을 걸었다. 무심히 대할수 없는 이 어린
세대의 약속앞에서 나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
다.

놀이감의 색깔이나 형태를 구분하는것만으로도
《참 용타!》하고 어머니의 칭찬을 받을 아이의
나이에 벌써 앞날의 희망과 꿈을 그 놀이감에서
찾을줄 아는 철이.

철이에게는 놀이감땅크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
니였다. 그는 이 놀이감 하나에서도 미래의 땅크
병이 될 꿈을 안았고 미국놈을 쳐부실 의지를 키
워가고 있는것이였다.

이것이 어찌 비단 철이의 마음뿐이라. 그것은
우리 시대 아이들의 공통한 정신세계인것이다.

그런데 나는 바로 아이들의 이 귀중한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기각당한 첫 작
품에서 아이들의 아기자기한 생활의 결면만을 보
여주는데 더 매력을 느꼈던것이다.

우리 당은 아동문학작품에 주체사상으로 교양
육성된 새세대의 고유한 정서를 그들의 연령과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려낼데 대하여 밝혀주고있
다.

나는 철이의 참된 모습을 놀이감땅크를 들고

기뻐하는 그의 미소에서가 아니라 그 놀이감에서
미래의 지향과 꿈과 념원을 키워가는 그의 속마
음에서 찾았어야 할것이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나의 작품에 우리 시대 아이
들의 정신적높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편집부
의 평가는 너무도 응당했다.

우리 시대, 80년대의 아이들은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저 달속의 계수나무를 은도끼로
찍어다가 옥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아빠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자기들의
소박한 념원을 동요에 담던 어제날의 세대가 아
니다.

우리의 새세대들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
회를 건설해나갈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며
우주를 정복해갈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사는
꽃봉오리들인것이다.

철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을 다짐하며
나에게 요구한것도 단순히 놀이감땅크가 아닐것
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공원을 나서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거리에는 황홀한 밤풍경이 펼쳐지고 아이들의
밝은 눈동자와도 같이 초롱초롱한 별들이 밤하늘
에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하고
어릴적에 부르던 동요를 입속으로 외우며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길을 다그쳤다.

한장의 글발

-은하혁명사적관에서-

김덕량

붉은 천우에 놓여있다
끈을 맨 콩다리연필
손바닥만한 목책 한권
포연에 절은 누구의 유물도 아닌
화전민의 손때묻은 수수한 목책이
이 진렬대우에 소중히 놓여있다
온 나라가 다 보게

조용히 허리굽히고
나는 읽는다
《우리 집에 모신 김일성장군님
산에 황금을 따내어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셨네...》

오, 가슴속에만 묻어둘수 없어

오늘에만 남길수 없어
끈을 맨 콩다리연필로
또박또박 적어놓은 이 글발

정녕 그날에 가슴속에 펼쳐주신
꿈같은 《황금산》의 새 전설을
전하고 또 전하고싶어
여기에 그 사랑을
글발로 남겨놓았구나

오 한장의 글발이여
너는 《황금산》을 불러오신
위대한 사랑을
그날에 벌써 써놓았구나
영원히 전할 《황금산》의 서사시로!

그날에 부를 노래

박해출

어린시절

아버지 들려주던 노래

내 고향 호남벌 아득한 지평선

하늘과 맞닿은 넓은 땅바다

참대와 강 많고 기름진 땅이건만

봄없는 땅이어서 씨앗도 움트지 않네

...

땅바다 그리움

참대숲 그리움

그리움만 해를 두고 나이차듯

가슴에 쌓인 어언 40년

이제는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

날알향기 구수한 풍년가을밤

손목을 이끌고 들에 나서면

아버지의 그 노래 문득 생각나

깊어지는 생각이여

아버지 끝내 가보지 못하신곳

내 어린 발자욱 못찍어본곳

내 만일 그 노래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다시 이 땅에 그리움만 쌓인다면

아들아 내 아들아

지척을 천리에 두고

너마저 이 벌에서 그 노래 배운다면

아마도 그 땅은 영영 갈라터지리니

아들아

총총 여몰어 설레이는 저 이삭을 보아라

아버지의 그 마음 알알이 어려

이렇듯 안타까이

넓은 땅을 쥐고흔드는것을

내 아버지 태가 묻힌곳

내 언제든 갈아엎고 싹을 틔울 땅

꿈에도 못잇는 호남벌

이 밤도 겨레들이 쪽정이만 그러안고

마른 가슴 쥐어뜯을 원한서린 땅

어서가자

어서 갈 그날을 위해

이 땅에 낱알을 더 많이 가꾸고

봄빛을 안고 해빛을 안고

너에게 배워줄 새 노래를 안고

마른땅 적시며 생명수 흘러드네

민족의 아픔을 씻어버린 땅

해빛 봄빛 넘치는 호남벌땅바닥에

발같이하세 풍년바다 펼치세